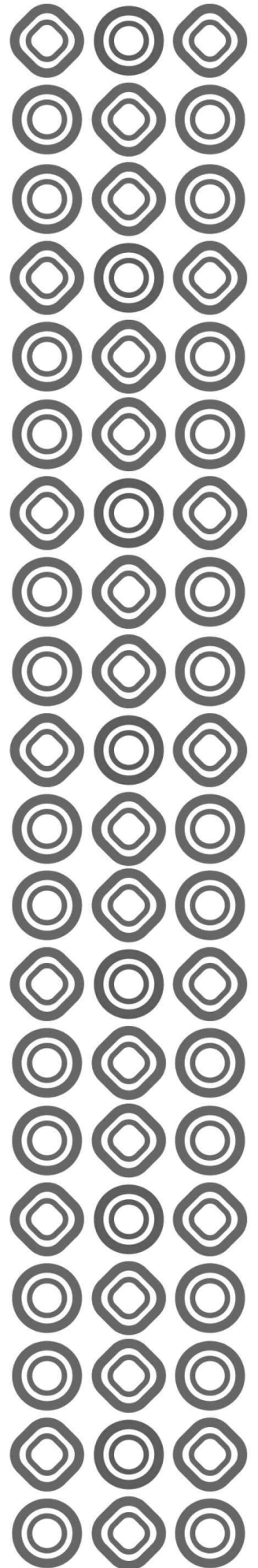


UWFDI 연구보고서 2019-08

# 2019년 울산시민 양성평등 인식조사

유아랑





# 2019년 울산시민 양성평등 인식조사

(A survey of Ulsan citizen's  
awareness on gender equality in 2019)

■ ■ ■

책임연구 : 유아랑(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



## I. 서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3 |
| 2. 양성평등의 개념 .....     | 5 |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 6 |
| 1) 연구내용 .....         | 6 |
| 2) 연구방법 .....         | 6 |
| 3) 연구추진체계 .....       | 6 |

## II. 울산시민 양성평등 인식조사 분석

|                                |    |
|--------------------------------|----|
| 1. 조사개요 .....                  | 9  |
| 1) 조사대상 .....                  | 9  |
| 2) 조사기간 및 방법 .....             | 9  |
| 3) 조사내용 .....                  | 10 |
| 2. 조사결과분석 .....                | 11 |
| 1) 응답자 특성 .....                | 11 |
| 2) 울산에 대한 생각 .....             | 12 |
| 3) 성역할 및 성별위계에 대한 태도 .....     | 32 |
| 4) 성 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        | 48 |
| 5) 성평등을 위해 긴급 추진되어야 할 정책 ..... | 76 |

### Ⅲ. 결론

|                                     |    |
|-------------------------------------|----|
| 1. 연구결과 요약 .....                    | 87 |
| 1)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생각 .....             | 87 |
| 2) 성역할 및 성별위계에 대한 태도 .....          | 88 |
| 3)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              | 91 |
| 4) 성평등을 위해 긴급 추진되어야 할 정책 .....      | 94 |
| 2. 성평등 울산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        | 95 |
| 1)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 95 |
| 2)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      | 96 |
| 3) 울산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 96 |
| 4) 지역사회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운영 ..... | 97 |
| <br>                                |    |
| ● 참고문헌 .....                        | 98 |
| ● 부록                                |    |
| 설문지 .....                           | 99 |

## 표목차

|                                     |    |
|-------------------------------------|----|
| 〈표II-1〉 조사 개요 .....                 | 9  |
| 〈표II-2〉 조사 내용 .....                 | 10 |
| 〈표II-3〉 2019 양성평등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  | 11 |
| 〈표II-4〉 울산에 대한 생각 .....             | 12 |
| 〈표II-5〉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        | 14 |
| 〈표II-6〉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     | 17 |
| 〈표II-7〉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           | 20 |
| 〈표II-8〉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      | 23 |
| 〈표II-9〉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      | 26 |
| 〈표II-10〉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    | 29 |
| 〈표II-11〉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성별위계 .....    | 32 |
| 〈표II-12〉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       | 33 |
| 〈표II-13〉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        | 36 |
| 〈표II-14〉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 | 39 |
| 〈표II-15〉 성역할 위계에 관한 평가 .....        | 41 |
| 〈표II-16〉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    | 43 |
| 〈표II-17〉 남성의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     | 46 |
| 〈표II-18〉 가족부양과 남성다움에 관한 평가 .....    | 49 |
| 〈표II-19〉 남성 소득 우위 관한 평가 .....       | 51 |
| 〈표II-20〉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      | 54 |
| 〈표II-21〉 남성의사결정자역할에 관한 평가 .....     | 57 |
| 〈표II-22〉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        | 60 |
| 〈표II-23〉 여성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      | 63 |
| 〈표II-24〉 일에서의 성 역할 분리태도 .....       | 66 |
| 〈표II-25〉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68 |
| 〈표II-26〉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71 |
| 〈표II-27〉 남성생계부양자에 관한 평가 .....       | 74 |

|                                      |    |
|--------------------------------------|----|
| 〈표Ⅱ-28〉 성평등을 위해 긴급 추진되어야 할 정책 .....  | 76 |
| 〈표Ⅱ-29〉 양성평등문화 확산 .....              | 77 |
| 〈표Ⅱ-30〉 일과 가정 양립확산정책 .....           | 78 |
| 〈표Ⅱ-31〉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분야 참여 ..... | 79 |
| 〈표Ⅱ-32〉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 .....        | 80 |
| 〈표Ⅱ-33〉 복지증진 .....                   | 81 |
| 〈표Ⅱ-34〉 안전한 도시환경 .....               | 82 |
| 〈표Ⅱ-35〉 건강과 보건 .....                 |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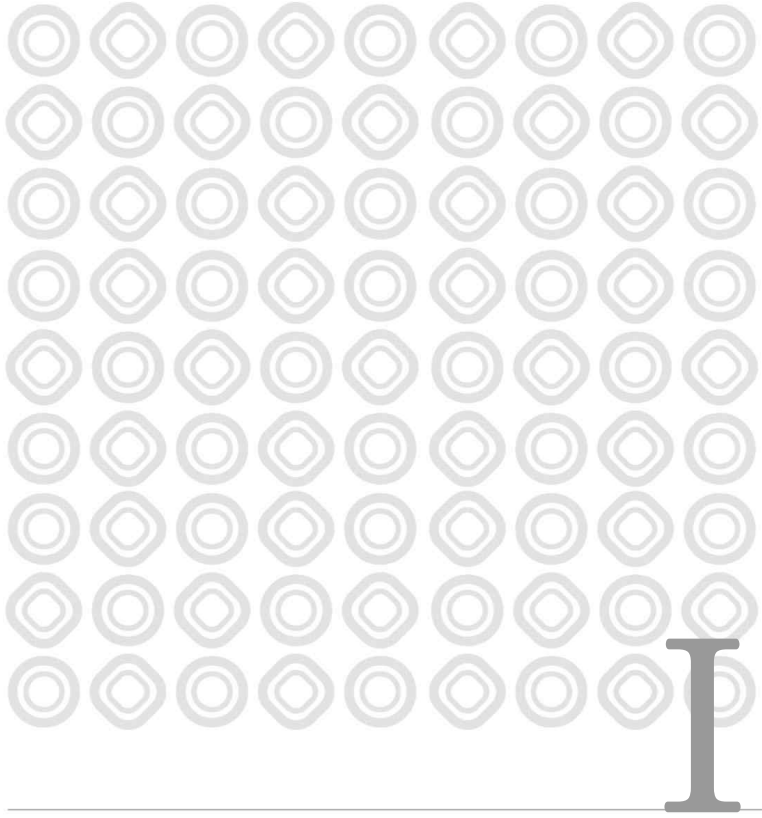
## 그림목차

|   |    |
|---|----|
| 〈그림Ⅲ-1〉 울산에 대한 생각 .....                   | 12 |
| 〈그림Ⅱ-2〉 성별에 따른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       | 16 |
| 〈그림Ⅱ-3〉 지역에 따른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       | 16 |
| 〈그림Ⅱ-4〉 연령에 따른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       | 16 |
| 〈그림Ⅱ-5〉 결혼여부에 따른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     | 16 |
| 〈그림Ⅱ-6〉 성별에 따른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 .....    | 19 |
| 〈그림Ⅱ-7〉 지역에 따른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 .....    | 19 |
| 〈그림Ⅱ-8〉 연령에 따른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 .....    | 19 |
| 〈그림Ⅱ-9〉 결혼여부에 따른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 .....  | 19 |
| 〈그림Ⅱ-10〉 성별에 따른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         | 22 |
| 〈그림Ⅱ-11〉 지역에 따른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         | 22 |
| 〈그림Ⅱ-12〉 연령에 따른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         | 22 |
| 〈그림Ⅱ-13〉 결혼여부에 따른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       | 22 |
| 〈그림Ⅱ-14〉 성별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    | 25 |
| 〈그림Ⅱ-15〉 지역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    | 25 |
| 〈그림Ⅱ-16〉 연령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    | 25 |
| 〈그림Ⅱ-17〉 결혼여부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  | 25 |
| 〈그림Ⅱ-18〉 성별에 따른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    | 28 |
| 〈그림Ⅱ-19〉 지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    | 28 |
| 〈그림Ⅱ-20〉 연령에 따른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    | 28 |
| 〈그림Ⅱ-21〉 결혼여부에 따른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  | 28 |
| 〈그림Ⅱ-22〉 성별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   | 31 |
| 〈그림Ⅱ-23〉 지역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   | 31 |
| 〈그림Ⅱ-24〉 연령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   | 31 |
| 〈그림Ⅱ-25〉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 | 31 |
| 〈그림Ⅱ-26〉 성별에 따른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      | 35 |
| 〈그림Ⅱ-27〉 지역에 따른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      | 35 |
| 〈그림Ⅱ-28〉 연령에 따른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      | 35 |
| 〈그림Ⅱ-29〉 결혼여부에 따른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    | 35 |
| 〈그림Ⅱ-30〉 성별에 따른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       | 37 |

|  |    |
|--|----|
| 〈그림II-31〉 지역에 따른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         | 37 |
| 〈그림II-32〉 연령에 따른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         | 38 |
| 〈그림II-33〉 결혼여부에 따른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       | 38 |
| 〈그림II-34〉 성별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관한 평가 .....   | 40 |
| 〈그림II-35〉 지역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관한 평가 .....   | 40 |
| 〈그림II-36〉 연령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관한 평가 .....   | 41 |
| 〈그림II-37〉 결혼여부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관한 평가 ..... | 41 |
| 〈그림II-38〉 성별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     | 44 |
| 〈그림II-39〉 지역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     | 44 |
| 〈그림II-40〉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     | 45 |
| 〈그림II-41〉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   | 45 |
| 〈그림II-42〉 성별에 따른 남성이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      | 47 |
| 〈그림II-43〉 지역에 따른 남성이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      | 47 |
| 〈그림II-44〉 연령에 따른 남성이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      | 48 |
| 〈그림II-45〉 결혼여부에 따른 남성이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    | 48 |
| 〈그림II-46〉 성별에 따른 남성소득 우위에 관한 평가 .....        | 52 |
| 〈그림II-47〉 지역에 따른 남성소득 우위에 관한 평가 .....        | 52 |
| 〈그림II-48〉 연령에 따른 남성소득 우위에 관한 평가 .....        | 53 |
| 〈그림II-49〉 결혼여부에 따른 남성소득 우위에 관한 평가 .....      | 53 |
| 〈그림II-50〉 성별에 따른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       | 56 |
| 〈그림II-51〉 지역에 따른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       | 56 |
| 〈그림II-52〉 연령에 따른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       | 56 |
| 〈그림II-53〉 결혼여부에 따른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     | 56 |
| 〈그림II-54〉 성별에 따른 남성의사결정자역할에 관한 평가 .....      | 59 |
| 〈그림II-55〉 지역에 따른 남성의사결정자역할에 관한 평가 .....      | 59 |
| 〈그림II-56〉 연령에 따른 남성의사결정자역할에 관한 평가 .....      | 59 |
| 〈그림II-57〉 결혼여부에 따른 남성의사결정자역할에 관한 평가 .....    | 59 |
| 〈그림II-58〉 성별에 따른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         | 62 |
| 〈그림II-59〉 지역에 따른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         | 62 |
| 〈그림II-60〉 연령에 따른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         | 62 |

|  |    |
|--|----|
| 〈그림II-61〉 결혼여부에 따른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       | 62 |
| 〈그림II-62〉 성별에 따른 여성의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      | 65 |
| 〈그림II-63〉 지역에 따른 여성의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      | 65 |
| 〈그림II-64〉 연령에 따른 여성의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      | 65 |
| 〈그림II-65〉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의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    | 65 |
| 〈그림II-66〉 성별에 따른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70 |
| 〈그림II-67〉 지역에 따른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70 |
| 〈그림II-68〉 연령에 따른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70 |
| 〈그림II-69〉 결혼여부에 따른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70 |
| 〈그림II-70〉 성별에 따른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72 |
| 〈그림II-71〉 지역에 따른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72 |
| 〈그림II-72〉 연령에 따른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73 |
| 〈그림II-73〉 결혼여부에 따른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  | 73 |
| 〈그림II-74〉 성별에 따른 생계부양자에서 남성우선에 관한 평가 .....   | 76 |
| 〈그림II-75〉 지역에 따른 생계부양자에서 남성우선에 관한 평가 .....   | 76 |
| 〈그림II-76〉 연령에 따른 생계부양자에서 남성우선에 관한 평가 .....   | 76 |
| 〈그림II-77〉 결혼여부에 따른 생계부양자에서 남성우선에 관한 평가 ..... | 76 |





##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 및 방법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국가 성평등 지수가 2011년 67.4점에서 2018년 기준 72.9점으로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향상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2017년 실시한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7)<sup>1)</sup>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성평등 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116위로 낮은 수준임. 또한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고정관념이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남녀 간, 세대 간 등 상반된 인식이 차이(여성가족부, 2017)<sup>2)</sup>가 여전함.
- 우리나라는 “평등을 일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양성평등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등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2019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하고 있음.
- 또한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 교육 추진, 지역 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추진 등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음(2019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
- 보다 중장기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라,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추진되고 있음.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힘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주요 핵심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즉, 과거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초점을 둔 평등

1)여성가족부(2017) 제1차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여성가족부(2017) 제1차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에서 남녀와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인식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울산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여성가족부에서 한 도시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지역성평등 지수자료에서 하위지역에 머물렀었으나, 2019년 말 발표된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에 의하면,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진입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으로 나타남.
- 지역 성평등 지수의 3개 영역(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에서 모두 개선되었고, 그 중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전국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의 수준은 중하위권에 놓여있어 성평등 의식·문화 수준에 비해 사회참여나, 여성의 인권, 복지 등에서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울산시가 앞으로 각 분야별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유아랑(2016)<sup>3)</sup>에서는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고, 울산시에 필요한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울산시 시민 대상 양성평등인식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였음. 그 결과 남녀 간 상반된 양성평등 인식과 정책 욕구가 나타났으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 이후, 울산시에서는 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울산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울산 시민 대상 양성평등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9년 양성평등 주간 동안 울산시민 대상 양성평등 인식과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성평등 울산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음.

3) 유아랑(2016) 울산광역시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2. 양성평등의 개념

-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함.
- OECD에서는 양성평등을 자원이나 이윤의 분배에서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타고난 성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상태, 개인이 성별에 의해 직·간접적인 차이를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의미, 차이란 기회, 자원, 혜택, 의사결정권 및 영향력에 있어 차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7 재인용).
- Fraser & Honneth(2003)는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지위나 권한, 그리고 서로 간 관계에서의 평등을 말하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의 평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수연 외, 2016에서 재인용)으로 설명함.
- 이재경과 김경희(2012)는 성평등은 다양한 차원과 많은 의미의 층위를 가진 복잡한 개념으로 위계화 된 성역할, 성 정체성, 성별 지위와 규범 등을 포함한 불평등한 사회구조 논리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정형욱 외(2016)에서는 성평등은 궁극적으로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운영논리와 젠더질서를 바꾸는 것이며, 공사영역으로 분리된 성역할과 자원분배의 규칙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수연 외(2016)에서는 양성평등 또는 성평등은 같은 의미<sup>4)</sup>로 사용하며, 이는 남녀의 지위나 권한에서 평등, 서로 간 관계에서의 평등,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의 평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 가부장제도에서의 젠더를 기반으로 한 불균형한 권력과 자원의 분배 시스템에 대한 도전,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물질적 배분과 지위의 인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상을 정리해 보면, 양성평등은 공적,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지위, 권한, 관계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음.
-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구성물(정형욱, 2016)로, 각 사회의 시민 인식과 경험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문제 인지와 성평등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음. 이에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연구와 같은 지역사회 성평등 인식수준과 정책욕구를 파악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4)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남녀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영어로는 모두 젠더이퀄리티(gender equality)로 번역됨.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성평등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뿐 두 용어의 개념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결국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용어의 차이가 아닌 용어에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이수연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의 용어, 법, 정책명 등 이미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음.

### 3.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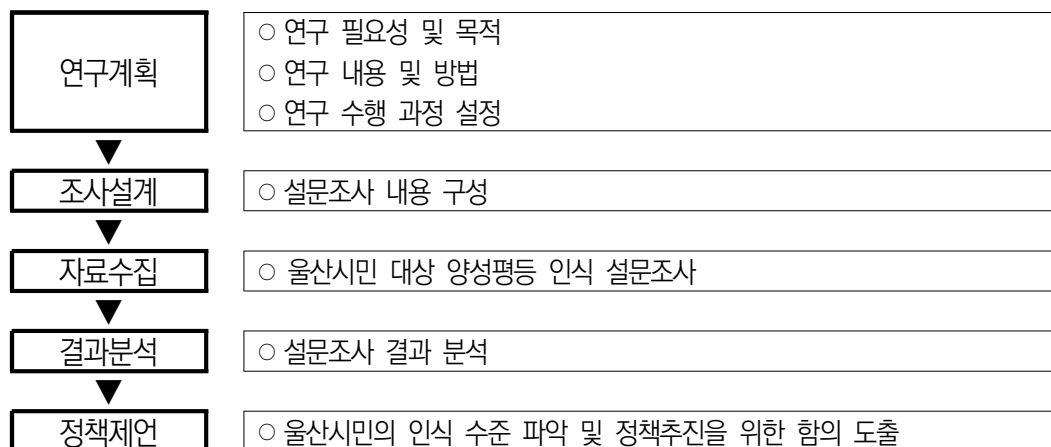
#### 1)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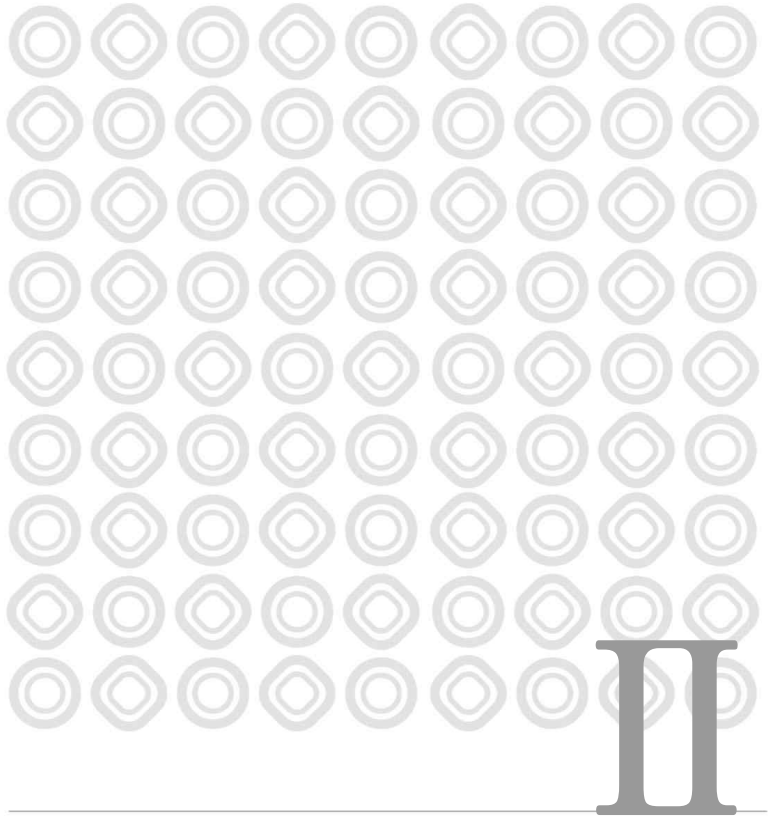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성평등 울산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울산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및 정책수요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함. 우선 울산시민의 울산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생각에 대한 설문을 통해 울산의 양성평등 수준과 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양성평등한 울산을 위해 추진할 정책수요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하였음.
- 둘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 후, 향후 울산시민 양성평등 인식제고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음.

#### 2)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이며,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도구는 기존의 2017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에서 개발된 설문문항과 2017년 울산광역시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울산시 거주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음.

#### 3) 연구추진체계





## 울산시민 양성평등 인식조사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분석
-



## II 울산시민 양성평등 인식조사 분석

### 1.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 울산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및 정책욕구 조사를 위해서 2019년 양성평등주간행사 기간 동안 개최된 울산 축제에 참여한 울산시민 1,000명을 편의표본추출 하였음.

#### 2)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은 2019.7.19.(금) ~ 2019.7.31.(수) 동안 일대일 대면 면접 방식으로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기관에 의해 수행되었음.

〈표II-1〉 조사 개요

| 구 분    | 울산시민 양성평등 인식조사 분석           |
|--------|-----------------------------|
| ① 조사대상 | 만20세 ~ 69세 울산 시민            |
| ② 조사방법 |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
| ③ 표본추출 | 편의표본추출                      |
| ④ 조사기간 | 2019년 7월 19일 ~ 2019년 7월 31일 |

### 3) 조사내용

〈표 11-2〉 조사 내용

| 항목                | 세부 항목                                       | 문항 내용  |
|-------------------|---|--|
| 울산에 대한 생각         | 성평등과 관련하여 울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 1. 울산은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도시라 생각한다.<br>2. 울산(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br>3. 울산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보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br>4. 울산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br>5. 울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br>6. 울산은 여성과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 |
|                   | 성역할 및 성별위계에 대한 태도                           | 1.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br>2.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br>3.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
|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 성역할 위계에 관한 평가                               | 1.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br>2.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
|                   |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 1.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br>2.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br>3.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br>4.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br>5.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 울산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 일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 1.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br>2.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br>3.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근거)를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 3가지 | 1. 양성평등 문화확산<br>2. 일과 가정 양립 확산 정책<br>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 분야 참여<br>4.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br>5. 복지증진<br>6.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br>7. 건강과 보건  |

## 2. 조사결과분석

### 1) 응답자 특성

〈표 II-3〉 2019 양성평등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 구분        |      | 빈도  | 비율   |
|-----------|------|-----|------|
| 성별        | 전체   | 936 | 95.6 |
|           | 여성   | 680 | 69.5 |
|           | 남성   | 256 | 26.1 |
| 거주지역      | 전체   | 954 | 97.4 |
|           | 중구   | 393 | 40.1 |
|           | 남구   | 109 | 11.1 |
|           | 동구   | 260 | 26.6 |
|           | 북구   | 116 | 11.8 |
|           | 울주군  | 32  | 3.3  |
|           | 기타   | 44  | 4.5  |
|           | 연령   | 전체  | 928  |
| 연령        | 20대  | 116 | 11.8 |
|           | 30대  | 66  | 6.7  |
|           | 40대  | 68  | 6.9  |
|           | 50대  | 273 | 27.9 |
|           | 60대  | 404 | 41.3 |
|           | 결혼여부 | 전체  | 900  |
| 미혼        |      | 180 | 18.4 |
| 기혼(배우자있음) |      | 643 | 65.7 |
| 이혼/별거     |      | 13  | 1.3  |
| 사별        |      | 46  | 4.7  |
| 동거(사실혼)   |      | 12  | 1.2  |
| 기타(친인척)   |      | 4   | 0.4  |
| 기타(동거인)   |      | 1   | 0.1  |
| 비혼        |      | 1   | 0.1  |

## 2) 울산에 대한 생각

- 성평등한 도시로서의 울산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울산의 성평등 수준과 성평등 정책 추진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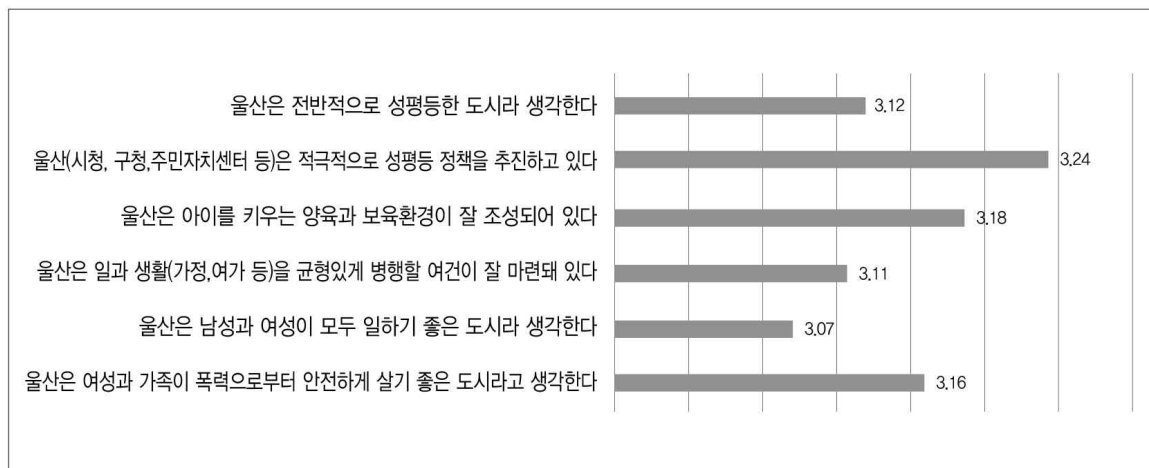
〈표 II-4〉 울산에 대한 생각

(단위 : 점, 명, %)

| 문항   | 계<br>(전체)   | 평점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울산은 전반적으로<br>성평등한 도시라 생각 한다                    | 976<br>99.7 | 3.12 | 43<br>4.4       | 162<br>16.5     | 475<br>48.5 | 245<br>25.0 | 51<br>5.2 |
| 울산(시청,구청,주민자치센터 등)은<br>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971<br>99.2 |      | 43<br>4.4       | 141<br>14.4     | 442<br>45.1 | 280<br>28.6 | 65<br>6.6 |
| 울산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보육환경이 잘<br>구성되어 있다             | 973<br>99.4 | 3.18 | 37<br>3.8       | 172<br>17.6     | 444<br>45.4 | 252<br>25.7 | 68<br>6.9 |
| 울산은 일과 생활(가정, 여가 등)을<br>균형 있게 병행할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 | 970<br>99.1 |      | 47<br>4.8       | 195<br>19.9     | 436<br>44.5 | 239<br>24.4 | 53<br>5.4 |
| 울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br>일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 한다             | 973<br>99.4 | 3.07 | 52<br>5.3       | 219<br>22.4     | 406<br>41.5 | 233<br>23.8 | 63<br>6.4 |
| 울산은 여성과 가족이 폭력으로부터<br>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 한다    | 977<br>99.8 |      | 34<br>3.5       | 148<br>15.1     | 482<br>49.2 | 255<br>27.1 | 48<br>4.9 |

〈그림 III-1〉 울산에 대한 생각

(단위 : 점)





- 울산 시민의 울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울산에 대한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6 문항의 평점은 3.15점으로 나타났음. 그 중 ‘울산(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가 3.24점으로 가장 평점이 높으며, ‘그렇다’ 35.2%(대체로 그렇다28.6%+매우 그렇다6.6%), ‘그렇지 않다’ 28.8%(별로 그렇지 않다 14.4%+전혀 그렇지 않다4.4%)의 비율로 나타남.
- 다음 순으로 ‘울산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보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3.18점으로, ‘그렇다’ 32.6%(대체로 그렇다25.7%+매우 그렇다6.9%), ‘그렇지 않다’ 21.4%(별로 그렇지 않다17.6%+전혀 그렇지 않다3.8%)의 비율로 나타남.
- ‘울산은 여성과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 한다.’는 3.16 점으로, ‘그렇다’ 32.0%(대체로 그렇다27.1%+매우 그렇다4.9%), ‘그렇지 않다’ 18.6% (별로 그렇지 않다15.1%+전혀 그렇지 않다3.5%)의 비율로 나타남.
- ‘울산은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도시라 생각 한다.’는 3.12점으로, ‘그렇다’ 30.2%(대체로 그렇다25.0%+매우 그렇다5.2%), ‘그렇지 않다’ 20.9%(별로 그렇지 않다16.5%+전혀 그렇지 않다4.4%)의 비율로 나타남.
- ‘울산은 일과 생활(가정, 여가 등)을 균형 있게 병행할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는 3.11 점으로, ‘그렇다’ 29.8%(대체로 그렇다24.4%+매우 그렇다5.4%), ‘그렇지 않다’ 24.7% (별로 그렇지 않다19.9%+전혀 그렇지 않다4.8%)의 비율로 나타남.
- ‘울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 한다.’는 3.07점으로, ‘그렇다’ 30.2%(대체로 그렇다23.8%+매우 그렇다6.4%), ‘그렇지 않다’ 27.7%(별로 그렇지 않다 22.4%+전혀 그렇지 않다5.3%)의 비율로 나타남.

(1) 성 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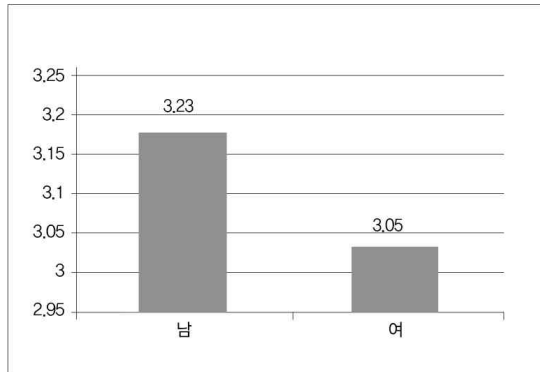
〈표II-5〉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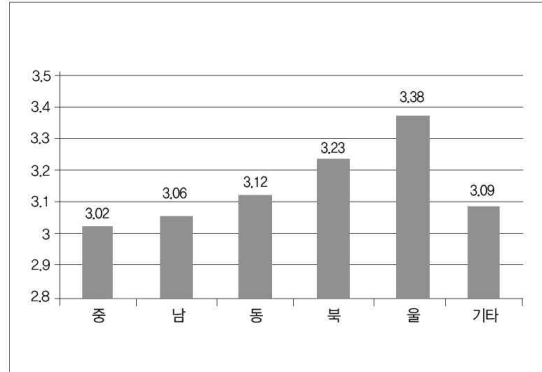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균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
| 울산은 전반적으로<br>성평등한 도시라<br>생각한다. | 성별        | 남         | 255<br>(100) | 3.23            | 13<br>(5.1) | 33<br>(12.9)  | 112<br>(43.8) | 78<br>(30.5)  | 20<br>(7.8)  |            |
|                                |           | 여         | 677<br>(100) | 3.05            | 28<br>(4.1) | 124<br>(18.3) | 337<br>(49.8) | 159<br>(23.5) | 29<br>(4.3)  |            |
|                                | 지역별       | 중         | 390<br>(100) | 3.02            | 21<br>(5.4) | 80<br>(20.5)  | 181<br>(46.4) | 86<br>(22.1)  | 22<br>(5.6)  |            |
|                                |           | 남         | 109<br>(100) | 3.06            | 7<br>(6.4)  | 18<br>(16.5)  | 50<br>(45.9)  | 29<br>(26.6)  | 5<br>(4.6)   |            |
|                                |           | 동         | 260<br>(100) | 3.12            | 8<br>(3.1)  | 41<br>(15.8)  | 137<br>(52.7) | 61<br>(23.5)  | 13<br>(5.0)  |            |
|                                |           | 북         | 116<br>(100) | 3.23            | 0<br>(0.0)  | 17<br>(14.7)  | 58<br>(50.0)  | 38<br>(32.8)  | 3<br>(2.6)   |            |
|                                |           | 울         | 32<br>(100)  | 3.38            | 1<br>(3.1)  | 1<br>(3.1)    | 17<br>(53.1)  | 11<br>(34.4)  | 2<br>(6.3)   |            |
|                                |           | 기타        | 44<br>(100)  | 3.09            | 6<br>(13.6) | 3<br>(6.8)    | 20<br>(45.5)  | 11<br>(25.0)  | 4<br>(9.1)   |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3.31        | 7<br>(6.0)    | 6<br>(5.2)    | 55<br>(47.4)  | 40<br>(34.5) | 8<br>(6.9) |
|                                |           |           | 30대          | 66<br>(100)     | 3.06        | 3<br>(4.5)    | 10<br>(15.2)  | 37<br>(56.1)  | 12<br>(18.2) | 4<br>(6.1) |
|                                | 40대       |           | 68<br>(100)  | 3.01            | 1<br>(1.5)  | 15<br>(22.1)  | 36<br>(52.9)  | 14<br>(20.6)  | 2<br>(2.9)   |            |
|                                | 50대       |           | 273<br>(100) | 3.08            | 8<br>(2.9)  | 54<br>(19.8)  | 132<br>(48.4) | 67<br>(24.5)  | 12<br>(4.4)  |            |
|                                | 60대<br>이상 |           | 401<br>(100) | 3.09            | 19<br>(4.7) | 71<br>(17.7)  | 186<br>(46.4) | 106<br>(26.4) | 19<br>(4.7)  |            |
|                                | 결혼<br>여부  | 미혼        | 180<br>(100) | 3.20            | 10<br>(5.6) | 20<br>(11.1)  | 87<br>(48.3)  | 50<br>(27.8)  | 13<br>(7.2)  |            |
|                                |           | 기혼        | 641<br>(100) | 3.07            | 23<br>(3.6) | 122<br>(19.0) | 307<br>(47.9) | 162<br>(25.3) | 27<br>(4.2)  |            |
|                                |           | 이혼/<br>별거 | 13<br>(100)  | 2.85            | 1<br>(7.7)  | 3<br>(23.1)   | 6<br>(46.2)   | 3<br>(23.1)   | 0<br>(0.0)   |            |
|                                |           | 사별        | 46<br>(100)  | 3.15            | 3<br>(6.5)  | 3<br>(6.5)    | 28<br>(60.9)  | 8<br>(17.4)   | 4<br>(8.7)   |            |
|                                |           | 사실혼       | 12<br>(100)  | 3.25            | 1<br>(8.3)  | 2<br>(16.7)   | 4<br>(33.3)   | 3<br>(25)     | 2<br>(16.7)  |            |

- 먼저, 성평등한 울산에 대해 평가한 문항 ‘울산은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도시라 생각한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3.23점, 여성 3.05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8.3%(그렇다30.5%+매우 그렇다7.8%), ‘그렇지 않다’ 18%(그렇지 않다12.9%+전혀 그렇지 않다5.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27.8%(그렇다23.5%+매우 그렇다4.3%), ‘그렇지 않다’ 22.4%(그렇지 않다18.3%+전혀 그렇지 않다4.1%)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울주군 3.38점, 북구 3.23점, 동구 3.12점, 기타 3.09점, 남구 3.06점, 중구 3.02점으로 울주군 3.38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중구 3.02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울주군의 경우 ‘그렇다’ 40.7%(그렇다34.4%+매우 그렇다6.3%), ‘그렇지 않다’ 6.2%(그렇지 않다3.1%+전혀 그렇지 않다3.1%)의 비율로 나타남. 중구의 경우 ‘그렇다’ 27.7%(그렇다22.1%+매우 그렇다5.6%), ‘그렇지 않다’ 25.9%(그렇지 않다20.5%+전혀 그렇지 않다5.4%)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20대 3.31점, 60대 이상 3.09점, 50대 3.08점, 30대 3.06점, 40대 3.01점으로 20대 3.31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40대 3.01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20대의 경우 ‘그렇다’ 41.4%(그렇다34.5%+매우 그렇다6.9%), ‘그렇지 않다’ 11.2%(그렇지 않다5.2%+전혀 그렇지 않다6.0%)의 비율로 나타남. 40대의 경우 ‘그렇다’ 23.5%(그렇다20.6%+매우 그렇다2.9%), ‘그렇지 않다’ 23.6%(그렇지 않다22.1%+전혀 그렇지 않다1.5%)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25점, 미혼 3.20점, 사별 3.15점, 기혼 3.07점, 이혼 2.85점으로 사실혼 3.2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이혼 2.8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41.7%(그렇다25%+매우 그렇다16.7%),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16.7%+전혀 그렇지 않다8.3%)의 비율로 나타남. 이혼/별거의 경우 ‘그렇다’ 23.1%, ‘그렇지 않다’ 30.8%(그렇지 않다23.1%+전혀 그렇지 않다7.7%)로 나타남.
- ‘울산은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도시라 생각한다.’에 대해 남성(3.23점)이 여성 (3.05점)에 비해 높게, 거주지역 중 울주군(3.38점)이 가장 높고, 중구(3.02점)가 가장 낮으며, 연령별로 20대(3.31점)가 높고 40대(3.01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 따라서 사실혼(3.25점)이 높고, 이혼(2.85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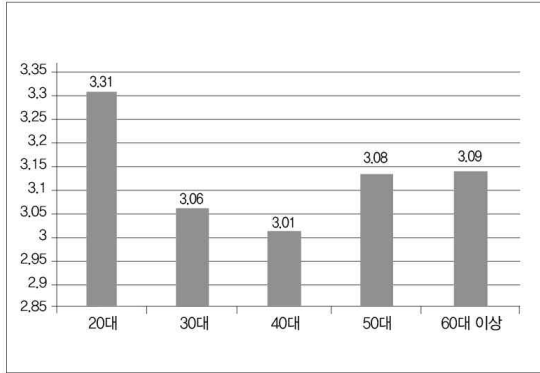
〈그림 II-2〉 성별에 따른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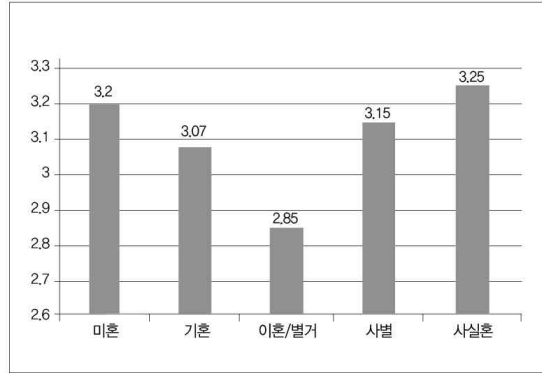
〈그림 II-3〉 지역에 따른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그림 II-4〉 연령에 따른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그림 II-5〉 결혼여부에 따른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평가



(2)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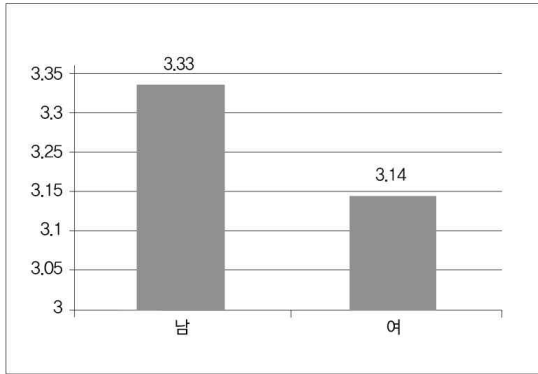
〈표 II-6〉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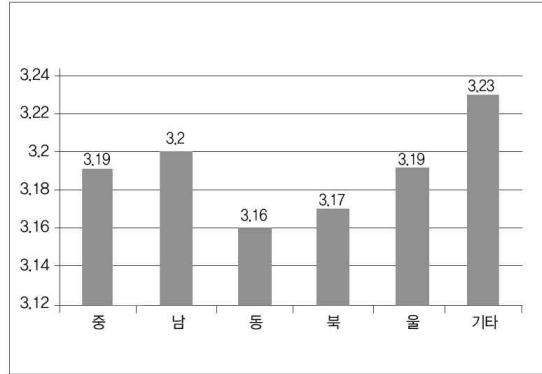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   |           |              |              |                 |              |               |               |               | 점            |
| 울산<br>(사청 구청<br>주민자치센터 등은<br>적극적으로 성평등<br>정책을 추진하고<br>있다. | 성별        | 남            | 253<br>(100) | 3.33            | 12<br>(4.7)  | 27<br>(10.7)  | 109<br>(43.1) | 76<br>(30.0)  | 29<br>(11.5) |
|   |           | 여            | 677<br>(100) | 3.14            | 29<br>(4.3)  | 105<br>(15.5) | 317<br>(46.8) | 194<br>(28.7) | 32<br>(4.7)  |
|   | 지역별       | 중            | 388<br>(100) | 3.19            | 17<br>(4.4)  | 64<br>(16.5)  | 161<br>(41.5) | 122<br>(31.4) | 24<br>(6.2)  |
|   |           | 남            | 108<br>(100) | 3.20            | 7<br>(6.5)   | 12<br>(11.1)  | 49<br>(45.4)  | 32<br>(29.6)  | 8<br>(7.4)   |
|   |           | 동            | 259<br>(100) | 3.16            | 12<br>(4.6)  | 40<br>(15.4)  | 118<br>(45.6) | 72<br>(27.8)  | 17<br>(6.6)  |
|   |           | 북            | 116<br>(100) | 3.17            | 1<br>(0.9)   | 14<br>(12.1)  | 66<br>(56.9)  | 34<br>(29.3)  | 1<br>(0.9)   |
|   |           | 남            | 32<br>(100)  | 3.19            | 2<br>(6.3)   | 5<br>(15.6)   | 14<br>(43.8)  | 7<br>(21.9)   | 4<br>(12.5)  |
|   |           | 기타           | 43<br>(100)  | 3.23            | 4<br>(9.3)   | 3<br>(7.0)    | 22<br>(51.2)  | 7<br>(16.3)   | 7<br>(16.3)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3.38         | 3<br>(2.6)    | 7<br>(6.0)    | 60<br>(51.7)  | 35<br>(30.2) |
|   | 30대       | 66<br>(100)  | 3.20         | 2<br>(3.0)      | 6<br>(9.1)   | 41<br>(62.1)  | 11<br>(16.7)  | 6<br>(9.1)    |              |
|   | 40대       | 68<br>(100)  | 3.04         | 3<br>(4.4)      | 11<br>(16.2) | 35<br>(51.5)  | 18<br>(26.5)  | 1<br>(1.5)    |              |
|   | 50대       | 271<br>(100) | 3.12         | 9<br>(3.3)      | 46<br>(17.0) | 132<br>(48.7) | 72<br>(26.6)  | 12<br>(4.4)   |              |
|   | 60대<br>이상 | 398<br>(100) | 3.19         | 23<br>(5.8)     | 65<br>(16.3) | 152<br>(38.2) | 130<br>(32.7) | 28<br>(7.0)   |              |
|   | 결혼<br>여부  | 미혼           | 180<br>(100) | 3.29            | 4<br>(2.2)   | 17<br>(9.4)   | 97<br>(53.9)  | 46<br>(25.6)  | 16<br>(8.9)  |
|   |           | 기혼           | 638<br>(100) | 3.13            | 33<br>(5.2)  | 103<br>(16.2) | 281<br>(44.2) | 188<br>(29.6) | 31<br>(4.9)  |
|   |           | 이혼/<br>별거    | 13<br>(100)  | 3.23            | 0<br>(0.0)   | 3<br>(23.1)   | 5<br>(38.5)   | 4<br>(30.8)   | 1<br>(7.7)   |
|   |           | 사별           | 46<br>(100)  | 3.37            | 2<br>(4.3)   | 5<br>(10.9)   | 18<br>(39.1)  | 16<br>(34.8)  | 5<br>(10.9)  |
|   |           | 사실<br>혼      | 12<br>(100)  | 3.42            | 0<br>(0.0)   | 1<br>(8.3)    | 7<br>(58.3)   | 2<br>(16.7)   | 2<br>(16.7)  |

-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위한 문항 ‘울산(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은 3.33점, 여성은 3.14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41.5%(그렇다30.0%+매우 그렇다11.5%), ‘그렇지 않다’ 15.4%(그렇지 않다10.7%+전혀 그렇지 않다4.7%)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33.4%(그렇다28.7%+매우 그렇다4.7%), ‘그렇지 않다’ 19.8%(그렇지 않다15.5%+전혀 그렇지 않다4.3%)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기타 3.23점, 남구 3.20점, 울주군, 중구 3.19점, 북구 3.17점, 동구 3.16점으로 기타 3.23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동구 3.16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기타의 경우 ‘그렇다’ 32.6%(그렇다16.3%+매우 그렇다16.3%), ‘그렇지 않다’ 16.3%(그렇지 않다7%+전혀 그렇지 않다9.3%)의 비율로 나타남. 동구의 경우 ‘그렇다’ 34.4%(그렇다27.8%+매우 그렇다6.6%), ‘그렇지 않다’ 20%(그렇지 않다15.4%+전혀 그렇지 않다4.6%)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20대 3.38점, 30대 3.20점, 60대 이상 3.19점, 50대 3.12점, 40대 3.04점으로 20대 3.38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40대 3.04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20대의 경우 ‘그렇다’ 39.7%(그렇다30.2%+매우 그렇다9.5%), ‘그렇지 않다’ 8.6%(그렇지 않다6.0%+전혀 그렇지 않다2.6%)의 비율로 나타남. 40대의 경우 ‘그렇다’ 28%(그렇다26.5%+매우 그렇다1.5%), ‘그렇지 않다’ 20.6%(그렇지 않다16.2%+전혀 그렇지 않다4.4%)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42점, 사별 3.37점, 미혼 3.29점, 이혼/별거 3.23점, 기혼 3.13점으로 사실혼 3.4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혼 3.13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33.4%(그렇다16.7%+매우 그렇다16.7%), ‘그렇지 않다’ 8.3%의 비율로 나타남. 기혼의 경우 ‘그렇다’ 34.5%(그렇다29.6%+매우 그렇다4.9%), ‘그렇지 않다’ 21.4%(그렇지 않다16.2%+전혀 그렇지 않다5.2%)로 나타남.
- 울산(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에 대해 남성( 3.33점)이 여성(3.1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기타 지역(3.23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3.16점)에서 가장 낮았음. 연령에 따라서는 20대(3.38점)가 높고, 40대(3.04점)가 가장 낮으며, 결혼여부에 따라서 사실혼(3.42점)이 가장 높고 기혼(3.13점)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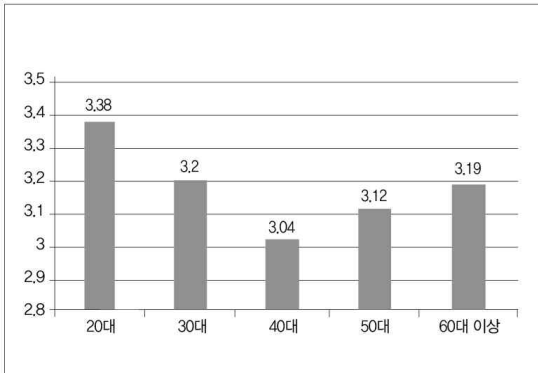
〈그림 II-6〉 성별에 따른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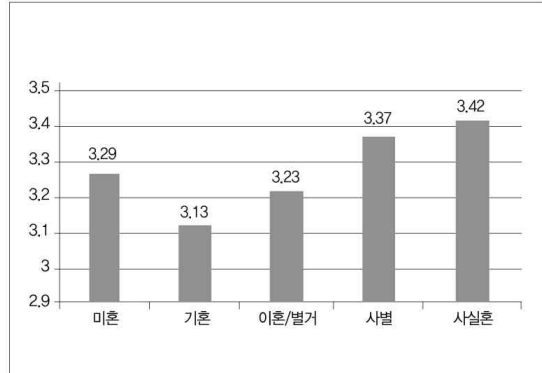
〈그림 II-7〉 지역에 따른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



〈그림 II-8〉 연령에 따른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



〈그림 II-9〉 결혼여부에 따른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



(3)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표Ⅱ-7〉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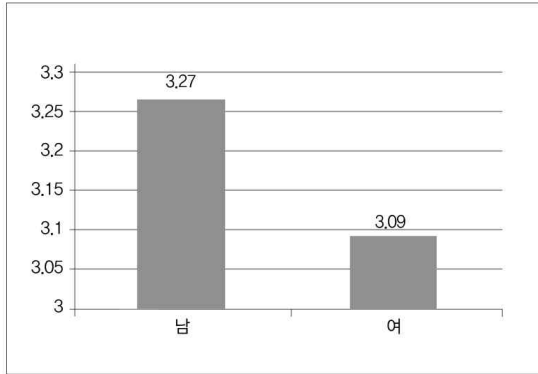
(단위 : 점, 명, %)

| 문항                               | 구분     |              | 평점           | 평가항목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울산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보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 성별     | 남            | 255<br>(100) | 3.27         | 11<br>(4.3)  | 36<br>(14.1)  | 107<br>(42.0) | 74<br>(29.0)  | 27<br>(10.6) |
|                                  |        | 여            | 675<br>(100) | 3.09         | 26<br>(3.9)  | 128<br>(19.0) | 315<br>(46.7) | 168<br>(24.9) | 38<br>(5.6)  |
|                                  | 지역별    | 중            | 389<br>(100) | 3.11         | 16<br>(4.1)  | 71<br>(18.3)  | 178<br>(45.8) | 101<br>(26.0) | 23<br>(5.9)  |
|                                  |        | 남            | 108<br>(100) | 3.10         | 3<br>(2.8)   | 21<br>(19.4)  | 51<br>(47.2)  | 28<br>(25.9)  | 5<br>(4.6)   |
|                                  |        | 동            | 259<br>(100) | 3.18         | 9<br>(3.5)   | 53<br>(20.5)  | 107<br>(41.3) | 61<br>(23.9)  | 28<br>(10.8) |
|                                  |        | 북            | 116<br>(100) | 3.14         | 2<br>(1.7)   | 17<br>(14.7)  | 62<br>(53.4)  | 33<br>(28.4)  | 2<br>(1.7)   |
|                                  |        | 울            | 32<br>(100)  | 3.34         | 2<br>(6.3)   | 4<br>(12.5)   | 12<br>(37.5)  | 9<br>(28.1)   | 5<br>(15.6)  |
|                                  |        | 기타           | 43<br>(100)  | 3.25         | 3<br>(6.8)   | 3<br>(6.8)    | 21<br>(47.7)  | 14<br>(31.8)  | 3<br>(6.8)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3.45         | 2<br>(1.7)    | 14<br>(12.1)  | 39<br>(33.6)  | 52<br>(44.8) |
|                                  | 30대    | 66<br>(100)  | 3.15         | 3<br>(4.5)   | 10<br>(15.2) | 33<br>(50.0)  | 14<br>(21.2)  | 6<br>(9.1)    |              |
|                                  | 40대    | 68<br>(100)  | 3.07         | 4<br>(5.9)   | 9<br>(13.2)  | 36<br>(52.9)  | 16<br>(23.5)  | 3<br>(4.4)    |              |
|                                  | 50대    | 272<br>(100) | 3.01         | 9<br>(3.3)   | 61<br>(22.4) | 134<br>(49.3) | 54<br>(19.9)  | 14<br>(5.1)   |              |
|                                  | 60대 이상 | 400<br>(100) | 3.15         | 17<br>(4.3)  | 71<br>(17.8) | 180<br>(45.0) | 99<br>(24.8)  | 33<br>(8.3)   |              |
|                                  | 결혼 여부  | 미혼           | 180<br>(100) | 3.33         | 6<br>(3.3)   | 24<br>(13.3)  | 67<br>(37.2)  | 70<br>(38.9)  | 13<br>(7.2)  |
|                                  |        | 기혼           | 639<br>(100) | 3.08         | 25<br>(3.9)  | 122<br>(19.1) | 303<br>(47.4) | 153<br>(23.9) | 36<br>(5.6)  |
|                                  |        | 이혼/별거        | 13<br>(100)  | 3.00         | 1<br>(7.7)   | 3<br>(23.1)   | 5<br>(38.5)   | 3<br>(23.1)   | 1<br>(7.7)   |
|                                  |        | 사별           | 45<br>(100)  | 3.31         | 1<br>(2.2)   | 7<br>(15.6)   | 23<br>(51.1)  | 5<br>(11.1)   | 9<br>(20.0)  |
|                                  |        | 사실혼          | 12<br>(100)  | 3.17         | 0<br>(0.0)   | 1<br>(8.3)    | 9<br>(75.0)   | 1<br>(8.3)    | 1<br>(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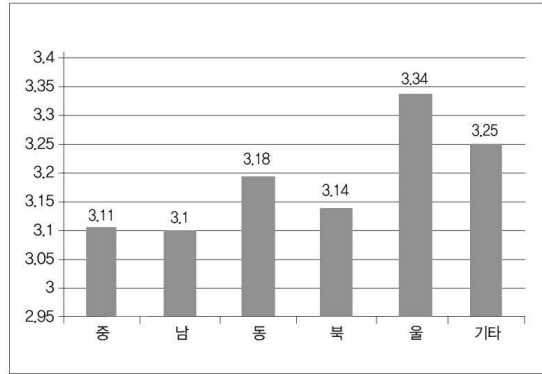


-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를 위한 문항 ‘울산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보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은 3.27점, 여성은 3.09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9.6%(그렇다29%+매우 그렇다10.6%), ‘그렇지 않다’ 18.4%(그렇지 않다14.1%+전혀 그렇지 않다4.3%)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30.5%(그렇다24.9%+매우 그렇다5.6%), ‘그렇지 않다’ 22.9%(그렇지 않다19%+전혀 그렇지 않다3.9%)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울주군 3.34점, 기타3.25점, 동구 3.18점, 북구 3.14점, 중구 3.11점, 남구 3.10점으로 울주군 3.34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남구 3.10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울주군의 경우 ‘그렇다’ 43.7%(그렇다28.1%+매우 그렇다15.6%), ‘그렇지 않다’ 18.8%(그렇지 않다12.5%+전혀 그렇지 않다6.3%)의 비율로 나타남. 남구의 경우 ‘그렇다’ 30.5%(그렇다25.9%+매우 그렇다4.6%), ‘그렇지 않다’ 22.%(그렇지 않다19.4%+전혀 그렇지 않다2.8%)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20대 3.45점, 60대 이상 3.15점, 30대 3.15점, 40대 3.07점, 50대 3.01점으로 20대 3.4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50대 3.01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20대의 경우 ‘그렇다’ 52.6%(그렇다44.8%+매우 그렇다7.8%), ‘그렇지 않다’ 13.8%(그렇지 않다12.1%+전혀 그렇지 않다1.7%)의 비율로 나타남. 50대의 경우 ‘그렇다’ 25%(그렇다19.9%+매우 그렇다5.1%), ‘그렇지 않다’ 25.7%(그렇지 않다22.4%+전혀 그렇지 않다3.3%)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미혼 3.33점, 사별 3.31점, 사실혼 3.17점, 기혼 3.08점, 이혼/별거 3.00점으로 미혼 3.33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이혼 3.00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미혼의 경우 ‘그렇다’ 46.1%(그렇다38.9%+매우 그렇다7.2%), ‘그렇지 않다’ 16.6%(그렇지 않다13.3%+전혀 그렇지 않다3.3%)의 비율로 나타남. 이혼의 경우 ‘그렇다’ 30.8%(그렇다23.1%+매우 그렇다7.7%), ‘그렇지 않다’ 30.8%(그렇지 않다23.1%+전혀 그렇지 않다7.7%)로 나타남.
- ‘울산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보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에 대해 남성(3.27점)이 여성(3.0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 울주군(3.34점)이 가장 높고 남구(3.10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에 따라 20대(3.45점)가 가장 높고 50대(3.01점)가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미혼(3.33점)이 가장 높고 이혼(3.00점)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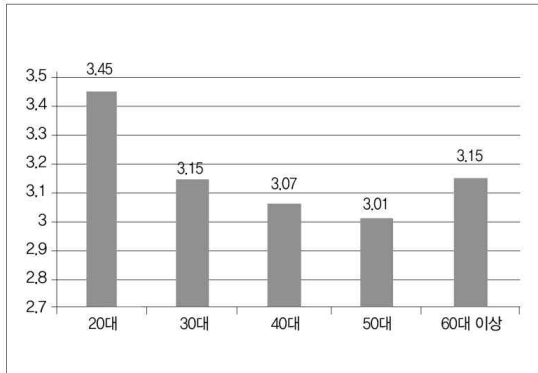
〈그림 II-10〉 성별에 따른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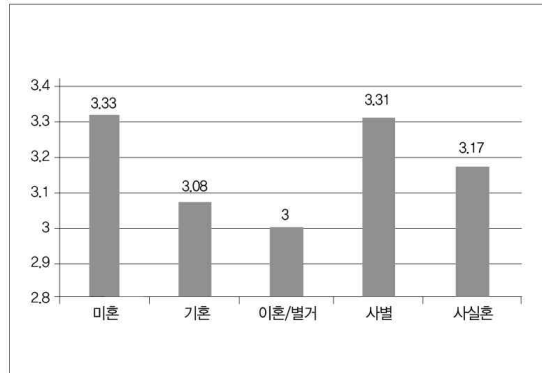
〈그림 II-11〉 지역에 따른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그림 II-12〉 연령에 따른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그림 II-13〉 결혼여부에 따른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



(4)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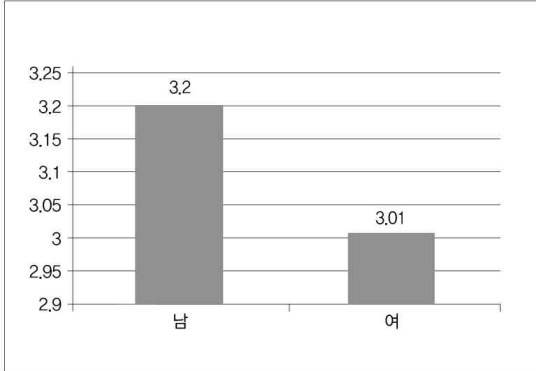
〈표 II-8〉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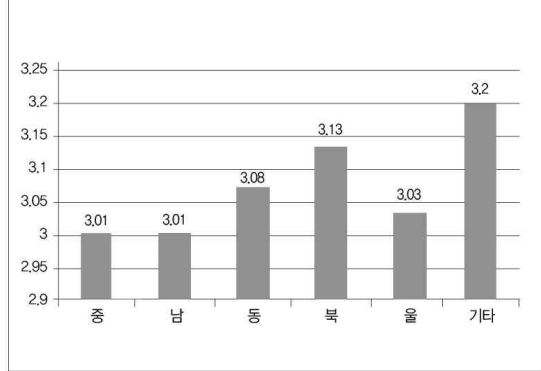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평가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울산은 일과 생활(가정, 여가 등)을 균형 있게 병행할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 | 성별     | 남            | 255<br>(100) | 3.20         | 17<br>(6.7)  | 32<br>(12.5)  | 110<br>(43.1) | 76<br>(29.8)  | 20<br>(7.8)  |
|  |        | 여            | 672<br>(100) | 3.01         | 28<br>(4.2)  | 153<br>(22.8) | 307<br>(45.7) | 153<br>(22.8) | 31<br>(4.6)  |
|  | 지역별    | 중            | 390<br>(100) | 3.01         | 22<br>(5.6)  | 78<br>(20.0)  | 181<br>(46.4) | 92<br>(23.6)  | 17<br>(4.4)  |
|  |        | 남            | 107<br>(100) | 3.01         | 4<br>(3.7)   | 22<br>(20.6)  | 54<br>(50.5)  | 23<br>(21.5)  | 4<br>(3.7)   |
|  |        | 동            | 257<br>(100) | 3.08         | 11<br>(4.3)  | 62<br>(24.1)  | 101<br>(39.3) | 61<br>(23.7)  | 22<br>(8.6)  |
|  |        | 북            | 116<br>(100) | 3.13         | 3<br>(2.6)   | 22<br>(19.0)  | 54<br>(46.6)  | 31<br>(26.7)  | 6<br>(5.2)   |
|  |        | 울            | 32<br>(100)  | 3.03         | 2<br>(6.3)   | 5<br>(15.6)   | 15<br>(46.9)  | 10<br>(31.3)  | 0<br>(0.0)   |
|  |        | 기타           | 44<br>(100)  | 3.20         | 4<br>(9.1)   | 3<br>(6.8)    | 20<br>(45.5)  | 14<br>(31.8)  | 3<br>(6.8)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3.37         | 4<br>(3.4)    | 9<br>(7.8)    | 54<br>(46.6)  | 38<br>(32.8) |
|  | 30대    | 66<br>(100)  | 2.98         | 5<br>(7.6)   | 13<br>(19.7) | 30<br>(45.5)  | 14<br>(21.2)  | 4<br>(6.1)    |              |
|  | 40대    | 67<br>(100)  | 3.06         | 2<br>(3.0)   | 13<br>(19.4) | 33<br>(49.3)  | 17<br>(25.4)  | 2<br>(3.0)    |              |
|  | 50대    | 273<br>(100) | 3.01         | 9<br>(3.3)   | 63<br>(23.1) | 130<br>(47.6) | 59<br>(21.6)  | 12<br>(4.4)   |              |
|  | 60대 이상 | 398<br>(100) | 3.01         | 23<br>(5.8)  | 90<br>(22.6) | 166<br>(41.7) | 98<br>(24.6)  | 21<br>(5.3)   |              |
|  | 결혼 여부  | 미혼           | 180<br>(100) | 3.24         | 7<br>(3.9)   | 20<br>(11.1)  | 87<br>(48.3)  | 54<br>(30.0)  | 12<br>(6.7)  |
|  |        | 기혼           | 636<br>(100) | 2.99         | 31<br>(4.9)  | 146<br>(23.0) | 284<br>(44.7) | 151<br>(23.7) | 24<br>(3.8)  |
|  |        | 이혼/별거        | 13<br>(100)  | 3.00         | 0<br>(0.0)   | 4<br>(30.8)   | 6<br>(46.2)   | 2<br>(15.4)   | 1<br>(7.7)   |
|  |        | 사별           | 46<br>(100)  | 3.13         | 3<br>(6.5)   | 9<br>(19.6)   | 18<br>(39.1)  | 11<br>(23.9)  | 5<br>(10.9)  |
|  |        | 사실혼          | 12<br>(100)  | 3.25         | 0<br>(0.0)   | 3<br>(25.0)   | 4<br>(33.3)   | 4<br>(33.3)   | 1<br>(8.3)   |

-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를 위한 문항 ‘울산은 일과 생활(가정, 여가 등)을 균형 있게 병행할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이 3.20점, 여성이 3.01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7.6%(그렇다29.8%+매우 그렇다7.8%), ‘그렇지 않다’ 19.2%(그렇지 않다12.5%+전혀 그렇지 않다6.7%)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27.4%(그렇다22.8%+매우 그렇다4.6%), ‘그렇지 않다’ 27%(그렇지 않다22.8%+전혀 그렇지 않다4.2%)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기타 3.20점, 북구 3.13점, 동구 3.08점, 울주군 3.03점, 중구, 남구 3.01점으로 기타 3.20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중구, 남구 3.01점으로 가장 평균이 낮음. 기타의 경우 ‘그렇다’ 38.6%(그렇다31.8%+매우 그렇다6.8%), ‘그렇지 않다’ 15.9%(그렇지 않다6.8%+전혀 그렇지 않다9.1%)의 비율로 나타남. 중구의 경우 ‘그렇다’ 28%(그렇다23.6%+매우 그렇다4.4%), ‘그렇지 않다’ 25.6%(그렇지 않다20%+전혀 그렇지 않다5.6%)로 나타남. 남구의 경우 ‘그렇다’ 25.2%(그렇다21.5%+매우 그렇다3.7%), ‘그렇지 않다’ 24.3%(그렇지 않다20.6%+전혀 그렇지 않다3.7%)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20대 3.37점, 40대 3.06점, 50대 3.01점, 60대 이상 3.01점, 30대 2.98점으로 20대 3.37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30대 2.98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20대의 경우 ‘그렇다’ 42.3%(그렇다32.8%+매우 그렇다9.5%), ‘그렇지 않다’ 11.2%(그렇지 않다7.8%+전혀 그렇지 않다3.4%)의 비율로 나타남. 30대의 경우 ‘그렇다’ 27.3%(그렇다21.2%+매우 그렇다6.1%), ‘그렇지 않다’ 27.3%(그렇지 않다19.7%+전혀 그렇지 않다7.6%)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25점, 미혼 3.24점, 사별 3.13점, 이혼 3.00점, 기혼 2.99점으로 사실혼 3.2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혼 2.99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41.6%(그렇다33.3%+매우 그렇다8.3%), ‘그렇지 않다’ 25%의 비율로 나타남. 기혼의 경우 ‘그렇다’ 27.5%(그렇다23.7%+매우 그렇다3.8%), ‘그렇지 않다’ 27.9%(그렇지 않다23%+전혀 그렇지 않다4.9%)로 나타남.
- ‘울산은 일과 생활(가정, 여가 등)을 균형 있게 병행할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에 대해 남성( 3.20점)이 여성(3.0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기타 지역(3.20점)이 가장 높고 중구와 남구가 각 3.01점으로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 20대(3.37점)가 가장 높고 30대(2.98점)가 가장 낮음.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혼(3.25점)이 가장 높고 기혼(2.99점)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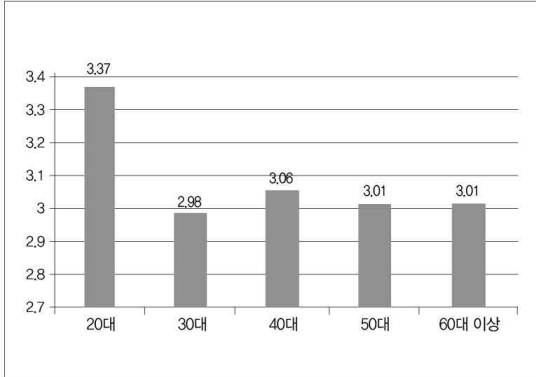
〈그림 II-14〉 성별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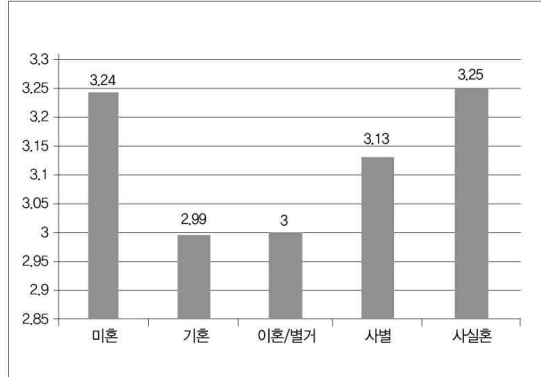
〈그림 II-15〉 지역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그림 II-16〉 연령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그림 II-17〉 결혼여부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평가



(5)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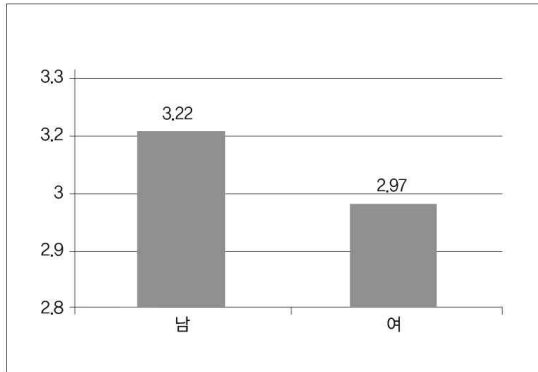
〈표 II-9〉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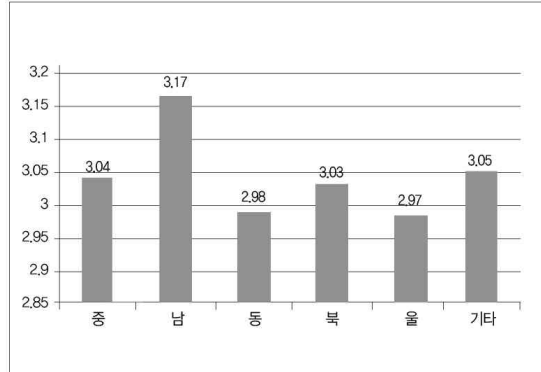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평가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울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 | 성별     | 남            | 255<br>(100) | 3.22         | 12<br>(4.7)   | 45<br>(17.6)  | 101<br>(39.6) | 68<br>(26.7)  | 29<br>(11.4) |
|                                 |        | 여            | 677<br>(100) | 2.97         | 36<br>(5.3)   | 167<br>(24.7) | 286<br>(42.2) | 157<br>(23.2) | 31<br>(4.6)  |
|                                 | 지역별    | 중            | 392<br>(100) | 3.04         | 21<br>(5.4)   | 81<br>(20.8)  | 175<br>(44.9) | 87<br>(22.3)  | 26<br>(6.7)  |
|                                 |        | 남            | 108<br>(100) | 3.17         | 3<br>(2.8)    | 23<br>(21.3)  | 44<br>(40.7)  | 29<br>(26.9)  | 9<br>(8.3)   |
|                                 |        | 동            | 258<br>(100) | 2.98         | 19<br>(7.2)   | 68<br>(26.4)  | 88<br>(34.1)  | 65<br>(25.2)  | 18<br>(7.0)  |
|                                 |        | 북            | 116<br>(100) | 3.03         | 3<br>(2.6)    | 27<br>(23.3)  | 53<br>(45.7)  | 29<br>(25.0)  | 4<br>(3.4)   |
|                                 |        | 읍            | 32<br>(100)  | 2.97         | 3<br>(9.4)    | 5<br>(15.6)   | 15<br>(46.9)  | 8<br>(25.0)   | 1<br>(3.1)   |
|                                 |        | 기타           | 44<br>(100)  | 3.05         | 3<br>(6.8)    | 8<br>(18.2)   | 19<br>(43.2)  | 12<br>(27.3)  | 2<br>(4.5)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3.22          | 8<br>(6.9)    | 11<br>(9.5)   | 55<br>(47.4)  | 32<br>(27.6) |
|                                 | 30대    | 66<br>(100)  | 2.89         | 6<br>(9.1)   | 18<br>(27.3)  | 23<br>(34.8)  | 15<br>(22.7)  | 4<br>(6.1)    |              |
|                                 | 40대    | 68<br>(100)  | 2.85         | 6<br>(8.8)   | 15<br>(22.1)  | 34<br>(50.0)  | 9<br>(13.2)   | 4<br>(5.9)    |              |
|                                 | 50대    | 272<br>(100) | 3.00         | 12<br>(4.4)  | 54<br>(19.9)  | 139<br>(51.1) | 56<br>(20.6)  | 11<br>(4.0)   |              |
|                                 | 60대 이상 | 399<br>(100) | 3.05         | 19<br>(4.8)  | 108<br>(27.1) | 136<br>(34.1) | 106<br>(26.6) | 30<br>(7.5)   |              |
|                                 | 결혼 여부  | 미혼           | 179<br>(100) | 3.07         | 13<br>(7.3)   | 29<br>(16.2)  | 81<br>(45.3)  | 44<br>(24.6)  | 12<br>(6.7)  |
|                                 |        | 기혼           | 641<br>(100) | 3.01         | 29<br>(4.5)   | 161<br>(25.1) | 258<br>(40.2) | 161<br>(25.1) | 32<br>(5.0)  |
|                                 |        | 이혼/별거        | 13<br>(100)  | 3.00         | 1<br>(7.7)    | 3<br>(23.1)   | 5<br>(38.5)   | 3<br>(23.1)   | 1<br>(7.7)   |
|                                 |        | 사별           | 46<br>(100)  | 3.15         | 3<br>(6.5)    | 10<br>(21.7)  | 18<br>(39.1)  | 7<br>(15.2)   | 8<br>(17.4)  |
|                                 |        | 사실혼          | 12<br>(100)  | 3.42         | 0<br>(0.0)    | 0<br>(0.0)    | 8<br>(66.7)   | 3<br>(25.0)   | 1<br>(8.3)   |

- 일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평가를 위한 문항 ‘울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의 경우 3.22점, 여성의 경우 2.97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8.1%(그렇다26.7%+매우 그렇다 11.4%), ‘그렇지 않다’ 22.3%(그렇지 않다17.6%+전혀 그렇지 않다4.7%)의 비율로 나타났다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27.8%(그렇다23.2%+매우 그렇다4.6%), ‘그렇지 않다’ 30%(그렇지 않다24.7%+5.3%)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구 3.17점, 기타 3.05점, 중구 3.04점, 북구 3.03점, 동구 2.98점, 울주군 2.97점으로 남구 3.17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울주군 2.97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남구의 경우 ‘그렇다’ 35.2%(그렇다26.9%+매우 그렇다 8.3%), ‘그렇지 않다’ 24.1%(그렇지 않다21.3%+전혀 그렇지 않다2.8%)의 비율로 나타남. 울주군의 경우 ‘그렇다’ 28.1%(그렇다25%+매우 그렇다3.1%),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15.6%+전혀 그렇지 않다9.4%)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20대 3.22점, 60대 이상 3.05점, 50대 3.00점, 30대 2.89점, 40대 2.85점으로 20대 3.2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40대 2.82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20대의 경우 ‘그렇다’ 36.2%(그렇다27.6%+매우 그렇다8.6%), ‘그렇지 않다’ 16.4%(그렇지 않다9.5%+전혀 그렇지 않다6.9%)의 비율로 나타남. 40대의 경우 ‘그렇다’ 19.1%(그렇다13.2%+매우 그렇다5.9%), ‘그렇지 않다’ 30.9%(그렇지 않다 22.1%+전혀 그렇지 않다8.8%)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42점, 사별 3.15점, 미혼 3.07점, 기혼 3.01점, 이혼 3.00점으로 사실혼 3.4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이혼 3.00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33.3%(그렇다25.0%+매우 그렇다8.3%), ‘그렇지 않다’ 0%의 비율로 나타남. 이혼의 경우 ‘그렇다’ 30.8%(그렇다23.1%+매우 그렇다 7.7%), ‘그렇지 않다’ 30.8%(그렇지 않다 23.1%+전혀 그렇지 않다7.7%)로 나타남.
- ‘울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에 대해 남성(3.22점)이 여성(2.97점)보다 높게 나타남. 거주 지역에 따라 남구(3.17점)가 가장 높고 울주군(2.97점)이 가장 낮았음. 연령에 따라 20대(3.22점)가 가장 높고 40대(2.82점)가 가장 평균이 낮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혼(3.4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혼(3.00점)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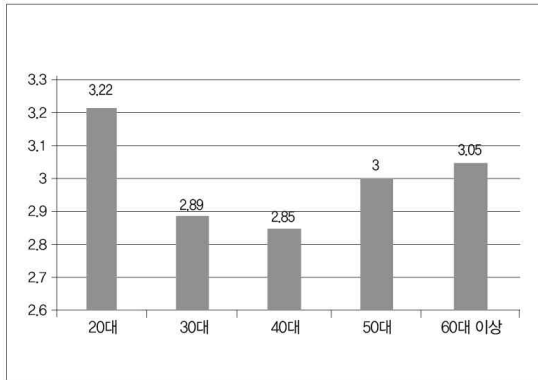
〈그림 II-18〉 성별에 따른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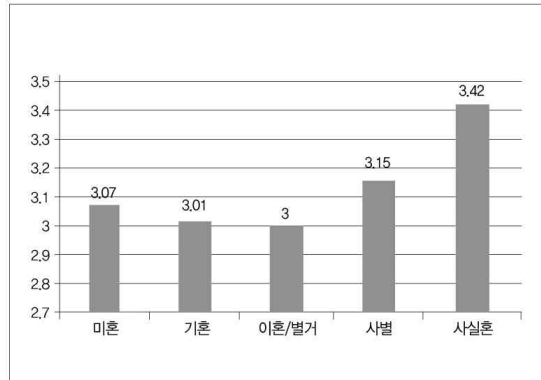
〈그림 II-19〉 지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그림 II-20〉 연령에 따른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그림 II-21〉 결혼여부에 따른 일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평가





(6)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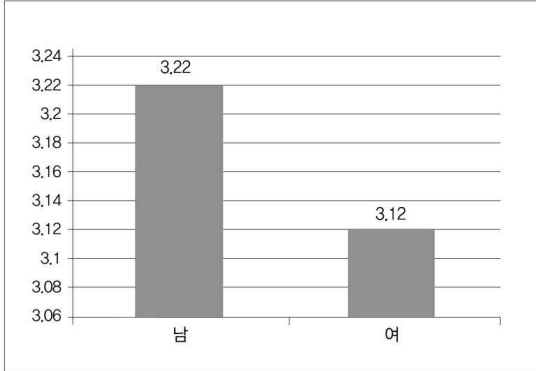
〈표 II-10〉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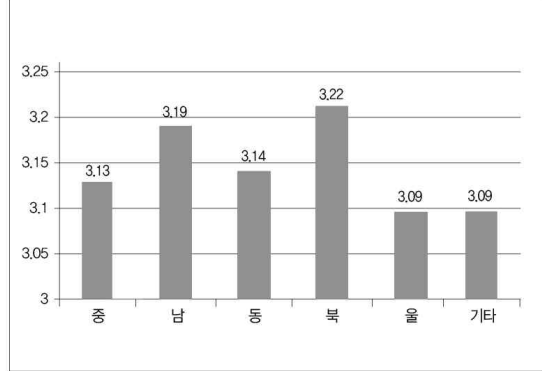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평가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울산은 여성과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 | 성별     | 남            | 255<br>(100) | 3.22         | 14<br>(5.5)   | 30<br>(11.8)  | 115<br>(45.1) | 78<br>(30.6)  | 18<br>(7.1)  |
|   |        | 여            | 679<br>(100) | 3.12         | 19<br>(2.8)   | 112<br>(16.5) | 344<br>(50.7) | 177<br>(26.1) | 27<br>(4.0)  |
|   | 지역별    | 중            | 392<br>(100) | 3.13         | 10<br>(2.6)   | 68<br>(17.3)  | 198<br>(50.5) | 92<br>(23.5)  | 24<br>(6.1)  |
|   |        | 남            | 108<br>(100) | 3.19         | 3<br>(2.8)    | 15<br>(13.9)  | 53<br>(49.1)  | 33<br>(30.6)  | 4<br>(3.7)   |
|   |        | 동            | 260<br>(100) | 3.14         | 11<br>(4.2)   | 40<br>(15.4)  | 124<br>(47.7) | 71<br>(27.3)  | 14<br>(5.4)  |
|   |        | 북            | 116<br>(100) | 3.22         | 1<br>(0.9)    | 15<br>(12.9)  | 59<br>(50.9)  | 39<br>(33.6)  | 2<br>(1.7)   |
|   |        | 울            | 32<br>(100)  | 3.09         | 2<br>(9.4)    | 5<br>(15.6)   | 14<br>(43.8)  | 10<br>(31.3)  | 1<br>(3.1)   |
|   |        | 기타           | 44<br>(100)  | 3.09         | 4<br>(9.1)    | 4<br>(9.1)    | 21<br>(47.7)  | 14<br>(31.8)  | 1<br>(2.3)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3.22          | 8<br>(6.9)    | 11<br>(9.5)   | 55<br>(47.4)  | 32<br>(27.6) |
|   | 30대    | 66<br>(100)  | 2.89         | 6<br>(9.1)   | 18<br>(27.3)  | 23<br>(34.8)  | 15<br>(22.7)  | 4<br>(6.1)    |              |
|   | 40대    | 68<br>(100)  | 2.85         | 6<br>(8.8)   | 15<br>(22.1)  | 34<br>(50.0)  | 9<br>(13.2)   | 4<br>(5.9)    |              |
|   | 50대    | 272<br>(100) | 3.00         | 12<br>(4.4)  | 54<br>(19.9)  | 139<br>(51.1) | 56<br>(20.6)  | 11<br>(4.0)   |              |
|   | 60대 이상 | 399<br>(100) | 3.05         | 19<br>(4.8)  | 108<br>(27.1) | 136<br>(34.1) | 106<br>(26.6) | 30<br>(7.5)   |              |
|   | 결혼 여부  | 미혼           | 180<br>(100) | 3.21         | 8<br>(4.4)    | 22<br>(12.2)  | 85<br>(47.2)  | 55<br>(30.6)  | 10<br>(5.6)  |
|   |        | 기혼           | 642<br>(100) | 3.14         | 19<br>(3.0)   | 99<br>(15.4)  | 321<br>(50.0) | 182<br>(28.3) | 21<br>(3.3)  |
|   |        | 이혼/별거        | 13<br>(100)  | 2.85         | 0<br>(0.0)    | 4<br>(30.8)   | 8<br>(61.5)   | 0<br>(0.0)    | 1<br>(7.7)   |
|   |        | 사별           | 46<br>(100)  | 3.09         | 2<br>(4.3)    | 10<br>(21.7)  | 22<br>(47.8)  | 6<br>(13.0)   | 6<br>(13.0)  |
|   |        | 사실혼          | 12<br>(100)  | 3.33         | 1<br>(8.3)    | 0<br>(0.0)    | 6<br>(50.0)   | 4<br>(33.3)   | 1<br>(8.3)   |

-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를 위한 문항 ‘울산은 여성과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의 경우 3.22점, 여성의 경우 3.12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7.7%(그렇다30.6%+매우 그렇다7.1%), ‘그렇지 않다’ 17.3%(그렇지 않다11.8%+전혀 그렇지 않다5.5%)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30.1%(그렇다26.1%+매우 그렇다4.0%), ‘그렇지 않다’ 19.3%(그렇지 않다16.5%+전혀 그렇지 않다2.8%)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북구 3.22점, 남구 3.19점, 동구 3.14점, 중구 3.13점, 울주군, 기타 3.09점으로 북구 3.2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울주군, 기타 3.09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북구의 경우 ‘그렇다’ 35.3%(그렇다33.6%+매우 그렇다1.7%), ‘그렇지 않다’ 13.8%(그렇지 않다12.9%+전혀 그렇지 않다0.9%)의 비율로 나타남. 울주군의 경우 ‘그렇다’ 34.4%(그렇다31.3%+매우 그렇다3.1%),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15.6%+전혀 그렇지 않다9.4%)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그렇다’ 34.1%(그렇다31.8%+매우 그렇다2.3%), ‘그렇지 않다’ 18.2%(그렇지 않다9.1%+전혀 그렇지 않다9.1%)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20대 3.22점, 40대 2.85점, 50대 3점, 60대 이상 3.05점, 30대 2.89점으로 20대 3.2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40대 2.8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20대의 경우 ‘그렇다’ 36.2%(그렇다27.6%+매우 그렇다8.6%), ‘그렇지 않다’ 16.4%(그렇지 않다9.5%+전혀 그렇지 않다6.9%)의 비율로 나타남. 40대의 경우 ‘그렇다’ 19.1%(그렇다13.2%+매우 그렇다5.9%), ‘그렇지 않다’ 30.9%(그렇지 않다22.1%+전혀 그렇지 않다8.8%)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33점, 미혼 3.21점, 기혼 3.14점, 사별 3.09점, 이혼 2.85점으로 사실혼 3.33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이혼 2.8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41.6%(그렇다33.3%+매우 그렇다8.3%), ‘그렇지 않다’ 8.3%의 비율로 나타남. 이혼의 경우 ‘그렇다’ 7.7%, ‘그렇지 않다’ 30.8%로 나타남.
- ‘울산은 여성과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에 대해 남성(3.22점)이 여성(3.12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북구(3.22점)이 가장 높고 울주군과 기타지역이 각 3.09점으로 낮게 나타남. 연령에 따라 20대(3.22점)가 가장 높고 40대(2.85점)가 가장 낮음. 결혼 여부에 따라 사실혼(3.33점)이 가장 높고 이혼(2.85점)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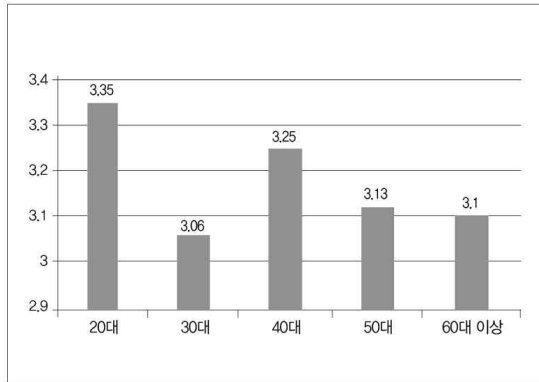
〈그림 II-22〉 성별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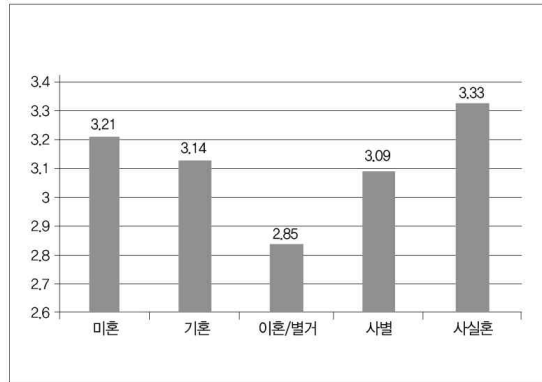
〈그림 II-23〉 지역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그림 II-24〉 연령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그림 II-25〉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안전에 관한 평가



### 3) 성역할 및 성별위계에 대한 태도

- 여성가족부(2017)에서는 ‘성 역할 및 성별위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양성평등 정책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준거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성 역할 및 성별위계’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별 관계 구성과 관련된 의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신념이나 가치관으로서 행동이나 관계구성에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규정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과 위계는 과거 전통적으로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남성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그 밖의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라 성역할 및 위계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성별위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성평등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수립하고자 함.
- 이에 ‘성역할 및 성별위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2017)에서 사용한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책임 있는 역할(업무, 데이트, 남성성)’과 ‘일과 돌봄에서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1)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성별 위계

〈표Ⅱ-11〉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성별위계

(단위 : 점, 명, %)

| 문항            |                              | 계<br>(전체) | 평점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업무의 주도성       |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 973       | 2.59 | 143             | 381             | 245      | 172        | 31        |
|               |                              | 100       |      | 14.7            | 39.2            | 25.3     | 17.7       | 3.2       |
| 강한 남성성        |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 959       | 2.87 | 145             | 313             | 189      | 265        | 47        |
|               |                              | 100       |      | 15.1            | 32.6            | 19.7     | 27.6       | 4.9       |
|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 973       | 2.54 | 155             | 398             | 233      | 152        | 35        |
|               |                              | 100       |      | 15.9            | 40.9            | 23.9     | 15.6       | 3.6       |

- 먼저,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성별 위계'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은 총 3문항으로 '업무의 주도성'을 나타내는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와 '강한 남성성'을 나타내는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을 나타낸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한다.'로 구성함.
- 살펴본 결과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성별위계'를 구성하고 있는 3문항의 평균은 2.66점으로 책임 있는 역할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 남성역할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즉,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거나, 여성보다 높은 직위에서 일해야 한다거나 이성 관계에서 꼭 주도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업무의 주도성'을 나타내는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2.59점으로, '그렇다' 20.9%(대체로 그렇다17.7%+매우 그렇다3.2%), '그렇지 않다' 53.9%(별로 그렇지 않다39.2%+전혀 그렇지 않다14.7%)로 '그렇지 않다'가 33%p 높게 나타나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강한 남성성'을 나타내는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2.87점으로, '그렇다' 32.5%(대체로 그렇다27.6%+매우 그렇다4.9%), '그렇지 않다' 47.7%(별로 그렇지 않다32.6%+전혀 그렇지 않다15.1%)의 비율로 나타남. '그렇지 않다'가 15.2%p 높게 나타나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을 나타내는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는 2.54점으로, '그렇다' 19.2%(대체로 그렇다15.6%+매우 그렇다3.6%), '그렇지 않다' 56.8%(별로 그렇지 않다40.9%+전혀 그렇지 않다15.9%)의 비율로 나타남. '그렇지 않다'가 37.6%p 높게 나타나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① 업무의 주도성

〈표 II-12〉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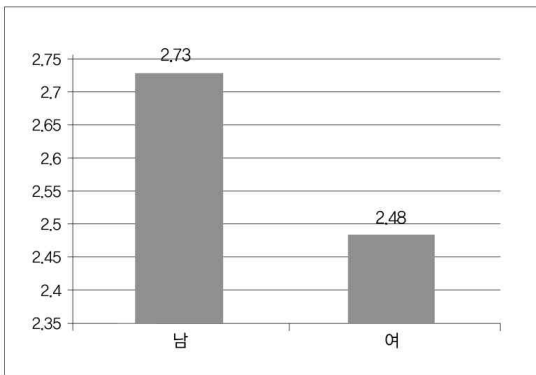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 성별  | 지역별 |              |           |               |               |               |               |             |
|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 성별  | 남   | 253<br>(100) | 2.73      | 26<br>(10.2)  | 98<br>(38.3)  | 66<br>(25.8)  | 51<br>(19.9)  | 15<br>(5.9) |
|                        |     | 여   | 674<br>(100) | 2.48      | 112<br>(16.6) | 265<br>(39.3) | 172<br>(25.5) | 111<br>(16.5) | 14<br>(2.1) |
|                        | 지역별 | 중   | 391<br>(100) | 2.70      | 53<br>(13.6)  | 131<br>(33.5) | 102<br>(26.1) | 89<br>(22.8)  | 16<br>(4.1) |
|                        |     | 남   | 108<br>(100) | 2.23      | 28<br>(25.9)  | 41<br>(38.0)  | 28<br>(25.9)  | 8<br>(7.4)    | 3<br>(2.8)  |

|  |       |        |              |      |              |               |               |               |             |
|--|-------|--------|--------------|------|--------------|---------------|---------------|---------------|-------------|
|  |       | 남      | 258<br>(100) | 2.65 | 29<br>(11.2) | 106<br>(41.1) | 58<br>(22.5)  | 56<br>(21.7)  | 9<br>(3.5)  |
|  |       | 북      | 115<br>(100) | 2.49 | 8<br>(7.0)   | 58<br>(50.4)  | 36<br>(31.3)  | 11<br>(9.6)   | 2<br>(1.7)  |
|  |       | 울      | 32<br>(100)  | 2.19 | 6<br>(18.8)  | 17<br>(53.1)  | 7<br>(21.9)   | 1<br>(3.1)    | 1<br>(3.1)  |
|  |       | 기타     | 44<br>(100)  | 2.00 | 14<br>(31.8) | 19<br>(43.2)  | 8<br>(18.2)   | 3<br>(6.8)    | 0<br>(0.0)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1.93 | 45<br>(38.8) | 48<br>(41.4)  | 13<br>(11.2)  | 6<br>(5.2)    | 4<br>(3.4)  |
|  |       | 30대    | 66<br>(100)  | 2.45 | 12<br>(18.2) | 26<br>(39.4)  | 19<br>(28.8)  | 4<br>(6.1)    | 5<br>(7.6)  |
|  |       | 40대    | 68<br>(100)  | 2.38 | 12<br>(17.6) | 27<br>(39.7)  | 22<br>(32.4)  | 5<br>(7.4)    | 2<br>(2.9)  |
|  |       | 50대    | 272<br>(100) | 2.69 | 22<br>(8.1)  | 106<br>(39.0) | 84<br>(30.9)  | 54<br>(19.9)  | 6<br>(2.2)  |
|  |       | 60대 이상 | 400<br>(100) | 2.71 | 39<br>(9.8)  | 157<br>(39.3) | 97<br>(24.3)  | 95<br>(23.8)  | 12<br>(3.0) |
|  | 결혼 여부 | 미혼     | 179<br>(100) | 2.05 | 64<br>(35.8) | 67<br>(37.4)  | 29<br>(16.2)  | 13<br>(7.3)   | 6<br>(3.4)  |
|  |       | 기혼     | 640<br>(100) | 2.67 | 59<br>(9.2)  | 260<br>(40.6) | 174<br>(27.2) | 130<br>(20.3) | 17<br>(2.7) |
|  |       | 이혼/별거  | 13<br>(100)  | 2.31 | 1<br>(7.7)   | 7<br>(53.8)   | 5<br>(38.5)   | 0<br>(0.0)    | 0<br>(0.0)  |
|  |       | 사별     | 45<br>(100)  | 2.84 | 8<br>(17.8)  | 9<br>(20.0)   | 12<br>(26.7)  | 14<br>(31.1)  | 2<br>(4.4)  |
|  |       | 사실혼    | 11<br>(100)  | 3.00 | 0<br>(0.0)   | 6<br>(54.5)   | 1<br>(9.1)    | 2<br>(18.2)   | 2<br>(1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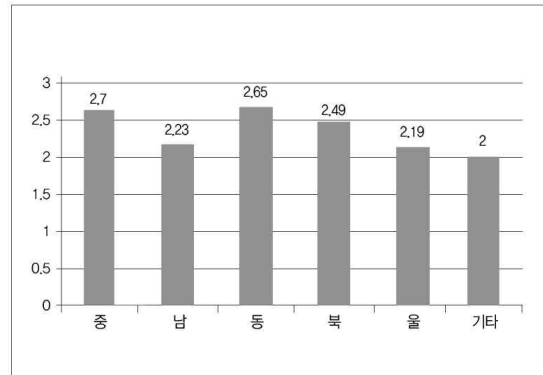
- ‘업무의 주도성’을 나타내는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2.73점, 여성 2.48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25.8%(그렇다19.9%+매우 그렇다5.9%), ‘그렇지 않다’ 48.5%(그렇지 않다38.3%+전혀 그렇지 않다10.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18.6%(그렇다16.5%+매우 그렇다2.1%), ‘그렇지 않다’ 55.9%(그렇지 않다39.3%+전혀 그렇지 않다16.6%)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중구 2.70점, 동구 2.65점, 북구 2.49점, 남구 2.23점, 울주군 2.19점, 기타 2.00점으로 중구 2.70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2.00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중구의 경우 ‘그렇다’ 26.9%(그렇다22.8%+매우 그렇다4.1%), ‘그렇지 않다’ 47.1%(그렇지 않다33.5%+전혀 그렇지 않다13.6%)의 비율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그렇다’ 6.8%(그렇다6.8%+매우 그렇다0%), ‘그렇지 않다’ 75%(그렇지 않다43.2%+전혀 그렇지 않다31.8%)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60대 이상 2.71점, 50대 2.69점, 30대 2.45점, 40대 2.38점, 20대 1.93점으로 60대 이상 2.71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1.93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60대 이상의 경우 ‘그렇다’ 26.8%(그렇다23.8%+매우 그렇다3%), ‘그렇지 않다’ 49.1%(그렇지 않다39.3%+전혀 그렇지 않다9.8%)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8.6%(그렇다5.2%+매우 그렇다3.4%), ‘그렇지 않다’ 80.2%(그렇지 않다41.4%+전혀 그렇지 않다38.8%)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00점, 사별 2.84점, 기혼 2.67점, 이혼/별거 2.31점, 미혼 2.05점으로 사실혼 3.00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2.0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36.4%(그렇다18.2%+매우 그렇다18.2%), ‘그렇지 않다’ 54.5%의 비율로 나타남. 미혼의 경우 ‘그렇다’ 10.7%(그렇다7.3%+매우 그렇다3.4%), ‘그렇지 않다’ 73.2%(그렇지 않다37.4%+전혀 그렇지 않다35.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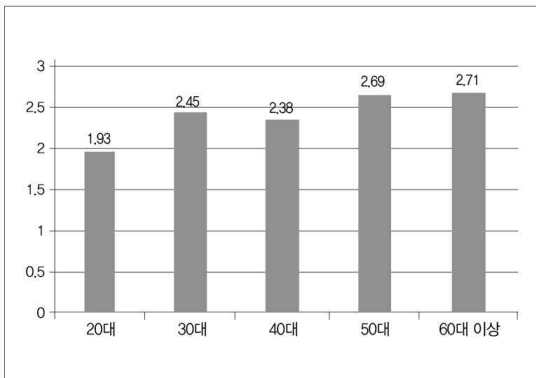
〈그림 II-26〉 성별에 따른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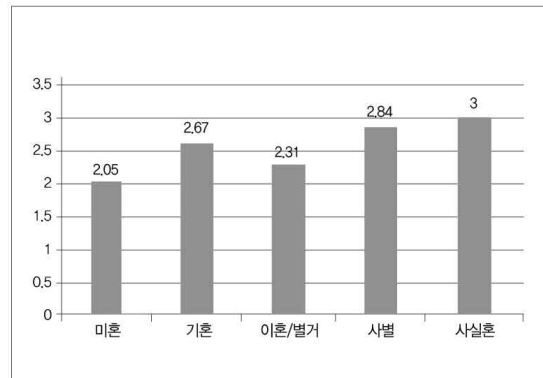
〈그림 II-27〉 지역에 따른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그림 II-28〉 연령에 따른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그림 II-29〉 결혼여부에 따른 업무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② 강한 남성성

〈표 II-13〉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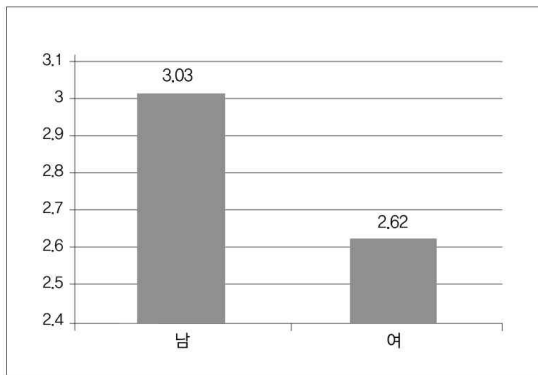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 남성은 약한<br>모습을<br>보여서는 안 된다 | 성별        | 남            | 253<br>(100) | 3.03            | 27<br>(10.8)  | 67<br>(26.8)  | 50<br>(20.0)  | 84<br>(33.6)  | 22<br>(8.8) |
|                            |           | 여            | 674<br>(100) | 2.62            | 117<br>(17.5) | 234<br>(34.9) | 130<br>(19.4) | 166<br>(24.8) | 23<br>(3.4) |
|                            | 지역별       | 중            | 386<br>(100) | 2.92            | 47<br>(12.2)  | 109<br>(28.2) | 78<br>(20.2)  | 132<br>(34.2) | 20<br>(5.2) |
|                            |           | 남            | 108<br>(100) | 2.63            | 24<br>(22.2)  | 32<br>(29.6)  | 21<br>(19.4)  | 22<br>(20.4)  | 9<br>(8.3)  |
|                            |           | 동            | 250<br>(100) | 2.78            | 37<br>(14.8)  | 80<br>(32.0)  | 46<br>(18.4)  | 74<br>(29.6)  | 13<br>(5.2) |
|                            |           | 북            | 114<br>(100) | 2.52            | 13<br>(11.4)  | 51<br>(44.7)  | 30<br>(26.3)  | 18<br>(15.8)  | 2<br>(1.8)  |
|                            |           | 울            | 32<br>(100)  | 2.31            | 7<br>(21.9)   | 16<br>(50.0)  | 3<br>(9.4)    | 4<br>(12.5)   | 2<br>(6.3)  |
|                            |           | 기타           | 44<br>(100)  | 2.25            | 13<br>(29.5)  | 15<br>(34.1)  | 9<br>(20.5)   | 6<br>(13.6)   | 1<br>(2.3)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2.00          | 49<br>(42.2)  | 35<br>(30.2)  | 19<br>(16.4)  | 9<br>(7.8)  |
|                            | 30대       | 66<br>(100)  | 2.27         | 14<br>(21.2)    | 32<br>(48.5)  | 11<br>(16.7)  | 6<br>(9.1)    | 3<br>(4.5)    |             |
|                            | 40대       | 67<br>(100)  | 2.52         | 11<br>(16.4)    | 27<br>(40.3)  | 17<br>(25.4)  | 7<br>(10.4)   | 5<br>(7.5)    |             |
|                            | 50대       | 269<br>(100) | 2.83         | 20<br>(7.4)     | 103<br>(38.3) | 59<br>(21.9)  | 76<br>(28.3)  | 11<br>(4.1)   |             |
|                            | 60대<br>이상 | 391<br>(100) | 3.08         | 31<br>(7.9)     | 106<br>(27.1) | 78<br>(19.9)  | 153<br>(39.1) | 23<br>(5.9)   |             |
|                            | 결혼<br>여부  | 미혼           | 180<br>(100) | 2.03            | 70<br>(38.9)  | 61<br>(33.9)  | 27<br>(15.0)  | 18<br>(10.0)  | 4<br>(2.2)  |
|                            |           | 기혼           | 634<br>(100) | 2.90            | 56<br>(8.8)   | 217<br>(34.2) | 126<br>(19.9) | 205<br>(32.3) | 30<br>(4.7) |
|                            |           | 이혼/<br>별거    | 12<br>(100)  | 2.67            | 1<br>(8.3)    | 6<br>(50.0)   | 2<br>(16.7)   | 2<br>(16.7)   | 1<br>(8.3)  |
|                            |           | 사별           | 42<br>(100)  | 3.02            | 3<br>(7.1)    | 9<br>(21.4)   | 12<br>(38.1)  | 12<br>(28.6)  | 2<br>(4.8)  |
|                            |           | 사실<br>혼      | 11<br>(100)  | 3.64            | 0<br>(0.0)    | 3<br>(27.3)   | 0<br>(0.0)    | 6<br>(54.5)   | 2<br>(18.2) |

○ ‘강한 남성성’을 나타내는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에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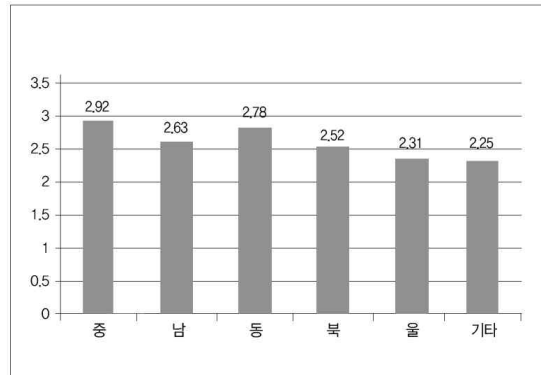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3.03점, 여성 2.62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42.4%(그렇다33.6%+매우 그렇다8.8%), ‘그렇지 않다’ 37.6%(그렇지 않다26.8%+전혀 그렇지 않다10.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28.2%(그렇다24.8%+매우 그렇다3.4%), ‘그렇지 않다’ 52.4%(그렇지 않다34.9%+전혀 그렇지 않다17.5%)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중구 2.92점, 동구 2.78점, 남구 2.63점, 북구 2.52점, 울주군 2.31점, 기타 2.25점으로 중구 2.92점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2.2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중구의 경우 ‘그렇다’ 39.4%(그렇다34.2%+매우 그렇다5.2%), ‘그렇지 않다’ 40.4%(그렇지 않다28.2%+전혀 그렇지 않다12.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그렇다’ 15.9%(그렇다13.6%+매우 그렇다2.3%), ‘그렇지 않다’ 63.6%(그렇지 않다34.1%+전혀 그렇지 않다29.5%)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60대 이상 3.08점, 50대 2.83점, 40대 2.52점, 30대 2.27점, 20대 2.00점으로 60대 이상 3.08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2.00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60대 이상의 경우 ‘그렇다’ 45%(그렇다39.1%+매우 그렇다5.9%), ‘그렇지 않다’ 35%(그렇지 않다27.1%+전혀 그렇지 않다7.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그렇다’ 11.2%(그렇다7.8%+매우 그렇다3.4%), ‘그렇지 않다’ 72.4%(그렇지 않다30.2%+전혀 그렇지 않다42.2%)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64점, 사별 3.02점, 기혼 2.90점, 이혼/별거 2.67점, 미혼 2.03점으로 사실혼 3.64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2.03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72.7%(그렇다54.5%+매우 그렇다18.2%), ‘그렇지 않다’ 27.3%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미혼의 경우 ‘그렇다’ 12.2%(그렇다10%+매우 그렇다2.2%), ‘그렇지 않다’ 72.8%(그렇지 않다33.9%+전혀 그렇지 않다38.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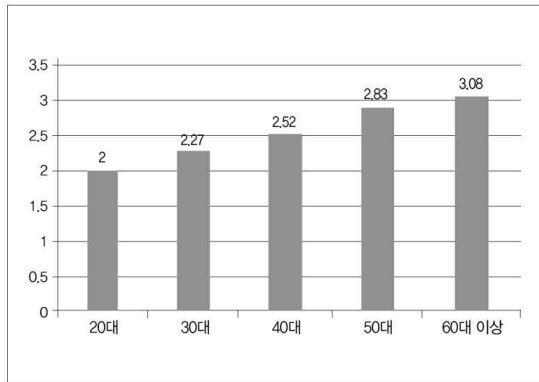
〈그림II-30〉 성별에 따른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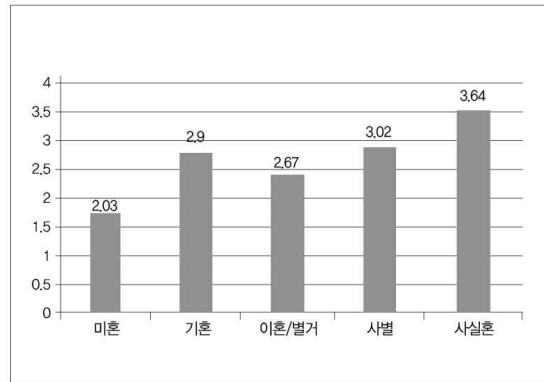
〈그림II-31〉 지역에 따른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그림II-32〉 연령에 따른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그림II-33〉 결혼여부에 따른 강한 남성성에 관한 평가



③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표 II-14〉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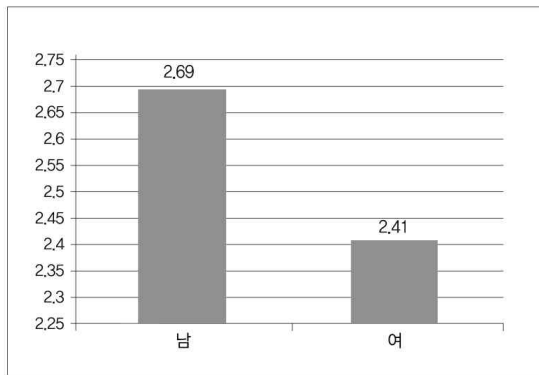
(단위 : 점, 명, %)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 성별     | 남            | 253<br>(100) | 2.69         | 30<br>(11.8)  | 93<br>(36.5)  | 72<br>(28.2)  | 46<br>(18.0)  | 14<br>(5.5) |
|                              |        | 여            | 674<br>(100) | 2.41         | 119<br>(17.6) | 291<br>(43.1) | 149<br>(22.1) | 99<br>(14.7)  | 17<br>(2.5) |
|                              | 지역별    | 중            | 390<br>(100) | 2.62         | 56<br>(14.4)  | 145<br>(37.2) | 96<br>(24.6)  | 77<br>(19.7)  | 16<br>(4.1) |
|                              |        | 남            | 109<br>(100) | 2.29         | 27<br>(24.8)  | 41<br>(37.6)  | 26<br>(23.9)  | 12<br>(11.0)  | 3<br>(2.8)  |
|                              |        | 동            | 257<br>(100) | 2.47         | 36<br>(14.0)  | 120<br>(46.7) | 56<br>(21.8)  | 35<br>(13.6)  | 10<br>(3.9) |
|                              |        | 북            | 116<br>(100) | 2.44         | 16<br>(13.8)  | 50<br>(43.1)  | 35<br>(30.2)  | 13<br>(11.2)  | 2<br>(1.7)  |
|                              |        | 울            | 32<br>(100)  | 2.44         | 6<br>(18.8)   | 16<br>(50.0)  | 3<br>(9.4)    | 4<br>(12.5)   | 3<br>(9.4)  |
|                              |        | 기타           | 44<br>(100)  | 2.20         | 13<br>(29.5)  | 14<br>(31.8)  | 12<br>(27.3)  | 5<br>(11.4)   | 0<br>(0.0)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1.83          | 55<br>(47.4)  | 37<br>(31.9)  | 15<br>(12.9)  | 7<br>(6.0)  |
|                              | 30대    | 66<br>(100)  | 2.36         | 14<br>(21.2) | 28<br>(42.4)  | 15<br>(22.7)  | 4<br>(6.1)    | 5<br>(7.6)    |             |
|                              | 40대    | 68<br>(100)  | 2.32         | 12<br>(17.6) | 33<br>(48.5)  | 15<br>(22.1)  | 5<br>(7.4)    | 3<br>(4.4)    |             |
|                              | 50대    | 273<br>(100) | 2.61         | 23<br>(8.4)  | 122<br>(44.7) | 75<br>(27.5)  | 45<br>(16.5)  | 8<br>(2.9)    |             |
|                              | 60대 이상 | 391<br>(100) | 2.71         | 35<br>(8.8)  | 160<br>(40.2) | 102<br>(25.6) | 87<br>(21.9)  | 14<br>(3.5)   |             |
|                              | 결혼 여부  | 미혼           | 180<br>(100) | 1.97         | 76<br>(42.2)  | 56<br>(31.1)  | 31<br>(17.2)  | 12<br>(6.7)   | 4<br>(2.2)  |
|                              |        | 기혼           | 637<br>(100) | 2.59         | 61<br>(9.6)   | 288<br>(45.2) | 156<br>(24.5) | 115<br>(18.1) | 17<br>(2.7) |
|                              |        | 이혼/별거        | 13<br>(100)  | 2.15         | 2<br>(15.4)   | 7<br>(53.8)   | 4<br>(30.8)   | 0<br>(0.0)    | 0<br>(0.0)  |
|                              |        | 사별           | 46<br>(100)  | 3.07         | 2<br>(4.3)    | 13<br>(28.4)  | 16<br>(34.8)  | 10<br>(21.7)  | 5<br>(10.9) |
|                              |        | 사실혼          | 12<br>(100)  | 2.92         | 1<br>(8.3)    | 5<br>(41.7)   | 1<br>(8.3)    | 4<br>(33.3)   | 1<br>(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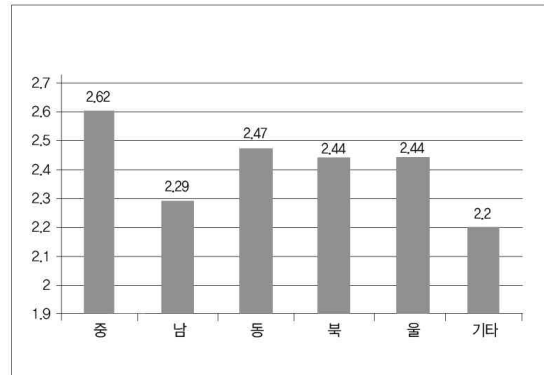
○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을 나타내는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에 성별, 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2.69점, 여성 2.41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23.5%(그렇다18%+매우 그렇다5.5%), ‘그렇지 않다’ 48.3%(그렇지 않다36.5%+전혀 그렇지 않다11.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17.2%(그렇다14.7%+매우 그렇다2.5%), ‘그렇지 않다’ 60.7%(그렇지 않다43.1%+전혀 그렇지 않다17.6%)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중구 2.62점, 동구 2.47점, 북구와 울주군 2.44점, 남구 2.29점, 기타 2.20점으로 중구 2.6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2.20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중구의 경우, ‘그렇다’ 23.8%(그렇다19.7%+매우 그렇다4.1%), ‘그렇지 않다’ 51.6%(그렇지 않다37.2%+전혀 그렇지 않다14.4%)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그렇다’ 11.4%, ‘그렇지 않다’ 61.3%(그렇지 않다31.8%+전혀 그렇지 않다29.5%)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60대 이상 2.71점, 50대 2.61점, 30대 2.36점, 40대 2.32점, 20대 1.83점으로 60대 이상 2.71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1.83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60대 이상의 경우 ‘그렇다’ 25.4%(그렇다21.9%+매우 그렇다3.5%), ‘그렇지 않다’ 49%(그렇지 않다40.2%+전혀 그렇지 않다8.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그렇다’ 7.7%(그렇다6%+매우 그렇다1.7%), ‘그렇지 않다’ 79.3%(그렇지 않다31.9%+전혀 그렇지 않다47.4%)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별 3.07점, 사실혼 2.92점, 기혼 2.59점, 이혼/별거 2.15점, 미혼 1.97점으로 사별 3.07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1.97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별의 경우 ‘그렇다’ 32.6%(그렇다21.7%+매우 그렇다10.9%), ‘그렇지 않다’ 32.7%(그렇지 않다28.4%+전혀 그렇지 않다4.3%)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미혼의 경우 ‘그렇다’ 8.9%(그렇다6.7%+매우 그렇다2.2%), ‘그렇지 않다’ 73.3%(그렇지 않다31.1%+전혀 그렇지 않다42.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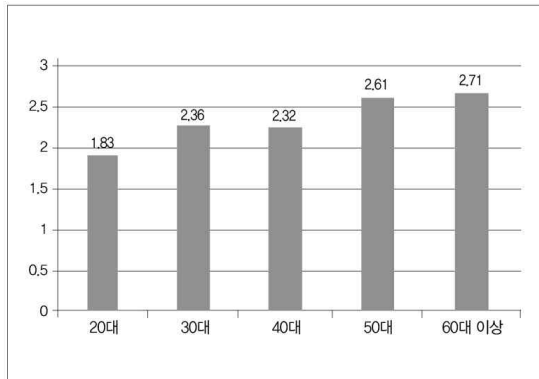
〈그림II-34〉 성별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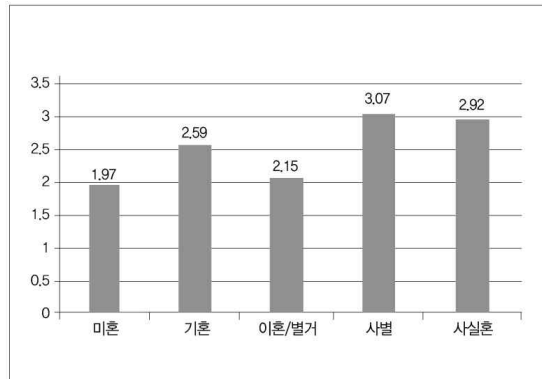
〈그림II-35〉 지역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관한 평가



〈그림II-36〉 연령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관한 평가



〈그림II-37〉 결혼이유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 관한 평가



(2) 성역할 위계에 관한 평가

〈표II-15〉 성역할 위계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 문항         |                                   | 계 (전체) | 평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여성의 경제적 자립 |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 967    | 3.38 | 58        | 153       | 304  | 337     | 115    |
|            |                                   | 100    |      | 6         | 15.8      | 31.4 | 34.9    | 11.9   |
| 남성의 돌봄자립   |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 954    | 3.53 | 50        | 127       | 231  | 455     | 101    |
|            |                                   | 100    |      | 5.2       | 13.2      | 24   | 47.2    | 10.5   |

- 먼저, ‘성역할 위계에 관한 평가’에 대해 기존 생계부양자 역할은 남성, 자녀돌봄역할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공사영역의 이분과 위계로 작용함(여성가족부, 2017). 노동시장은 공적영역으로 남성영역, 가정생활은 사적영역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되며, 그 두 영역 간 경계와 역할 분담을 준수하는 것이 고정관념에 부합되는 활동으로 두 영역을 넘나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태도와 관련됨(여성가족부, 2017).
- 이에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과 남성이 자녀돌봄역할에 자립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총 2문항으로 살펴보았음.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나타내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와 ‘남성의 돌봄자립’을 나타내는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로 구성함.

-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돌봄 자립’에 대해 전체 평점은 3.4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울산시민은 대체로 전통적 성역할 위계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돌봄 자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먼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3.38점으로, ‘그렇다’ 46.8%(대체로 그렇다34.9+매우 그렇다11.9%), ‘그렇지 않다’ 21.8%(별로 그렇지 않다15.8+전혀 그렇지 않다6%)의 비율로 나타나 ‘그렇다’가 25%p 높게 나타나 울산시민은 대체로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가 3.53점으로, ‘그렇다’ 57.7%(대체로 그렇다47.2+매우 그렇다10.5%), ‘그렇지 않다’ 18.4%(별로 그렇지 않다13.2+전혀 그렇지 않다5.2%)의 비율로 나타남. ‘그렇다’가 39.3%p높게 나타나, 울산 시민은 대체로 남성이 돌봄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① 여성의 경제적 자립

〈표II-16〉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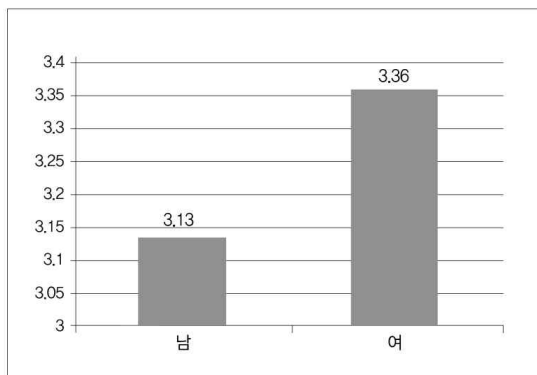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평가              |              |              |               |               |              |
|----------------------------------|-----------|-----------|--------------|-----------------|--------------|--------------|---------------|---------------|--------------|
|                                  |           |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여성이<br>경제적으로<br>자립하는 것은<br>중요하다. | 성별        | 남         | 253<br>(100) | 3.13            | 13<br>(5.1)  | 50<br>(19.8) | 101<br>(39.6) | 68<br>(26.9)  | 21<br>(8.3)  |
|                                  |           | 여         | 674<br>(100) | 3.36            | 43<br>(6.4)  | 98<br>(14.6) | 192<br>(28.6) | 250<br>(37.3) | 88<br>(13.1) |
|                                  | 지역별       | 중         | 392<br>(100) | 3.36            | 16<br>(4.1)  | 62<br>(15.8) | 133<br>(33.9) | 128<br>(32.7) | 53<br>(13.5) |
|                                  |           | 남         | 106<br>(100) | 3.56            | 4<br>(3.8)   | 14<br>(13.2) | 24<br>(22.6)  | 47<br>(44.3)  | 17<br>(16.0) |
|                                  |           | 동         | 256<br>(100) | 3.26            | 17<br>(6.6)  | 41<br>(16.0) | 80<br>(31.3)  | 94<br>(36.7)  | 24<br>(9.4)  |
|                                  |           | 북         | 114<br>(100) | 3.24            | 5<br>(4.4)   | 18<br>(15.8) | 44<br>(38.6)  | 39<br>(34.2)  | 8<br>(7.0)   |
|                                  |           | 울         | 31<br>(100)  | 2.94            | 5<br>(16.1)  | 8<br>(25.8)  | 4<br>(12.9)   | 12<br>(38.7)  | 2<br>(6.5)   |
|                                  |           | 기타        | 44<br>(100)  | 3.23            | 7<br>(15.9)  | 6<br>(13.6)  | 10<br>(22.7)  | 12<br>(27.3)  | 9<br>(20.5)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3.11         | 18<br>(15.5) | 14<br>(12.1)  | 41<br>(35.3)  | 23<br>(19.8) |
|                                  | 30대       |           | 66<br>(100)  | 3.42            | 2<br>(3.0)   | 10<br>(15.2) | 23<br>(34.8)  | 20<br>(30.3)  | 11<br>(16.7) |
|                                  | 40대       |           | 67<br>(100)  | 3.58            | 2<br>(3.0)   | 6<br>(9.0)   | 25<br>(37.3)  | 19<br>(28.4)  | 15<br>(22.4) |
|                                  | 50대       |           | 270<br>(100) | 3.43            | 9<br>(3.3)   | 43<br>(15.9) | 71<br>(26.3)  | 117<br>(43.3) | 30<br>(11.1) |
|                                  | 60대<br>이상 |           | 397<br>(100) | 3.22            | 21<br>(5.3)  | 72<br>(18.1) | 134<br>(33.8) | 137<br>(34.5) | 33<br>(8.3)  |
|                                  | 결혼<br>여부  | 미혼        | 179<br>(100) | 3.13            | 23<br>(12.8) | 22<br>(12.3) | 67<br>(37.4)  | 42<br>(23.5)  | 25<br>(14.0) |
|                                  |           | 기혼        | 636<br>(100) | 3.40            | 23<br>(6.2)  | 98<br>(15.4) | 192<br>(30.2) | 250<br>(39.3) | 73<br>(11.5) |
|                                  |           | 이혼/<br>별거 | 13<br>(100)  | 3.85            | 0<br>(0.0)   | 0<br>(0.0)   | 4<br>(30.8)   | 7<br>(53.8)   | 2<br>(15.4)  |
|                                  |           | 사별        | 46<br>(100)  | 3.24            | 3<br>(6.5)   | 6<br>(13.0)  | 17<br>(37.0)  | 17<br>(37.0)  | 3<br>(6.5)   |
|                                  |           | 사실혼       | 12<br>(100)  | 3.00            | 0<br>(0.0)   | 5<br>(45.5)  | 2<br>(18.2)   | 3<br>(27.3)   | 1<br>(9.1)   |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나타내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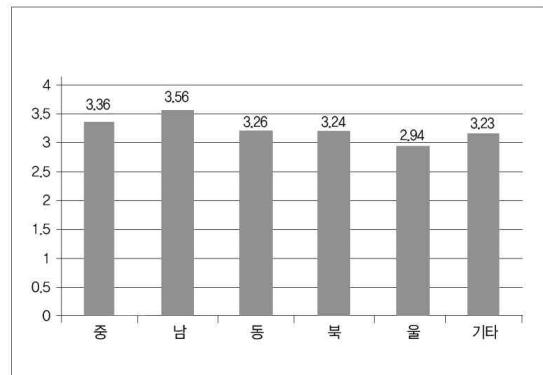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3.13점, 여성 3.36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5.2%(그렇다26.9%+매우 그렇다8.3%), ‘그렇지 않다’ 24.9%(그렇지 않다19.8%+전혀 그렇지 않다5.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50.4%(그렇다37.3%+매우 그렇다13.1%), ‘그렇지 않다’ 21%(그렇지 않다14.6%+전혀 그렇지 않다6.4%)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구 3.56점, 중구 3.36점, 동구 3.26점, 북구 3.24점, 기타 3.23점, 울주군 2.94점으로 남구 3.56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울주군 2.94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남구의 경우 ‘그렇다’ 60.3%(그렇다44.3%+매우 그렇다16%), ‘그렇지 않다’ 17%(그렇지 않다13.2%+전혀 그렇지 않다3.8%)의 비율로 나타남. 울주군의 경우 ‘그렇다’ 45.2%(그렇다38.7%+매우 그렇다6.5%), ‘그렇지 않다’ 41.9%(그렇지 않다25.8%+전혀 그렇지 않다16.1%)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40대 3.58점, 50대 3.43점, 30대 3.42점, 60대 이상 3.22점, 20대 3.11점으로 40대 3.58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3.11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40대의 경우 ‘그렇다’ 50.8%(그렇다28.4%+매우 그렇다22.4%), ‘그렇지 않다’ 12%(그렇지 않다9%+전혀 그렇지 않다3%)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37%(그렇다19.8%+매우 그렇다17.2%), ‘그렇지 않다’ 27.6%(그렇지 않다12.1%+전혀 그렇지 않다15.5%)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이혼/별거 3.85점, 기혼 3.40점, 사별 3.24점, 미혼 3.13점, 사실혼 3.00점으로 이혼/별거 3.8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사실혼 3.00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이혼/별거의 경우, ‘그렇다’ 69.2%(그렇다53.8%+매우 그렇다15.4%), ‘그렇지 않다’ 0%의 비율로 나타남.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36.4%(그렇다27.3%+매우 그렇다9.1%), ‘그렇지 않다’ 45.5%로 나타남.

〈그림II-38〉 성별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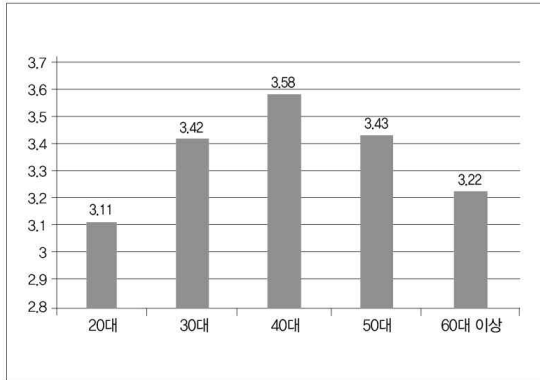


〈그림II-39〉 지역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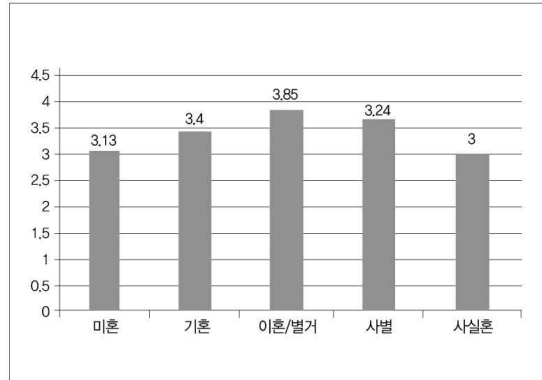




〈그림II-40〉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그림II-41〉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평가



② 남성의 돌봄 자립

〈표II-17〉 남성의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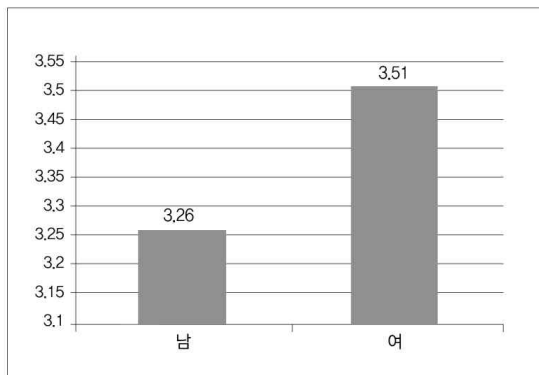
(단위 : 점, 명, %)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 남성도 다른<br>사람의 도움<br>없이 아이를<br>돌볼 수 있어야<br>한다. | 성별       | 남         | 253<br>(100) | 3.26            | 14<br>(5.5) | 42<br>(16.6) | 80<br>(31.6)  | 98<br>(38.7)  | 19<br>(7.5)  |
|   |          | 여         | 674<br>(100) | 3.51            | 33<br>(4.9) | 80<br>(12.0) | 144<br>(21.5) | 335<br>(50.1) | 77<br>(11.5) |
|   | 지역별      | 중         | 383<br>(100) | 3.41            | 21<br>(5.5) | 50<br>(13.1) | 99<br>(25.8)  | 176<br>(46.0) | 37<br>(9.7)  |
|   |          | 남         | 107<br>(100) | 3.65            | 2<br>(1.9)  | 10<br>(9.3)  | 27<br>(25.2)  | 52<br>(48.6)  | 16<br>(15.0) |
|   |          | 동         | 258<br>(100) | 3.51            | 13<br>(5.0) | 29<br>(11.2) | 59<br>(22.9)  | 128<br>(49.6) | 29<br>(11.2) |
|   |          | 북         | 116<br>(100) | 3.43            | 1<br>(0.9)  | 24<br>(20.7) | 23<br>(19.8)  | 60<br>(51.7)  | 8<br>(6.9)   |
|   |          | 울         | 32<br>(100)  | 3.09            | 4<br>(12.5) | 5<br>(15.6)  | 7<br>(21.9)   | 16<br>(50.0)  | 0<br>(0.0)   |
|   |          | 기타        | 44<br>(100)  | 3.61            | 4<br>(9.1)  | 2<br>(4.5)   | 12<br>(27.3)  | 15<br>(34.1)  | 11<br>(25.0)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3.48        | 11<br>(9.5)  | 15<br>(12.9)  | 23<br>(19.8)  | 41<br>(35.3) |
|   |          | 30대       | 66<br>(100)  | 3.55            | 2<br>(3.0)  | 10<br>(15.2) | 16<br>(24.2)  | 26<br>(39.4)  | 12<br>(18.2) |
|   |          | 40대       | 68<br>(100)  | 3.54            | 4<br>(5.9)  | 7<br>(10.3)  | 17<br>(25.0)  | 28<br>(41.2)  | 12<br>(17.6) |
|   |          | 50대       | 272<br>(100) | 3.53            | 6<br>(2.2)  | 33<br>(12.1) | 63<br>(23.2)  | 152<br>(55.9) | 18<br>(6.6)  |
|   |          | 60대<br>이상 | 392<br>(100) | 3.34            | 23<br>(5.9) | 59<br>(15.1) | 97<br>(24.7)  | 189<br>(48.2) | 24<br>(6.1)  |
|   | 결혼<br>여부 | 미혼        | 180<br>(100) | 3.51            | 14<br>(7.8) | 19<br>(10.6) | 43<br>(23.9)  | 69<br>(38.3)  | 35<br>(19.4) |
|   |          | 기혼        | 636<br>(100) | 3.47            | 22<br>(3.5) | 89<br>(14.0) | 146<br>(23.0) | 327<br>(51.4) | 52<br>(8.2)  |
|   |          | 이혼/<br>별거 | 13<br>(100)  | 3.62            | 0<br>(0.0)  | 2<br>(15.4)  | 2<br>(15.4)   | 8<br>(61.5)   | 1<br>(7.7)   |
|   |          | 사별        | 46<br>(100)  | 3.35            | 3<br>(6.5)  | 4<br>(8.7)   | 17<br>(37.0)  | 18<br>(39.1)  | 4<br>(8.7)   |
|   |          | 사실<br>혼   | 12<br>(100)  | 3.58            | 0<br>(0.0)  | 2<br>(16.7)  | 2<br>(16.7)   | 7<br>(58.3)   | 1<br>(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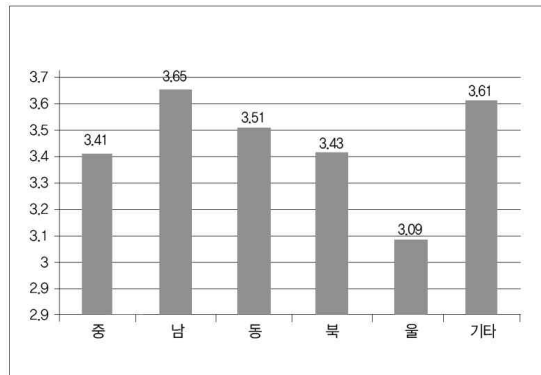
○ ‘남성의 돌봄 자립’을 나타내는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3.26점, 여성 3.51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46.2%(그렇다38.7%+매우 그렇다7.5%), ‘그렇지 않다’ 22.1%(그렇지 않다16.6%+전혀 그렇지 않다5.5%)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61.6%(그렇다50.1%+매우 그렇다11.5%), ‘그렇지 않다’ 16.9%(그렇지 않다12.0%+전혀 그렇지 않다4.9%)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구 3.65점, 기타 3.61점, 동구 3.51점, 북구 3.43점, 중구 3.41점, 울주군 3.09점으로 남구 3.6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울주군 3.09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남구의 경우 ‘그렇다’ 63.6%(그렇다48.6%+매우 그렇다15%), ‘그렇지 않다’ 11.2%(그렇지 않다9.3%+전혀 그렇지 않다1.9%)의 비율로 나타남. 울주군의 경우 ‘그렇다’ 50%, ‘그렇지 않다’ 28.1%(그렇지 않다15.6%+전혀 그렇지 않다12.5%)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30대 3.55점, 40대 3.54점, 50대 3.53점, 20대 3.48점, 60대 이상 3.34점으로 30대 3.5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60대 이상 3.34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30대의 경우 ‘그렇다’ 57.6%(그렇다39.4%+매우 그렇다18.2%), ‘그렇지 않다’ 18.2%(그렇지 않다15.2%+전혀 그렇지 않다3%)의 비율로 나타남. 60대 이상의 경우 ‘그렇다’ 54.3%(그렇다48.2%+매우 그렇다6.1%), ‘그렇지 않다’ 21%(그렇지 않다15.1%+전혀 그렇지 않다5.9%)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이혼/별거 3.62점, 사실혼 3.58점, 미혼 3.51점, 기혼 3.47점, 사별 3.35점으로 이혼/별거 3.6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사별 3.3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이혼/별거의 경우, ‘그렇다’ 69.2%(그렇다61.5%+매우 그렇다7.7%), ‘그렇지 않다’ 15.4%의 비율로 나타남. 사별의 경우, ‘그렇다’ 47.8%(그렇다39.1%+매우 그렇다8.7%), ‘그렇지 않다’ 15.2%(그렇지 않다8.7%+전혀 그렇지 않다6.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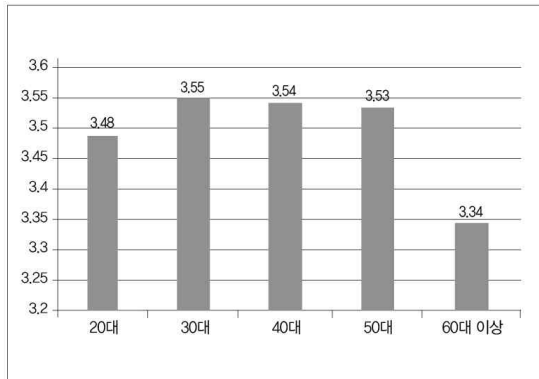
〈그림II-42〉 성별에 따른 남성이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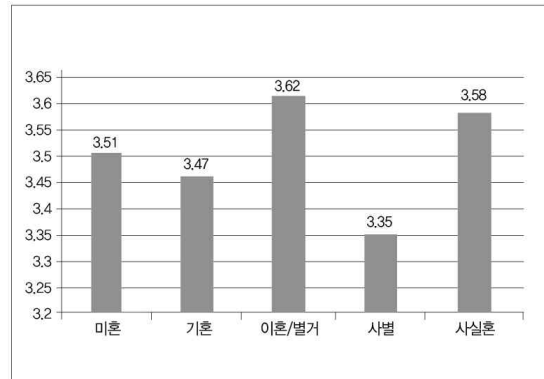
〈그림II-43〉 지역에 따른 남성이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그림II-44〉 연령에 따른 남성이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그림II-45〉 결혼여부에 따른 남성이 돌봄 자립에 관한 평가



#### 4) 성 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 전통적으로 가정과 일의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분리해 왔으며, 남성을 소득이 있는 일을 하는 주 책임자인 생계부양자(공)로, 여성은 가정 내 돌봄 책임자(사)로 성역할을 분리해 왔음(여성가족부, 2017).
-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공-사 이분법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성 역할 고정관념은 사회적 자원 배분의 성별화를 정당화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7).
- 이에 가정-일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와 ‘일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앞에서 살펴본 남성우위와 성별위계에 따른 공사이분에 관해 대체로 성평등한 인식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정 내 성역할과 일에서의 성역할 분업의 경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여전히 성별위계에 따른 남성우위가 나타나, 남성들이 여성 영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수준이 높으나, 여성들이 남성영역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수준이 낮음.

(1)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 가족부양과 남성다움

〈표 II-18〉 가족부양과 남성다움에 관한 평가

(단위 : 명, %)

| 문항          |  | 계<br>(전체) | 평점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남성소득우위      |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 969       | 2.95 | 98              | 295             | 235      | 297        | 43        |
|             |  | 100       |      | 10.1            | 30.5            | 24.3     | 30.7       | 4.4       |
| 남성생계 부양책임   |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 964       | 2.82 | 115             | 342             | 237      | 232        | 38        |
|             |  | 100       |      | 11.9            | 35.5            | 24.6     | 24.1       | 3.9       |
| 남성 의사결정자 역할 |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 965       | 2.69 | 127             | 382             | 237      | 187        | 32        |
|             |  | 100       |      | 13.2            | 39.6            | 24.6     | 19.4       | 3.3       |
| 남성전업주부      |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951       | 2.47 | 217             | 385             | 205      | 119        | 35        |
|             |  | 100       |      | 22.6            | 40.1            | 21.3     | 12.4       | 3.6       |
| 여성의 돌봄책임자   |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 해야한다. | 965       | 2.97 | 118             | 271             | 242      | 276        | 58        |
|             |  | 100       |      | 12.2            | 28.1            | 25.1     | 28.6       | 6.0       |

- 먼저,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은 총 5문항은 대체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모성(돌봄수행자)역할과 같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체계에 따라 분리된 부부역할과 관련된 문항들이며, 총 5문항임. ‘남성소득우위’를 나타내는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와 ‘남성생계부양책임’을 나타내는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남성의사결정자 역할’을 나타내는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남성전업주부’를 나타내는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성의 돌봄 책임자’를 나타내는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 시 해야 한다.’로 구성되어 있음.
-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5문항은 대체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 수행자로 표현되는 문항들이며, 평점은 2.78점으로 대울산시민은 대체로 가정 내 전통적 성역할 분리에 따른 성별 분업체계에 대한 지지가 낮음.

- 먼저,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는 2.95점으로, ‘그렇다’ 35.1%(대체로 그렇다30.7%+매우 그렇다4.4%), ‘그렇지 않다’ 40.6%(별로 그렇지 않다30.5%+전혀 그렇지 않다10.1%)의 비율로 나타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는 2.82점으로, ‘그렇다’ 28%(대체로 그렇다 24.1%+매우 그렇다3.9%), ‘그렇지 않다’ 47.4%(별로 그렇지 않다35.5%+전혀 그렇지 않다11.9%)의 비율로 나타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는 2.69점으로, ‘그렇다’ 22.7%(대체로 그렇다19.4%+매우 그렇다3.3%), ‘그렇지 않다’ 52.8%(별로 그렇지 않다39.6%+전혀 그렇지 않다13.2%)의 비율로 나타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는 2.47점으로 ‘그렇다’ 16%(대체로 그렇다12.4%+매우 그렇다3.6%), ‘그렇지 않다’ 62.7%(별로 그렇지 않다40.1%+전혀 그렇지 않다22.6%)의 비율로 나타남.
-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 시 해야 한다.’는 2.97점으로, ‘그렇다’ 34.6%(대체로 그렇다28.6%+매우 그렇다6%), ‘그렇지 않다’ 40.3%(별로 그렇지 않다28.1%+전혀 그렇지 않다12.2%)의 비율로 나타남.
-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남성소득우위, 남성생계부양책임) 및 남성 의사결정자 역할, 여성의 가정 내 돌봄 역할 우선과 관련된 문항들, 즉 기존에 규정된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전통적 태도에 대한 문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대체로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있음.
- 하지만 기존에 규정된 성역할에서 변화하여 남성의 가정생활 참여, 남성전업주부역할과 같이 남성이 가정생활을 주로 전담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 성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남성들이 가정생활에서 주어지는 역할 증가에 대해서는 성평등한 태도를 가지나 여성이 생계부양자로서 경제활동영역에 진출하는 것과 주소득원으로 생계부양자가 되는 것,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① 남성 소득 우위

〈표II-19〉 남성 소득 우위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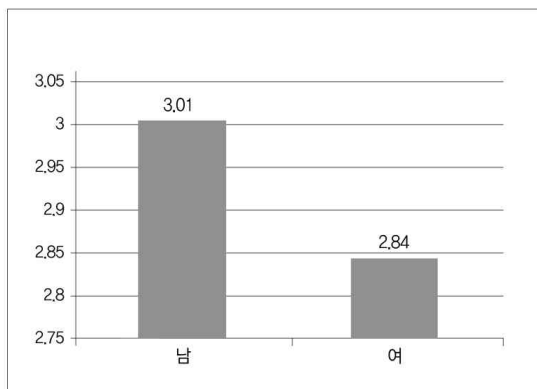
(단위 : 점, 명, %)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                                  |        |              |              |                 |               |               |               |               | 점            |
|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 성별     | 남            | 253<br>(100) | 3.01            | 18<br>(7.1)   | 82<br>(32.4)  | 55<br>(21.7)  | 76<br>(30.0)  | 22<br>(8.7)  |
|                                  |        | 여            | 674<br>(100) | 2.84            | 77<br>(11.4)  | 200<br>(29.7) | 169<br>(25.1) | 208<br>(30.9) | 20<br>(3.0)  |
|                                  | 지역별    | 중            | 390<br>(100) | 2.98            | 37<br>(9.5)   | 103<br>(26.4) | 104<br>(26.7) | 123<br>(31.5) | 23<br>(5.9)  |
|                                  |        | 남            | 107<br>(100) | 2.74            | 13<br>(12.1)  | 39<br>(36.4)  | 22<br>(20.6)  | 29<br>(27.1)  | 4<br>(3.7)   |
|                                  |        | 동            | 257<br>(100) | 2.87            | 24<br>(9.3)   | 81<br>(31.5)  | 63<br>(24.5)  | 82<br>(31.9)  | 7<br>(2.7)   |
|                                  |        | 북            | 116<br>(100) | 2.94            | 5<br>(4.3)    | 43<br>(37.1)  | 26<br>(22.4)  | 38<br>(32.8)  | 4<br>(3.4)   |
|                                  |        | 울            | 32<br>(100)  | 2.84            | 6<br>(18.8)   | 7<br>(21.9)   | 7<br>(21.9)   | 10<br>(31.3)  | 2<br>(6.3)   |
|                                  |        | 기타           | 44<br>(100)  | 2.43            | 8<br>(18.2)   | 19<br>(43.2)  | 8<br>(18.2)   | 8<br>(18.2)   | 1<br>(2.3)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2.32          | 31<br>(26.7)  | 42<br>(36.2)  | 24<br>(20.7)  | 13<br>(11.2) |
|                                  | 30대    | 66<br>(100)  | 2.88         | 5<br>(7.6)      | 25<br>(37.9)  | 13<br>(19.7)  | 19<br>(28.8)  | 4<br>(6.1)    |              |
|                                  | 40대    | 67<br>(100)  | 2.88         | 4<br>(6.0)      | 24<br>(35.8)  | 19<br>(28.4)  | 16<br>(23.9)  | 4<br>(6.0)    |              |
|                                  | 50대    | 271<br>(100) | 3.10         | 16<br>(5.9)     | 74<br>(27.3)  | 62<br>(22.9)  | 104<br>(38.4) | 15<br>(5.5)   |              |
|                                  | 60대 이상 | 398<br>(100) | 2.99         | 29<br>(7.3)     | 111<br>(27.9) | 107<br>(26.9) | 137<br>(34.4) | 14<br>(3.5)   |              |
|                                  | 결혼 여부  | 미혼           | 180<br>(100) | 2.49            | 40<br>(22.2)  | 59<br>(32.8)  | 43<br>(23.9)  | 29<br>(16.1)  | 9<br>(5.0)   |
|                                  |        | 기혼           | 637<br>(100) | 3.02            | 39<br>(6.1)   | 196<br>(30.8) | 146<br>(22.9) | 228<br>(35.8) | 28<br>(4.4)  |
|                                  |        | 이혼/별거        | 13<br>(100)  | 3.00            | 0<br>(0.0)    | 3<br>(23.1)   | 7<br>(53.8)   | 3<br>(23.1)   | 0<br>(0.0)   |
|                                  |        | 사별           | 45<br>(100)  | 3.16            | 4<br>(8.9)    | 5<br>(11.1)   | 18<br>(40.0)  | 16<br>(35.6)  | 2<br>(4.4)   |
|                                  |        | 사실혼          | 12<br>(100)  | 2.83            | 1<br>(8.3)    | 4<br>(33.3)   | 3<br>(25.0)   | 4<br>(33.3)   | 0<br>(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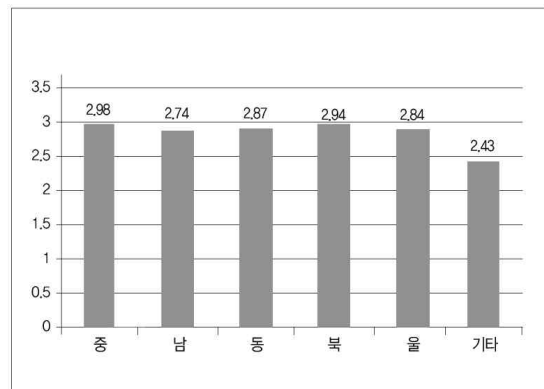
○ ‘남성 소득 우위’를 나타내는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에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3.01점, 여성 2.84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8.7%(그렇다30%+매우 그렇다8.7%), ‘그렇지 않다’ 39.5%(그렇지 않다32.4%+전혀 그렇지 않다7.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33.9%(그렇다30.9%+매우 그렇다3%), ‘그렇지 않다’ 41.1%(그렇지 않다29.7%+전혀 그렇지 않다11.4%)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중구 2.98점, 북구 2.94점, 동구 2.87점, 울주군 2.84점, 남구 2.74점, 기타 2.43점으로 중구 2.98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2.43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중구의 경우, ‘그렇다’ 37.4%(그렇다31.5%+매우 그렇다5.9%), ‘그렇지 않다’ 35.9%(그렇지 않다26.4%+전혀 그렇지 않다9.5%)의 비율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그렇다’ 20.5%(그렇다18.2%+매우 그렇다2.3%), ‘그렇지 않다’ 61.4%(그렇지 않다43.2%+전혀 그렇지 않다18.2%)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50대 3.10점, 60대 이상 2.99점, 30대와 40대 2.88점, 20대 2.32점으로 50대 3.10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2.32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50대의 경우, ‘그렇다’ 44.1%(그렇다38.6%+매우 그렇다5.5%), ‘그렇지 않다’ 33.2%(그렇지 않다27.3%+전혀 그렇지 않다5.9%)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16.4%(그렇다11.2%+매우 그렇다5.2%), ‘그렇지 않다’ 62.9%(그렇지 않다36.2%+전혀 그렇지 않다26.7%)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별 3.16점, 기혼 3.02점, 이혼/별거 3.00점, 사실혼 2.83점, 미혼 2.49점으로 사별 3.16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2.49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별의 경우, ‘그렇다’ 40%(그렇다35.6%+매우 그렇다4.4%), ‘그렇지 않다’ 20%(그렇지 않다11.1%+전혀 그렇지 않다8.9%)의 비율로 나타남. 미혼의 경우, ‘그렇다’ 21.1%(그렇다16.1%+매우 그렇다5%), ‘그렇지 않다’ 55%(그렇지 않다32.8%+전혀 그렇지 않다22.2%)로 나타남.

〈그림II-46〉 성별에 따른 남성소독 우수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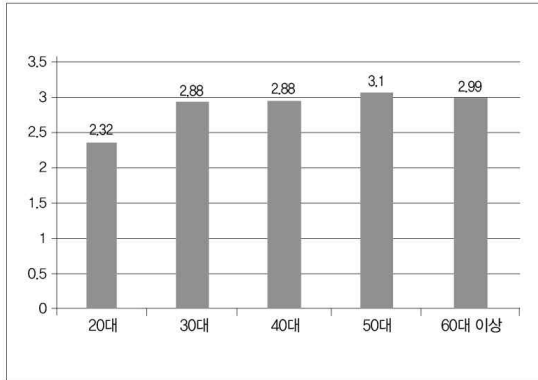


〈그림II-47〉 지역에 따른 남성소독 우수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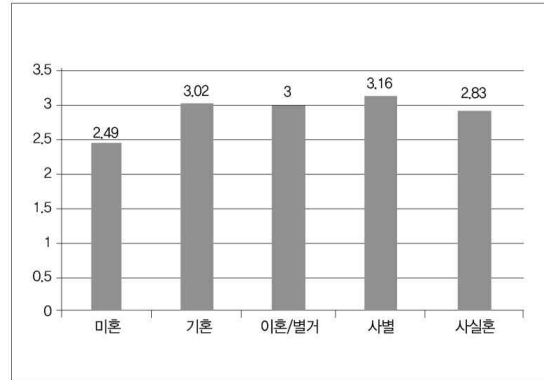




〈그림II-48〉 연령에 따른 남성소득 우위에 관한 평가



〈그림II-49〉 결혼여부에 따른 남성소득 우위에 관한 평가



② 남성생계부양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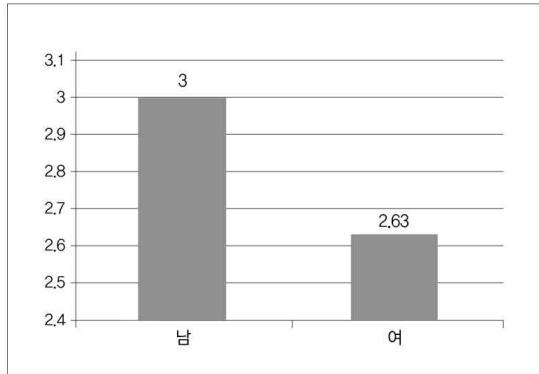
〈표 II-20〉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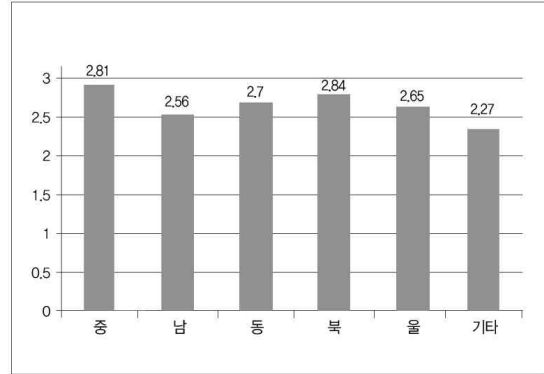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           | 그렇지           | 보통            | 그렇다           | 매우            |             |
|------------------------|--------|--------------|--------------|--------------|---------------|---------------|---------------|---------------|-------------|
|                        |        |              |              | 그렇지 않다       | 않다            | 이다            | 그렇다           | 그렇다           |             |
|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 성별     | 남            | 253<br>(100) | 3.00         | 23<br>(9.1)   | 76<br>(30.0)  | 56<br>(22.1)  | 75<br>(29.6)  | 23<br>(9.1) |
|                        |        | 여            | 674<br>(100) | 2.63         | 88<br>(13.2)  | 249<br>(37.3) | 167<br>(25.5) | 150<br>(22.5) | 14<br>(2.1) |
|                        | 지역별    | 중            | 385<br>(100) | 2.81         | 48<br>(12.5)  | 116<br>(30.1) | 99<br>(25.7)  | 105<br>(27.3) | 17<br>(4.4) |
|                        |        | 남            | 108<br>(100) | 2.56         | 14<br>(13.0)  | 44<br>(40.7)  | 29<br>(26.9)  | 18<br>(16.7)  | 3<br>(2.8)  |
|                        |        | 동            | 255<br>(100) | 2.70         | 27<br>(10.6)  | 106<br>(41.6) | 49<br>(19.2)  | 62<br>(24.3)  | 11<br>(4.3) |
|                        |        | 북            | 116<br>(100) | 2.84         | 6<br>(5.2)    | 42<br>(36.2)  | 37<br>(31.9)  | 27<br>(23.3)  | 4<br>(3.4)  |
|                        |        | 울            | 31<br>(100)  | 2.65         | 5<br>(16.1)   | 10<br>(32.3)  | 8<br>(25.8)   | 7<br>(22.6)   | 1<br>(3.2)  |
|                        |        | 기타           | 44<br>(100)  | 2.27         | 11<br>(25.0)  | 18<br>(40.9)  | 9<br>(20.5)   | 4<br>(9.1)    | 2<br>(4.5)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2.07          | 37<br>(31.9)  | 48<br>(41.4)  | 20<br>(17.2)  | 8<br>(6.9)  |
|                        | 30대    | 65<br>(100)  | 2.54         | 9<br>(13.8)  | 30<br>(46.2)  | 11<br>(16.9)  | 12<br>(18.5)  | 3<br>(4.6)    |             |
|                        | 40대    | 67<br>(100)  | 2.66         | 4<br>(6.0)   | 30<br>(44.8)  | 22<br>(32.8)  | 7<br>(10.4)   | 4<br>(6.0)    |             |
|                        | 50대    | 269<br>(100) | 3.02         | 7<br>(2.6)   | 89<br>(33.1)  | 77<br>(28.6)  | 83<br>(30.9)  | 13<br>(4.8)   |             |
|                        | 60대 이상 | 396<br>(100) | 2.82         | 40<br>(10.1) | 132<br>(33.3) | 97<br>(24.5)  | 113<br>(28.5) | 14<br>(3.5)   |             |
|                        | 결혼 여부  | 미혼           | 180<br>(100) | 2.17         | 52<br>(29.2)  | 70<br>(39.3)  | 34<br>(19.1)  | 18<br>(10.1)  | 4<br>(2.2)  |
|                        |        | 기혼           | 632<br>(100) | 2.87         | 44<br>(7.0)   | 226<br>(35.8) | 157<br>(24.8) | 178<br>(28.2) | 27<br>(4.3) |
|                        |        | 이혼/별거        | 13<br>(100)  | 2.46         | 1<br>(7.7)    | 7<br>(53.8)   | 3<br>(23.1)   | 2<br>(15.4)   | 0<br>(0.0)  |
|                        |        | 사별           | 46<br>(100)  | 2.89         | 4<br>(8.7)    | 9<br>(19.6)   | 22<br>(47.8)  | 10<br>(21.7)  | 1<br>(2.2)  |
|                        |        | 사실혼          | 11<br>(100)  | 3.45         | 0<br>(0.0)    | 3<br>(27.3)   | 1<br>(9.1)    | 6<br>(54.5)   | 1<br>(9.1)  |

- ‘남성생계부양책임’을 나타내는 문항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에 성별, 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3.00점, 여성 2.63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8.7%(그렇다29.6%+매우 그렇다9.1%), ‘그렇지 않다’ 39.1% (그렇지 않다30%+전혀 그렇지 않다9.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24.6%(그렇다22.5%+매우 그렇다2.1%), ‘그렇지 않다’ 50.5%(그렇지 않다37.3%+전혀 그렇지 않다13.2%)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북구 2.84점, 중구 2.81점, 동구 2.70점, 울주군 2.65점, 남구 2.56점, 기타 2.27점으로 북구 2.84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2.27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북구의 경우 ‘그렇다’ 26.7%(그렇다23.3%+매우 그렇다3.4%), ‘그렇지 않다’ 41.4% (그렇지 않다36.2%+전혀 그렇지 않다5.2%)의 비율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그렇다’ 13.6%(그렇다9.1%+매우 그렇다4.5%), ‘그렇지 않다’ 65.9%(그렇지 않다40.9%+전혀 그렇지 않다25%)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50대 3.02점, 60대 이상 2.82점, 40대 2.66점, 30대 2.54점, 20대 2.07점으로 50대 3.0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2.07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50대의 경우 ‘그렇다’ 35.7%(그렇다30.9%+매우 그렇다4.8%), ‘그렇지 않다’ 35.7% (그렇지 않다33.1%+전혀 그렇지 않다2.6%)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9.5%(그렇다6.9%+매우 그렇다2.6%), ‘그렇지 않다’ 73.3%(그렇지 않다41.4%+전혀 그렇지 않다31.9%)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45점, 사별 2.89점, 기혼 2.87점, 이혼/별거 2.46점, 미혼 2.17점으로 사실혼 3.4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2.17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63.6%(그렇다54.5%+매우 그렇다9.1%), ‘그렇지 않다’ 27.3%의 비율로 나타남. 미혼의 경우, ‘그렇다’ 12.3%(그렇다10.1%+매우 그렇다2.2%), ‘그렇지 않다’ 68.5%(그렇지 않다39.3%+전혀 그렇지 않다29.2%)로 나타남.
- 이들 응답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남성가정생활참여 증가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남성전업주부, 남성의사결정자역할)에 대해 점수가 낮으나,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남성소득우위, 남성생계부양책임) 및 여성 돌봄역할 강화에 관한 문항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이는 남성들이 가정생활에서 주어지는 역할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여성이 생계부양자로서 경제활동영역에 진출하고, 소득이 더 증가하여 남성구성원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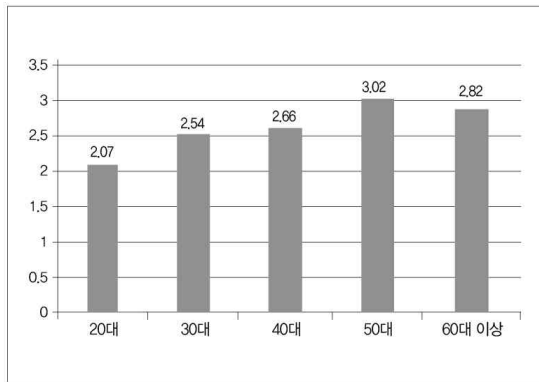
〈그림 II-50〉 성별에 따른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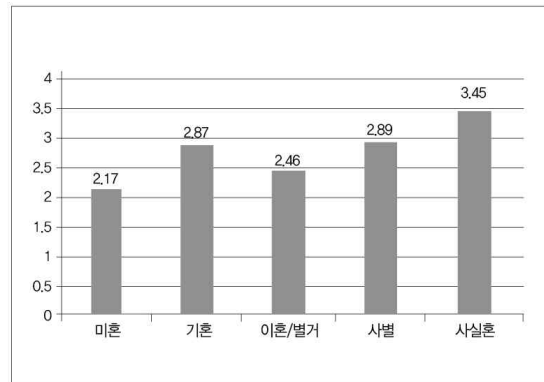
〈그림 II-51〉 지역에 따른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그림 II-52〉 연령에 따른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그림 II-53〉 결혼이유에 따른 남성생계부양책임에 관한 평가



③ 남성의사결정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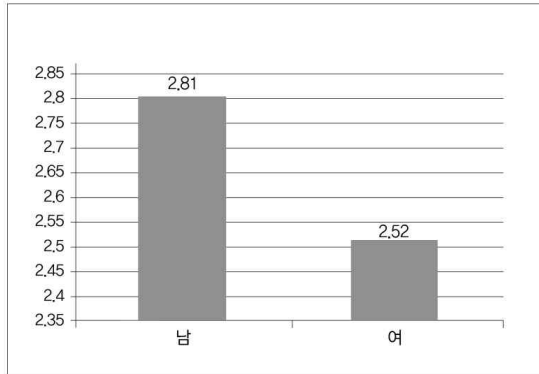
〈표 II-21〉 남성의사결정자역할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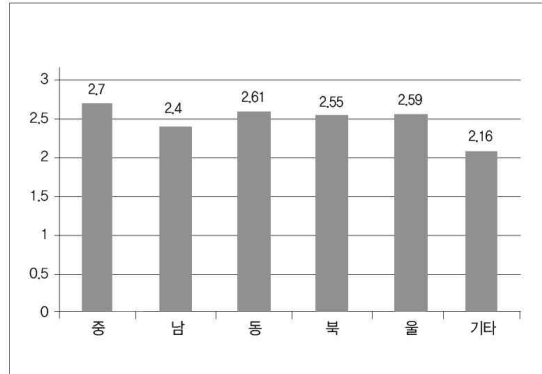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           | 그렇지          | 보통            | 그렇다           | 매우            |             |
|---|--------|-------|--------------|--------------|--------------|---------------|---------------|---------------|-------------|
|   |        |       |              | 그렇지 않다       | 않다           | 이다            | 그렇다           | 그렇다           |             |
|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 성별     | 남     | 250<br>(100) | 2.81         | 25<br>(10.0) | 87<br>(34.8)  | 67<br>(7.1)   | 53<br>(21.2)  | 18<br>(7.2) |
|   |        | 여     | 673<br>(100) | 2.52         | 97<br>(14.4) | 279<br>(41.5) | 161<br>(23.9) | 123<br>(18.3) | 13<br>(1.9) |
|   | 지역별    | 중     | 386<br>(100) | 2.70         | 43<br>(11.1) | 136<br>(35.2) | 114<br>(29.5) | 79<br>(20.5)  | 14<br>(3.6) |
|   |        | 남     | 107<br>(100) | 2.40         | 24<br>(22.4) | 44<br>(41.1)  | 15<br>(14.0)  | 20<br>(18.7)  | 4<br>(3.7)  |
|   |        | 동     | 257<br>(100) | 2.61         | 32<br>(12.5) | 102<br>(39.7) | 62<br>(24.1)  | 56<br>(21.8)  | 5<br>(1.9)  |
|   |        | 북     | 114<br>(100) | 2.55         | 7<br>(6.1)   | 61<br>(53.5)  | 27<br>(23.7)  | 14<br>(12.3)  | 5<br>(4.4)  |
|   |        | 울     | 32<br>(100)  | 2.59         | 7<br>(21.9)  | 9<br>(28.1)   | 8<br>(25.0)   | 6<br>(18.8)   | 2<br>(6.3)  |
|   |        | 기타    | 44<br>(100)  | 2.16         | 11<br>(25.0) | 21<br>(47.7)  | 7<br>(15.9)   | 4<br>(9.1)    | 1<br>(2.3)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2.05         | 39<br>(33.6)  | 45<br>(38.8)  | 22<br>(19.0)  | 7<br>(6.0)  |
|   | 30대    |       | 66<br>(100)  | 2.38         | 12<br>(18.2) | 31<br>(47.0)  | 12<br>(18.2)  | 8<br>(12.1)   | 3<br>(4.5)  |
|   | 40대    |       | 66<br>(100)  | 2.48         | 10<br>(15.2) | 28<br>(42.4)  | 16<br>(24.2)  | 10<br>(15.2)  | 2<br>(3.0)  |
|   | 50대    |       | 271<br>(100) | 2.75         | 11<br>(4.1)  | 119<br>(43.9) | 80<br>(29.5)  | 50<br>(18.5)  | 11<br>(4.1) |
|   | 60대 이상 |       | 397<br>(100) | 2.79         | 35<br>(8.8)  | 144<br>(36.3) | 101<br>(25.4) | 104<br>(26.2) | 13<br>(3.3) |
|   | 결혼 여부  | 미혼    | 179<br>(100) | 2.09         | 60<br>(33.5) | 69<br>(38.5)  | 30<br>(16.8)  | 14<br>(7.8)   | 6<br>(3.4)  |
|   |        | 기혼    | 633<br>(100) | 2.74         | 49<br>(7.7)  | 254<br>(40.1) | 162<br>(25.6) | 146<br>(23.1) | 22<br>(3.5) |
|   |        | 이혼/별거 | 13<br>(100)  | 2.15         | 1<br>(7.7)   | 10<br>(76.9)  | 1<br>(7.7)    | 1<br>(7.7)    | 0<br>(0.0)  |
|   |        | 사별    | 45<br>(100)  | 3.02         | 2<br>(4.4)   | 10<br>(22.2)  | 19<br>(42.2)  | 13<br>(28.9)  | 1<br>(2.2)  |
|   |        | 사실혼   | 12<br>(100)  | 2.42         | 2<br>(16.7)  | 5<br>(41.7)   | 3<br>(25.0)   | 2<br>(16.7)   | 0<br>(0.0)  |

- 남성의사결정자 역할을 나타내는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2.81점, 여성 2.52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28.4%(그렇다21.2%+매우 그렇다7.2%), ‘그렇지 않다’ 44.8% (그렇지 않다34.8%+전혀 그렇지 않다10%)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20.2%(그렇다18.3%+매우 그렇다1.9%), ‘그렇지 않다’ 55.9%(그렇지 않다41.5%+전혀 그렇지 않다14.4%)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중구 2.70점, 동구 2.61점, 울주군 2.59점, 북구 2.55점, 남구 2.40점, 기타 2.16점으로 중구 2.70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2.16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중구의 경우 ‘그렇다’ 24.1%(그렇다20.5%+매우 그렇다3.6%), ‘그렇지 않다’ 46.3% (그렇지 않다35.2%+전혀 그렇지 않다11.1%)의 비율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그렇다’ 11.4%(그렇다9.1%+매우 그렇다2.3%), ‘그렇지 않다’ 72.7%(그렇지 않다47.7%+전혀 그렇지 않다25%)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60대 이상 2.79점, 50대 2.75점, 40대 2.48점, 30대 2.38점, 20대 2.05점으로 60대 이상 2.79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2.0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60대 이상의 경우 ‘그렇다’ 29.5%(그렇다26.2%+매우 그렇다3.3%), ‘그렇지 않다’ 45.1% (그렇지 않다36.3%+전혀 그렇지 않다8.8%)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8.6%(그렇다6.0%+매우 그렇다2.6%), ‘그렇지 않다’ 72.4%(그렇지 않다38.8%+전혀 그렇지 않다33.6%)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별 3.02점, 기혼 2.74점, 사실혼 2.42점, 이혼/별거 2.15점, 미혼 2.09점으로 사별 3.0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2.09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별의 경우 ‘그렇다’ 31.1%(그렇다28.9%+매우 그렇다2.2%), ‘그렇지 않다’ 26.6% (그렇지 않다22.2%+전혀 그렇지 않다4.4%)의 비율로 나타남. 미혼의 경우 ‘그렇다’ 11.2%(그렇다7.8%+매우 그렇다3.4%), ‘그렇지 않다’ 72%(그렇지 않다38.5%+전혀 그렇지 않다33.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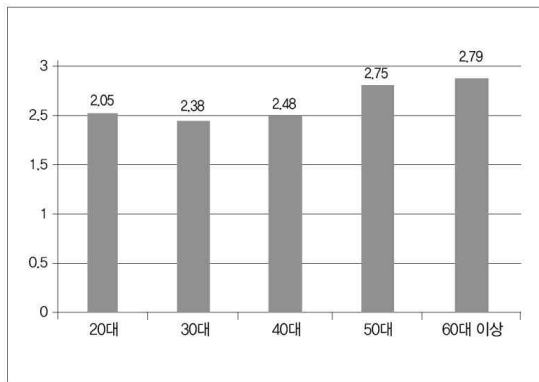
〈그림 II-54〉 성별에 따른 남성의사결정지역함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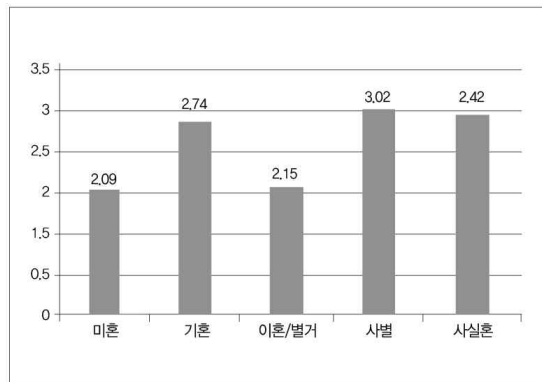
〈그림 II-55〉 지역에 따른 남성의사결정지역함에 관한 평가



〈그림 II-56〉 연령에 따른 남성의사결정지역함에 관한 평가



〈그림 II-57〉 결혼유무에 따른 남성의사결정지역함에 관한 평가



④ 남성전업주부

〈표 II-22〉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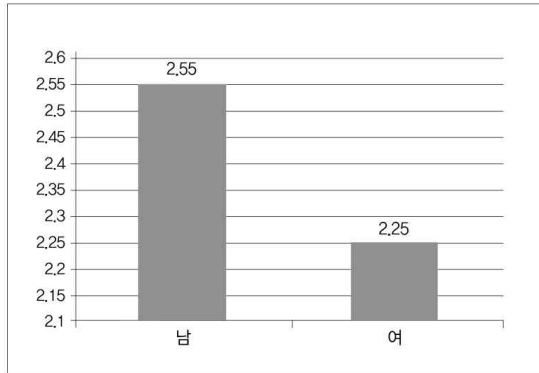
(단위 : 점, 명, %)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 남성이 전업주부가<br>되는 것은<br>부끄러운 일이다. | 성별        | 남            | 253<br>(100) | 2.55            | 48<br>(19.0)  | 92<br>(36.5)  | 55<br>(21.8)  | 39<br>(15.5) | 18<br>(7.1) |
|                                 |           | 여            | 674<br>(100) | 2.25            | 163<br>(24.5) | 278<br>(41.7) | 139<br>(20.9) | 70<br>(10.5) | 16<br>(2.4) |
|                                 | 지역별       | 중            | 384<br>(100) | 2.54            | 74<br>(19.3)  | 123<br>(32.0) | 110<br>(28.6) | 60<br>(15.6) | 17<br>(4.4) |
|                                 |           | 남            | 106<br>(100) | 2.16            | 30<br>(28.3)  | 47<br>(44.3)  | 16<br>(15.1)  | 8<br>(7.5)   | 5<br>(4.7)  |
|                                 |           | 동            | 256<br>(100) | 2.30            | 59<br>(23.0)  | 111<br>(43.4) | 46<br>(18.0)  | 30<br>(11.7) | 10<br>(3.9) |
|                                 |           | 북            | 114<br>(100) | 2.20            | 24<br>(21.1)  | 57<br>(50.0)  | 20<br>(17.5)  | 12<br>(10.5) | 1<br>(0.9)  |
|                                 |           | 울            | 32<br>(100)  | 1.97            | 10<br>(31.3)  | 16<br>(50.0)  | 4<br>(12.5)   | 1<br>(3.1)   | 1<br>(3.1)  |
|                                 |           | 기타           | 44<br>(100)  | 1.86            | 16<br>(36.4)  | 21<br>(47.7)  | 4<br>(9.1)    | 3<br>(6.8)   | 0<br>(0.0)  |
|                                 |           | 연령별          | 20대          | 115<br>(100)    | 1.74          | 61<br>(53.0)  | 34<br>(29.6)  | 13<br>(11.3) | 3<br>(2.6)  |
|                                 | 30대       | 66<br>(100)  | 2.17         | 24<br>(36.4)    | 20<br>(30.3)  | 13<br>(19.7)  | 5<br>(7.6)    | 4<br>(6.1)   |             |
|                                 | 40대       | 66<br>(100)  | 2.21         | 15<br>(22.7)    | 33<br>(50.0)  | 12<br>(18.2)  | 1<br>(1.5)    | 5<br>(7.6)   |             |
|                                 | 50대       | 270<br>(100) | 2.44         | 40<br>(14.8)    | 119<br>(44.1) | 70<br>(25.9)  | 33<br>(12.2)  | 8<br>(3.0)   |             |
|                                 | 60대<br>이상 | 393<br>(100) | 2.54         | 55<br>(14.0)    | 165<br>(42.0) | 89<br>(22.6)  | 73<br>(18.6)  | 11<br>(2.8)  |             |
|                                 | 결혼<br>여부  | 미혼           | 179<br>(100) | 1.83            | 88<br>(49.2)  | 53<br>(29.6)  | 25<br>(14.0)  | 7<br>(3.9)   | 6<br>(3.4)  |
|                                 |           | 기혼           | 629<br>(100) | 2.46            | 96<br>(15.3)  | 280<br>(44.5) | 139<br>(22.1) | 93<br>(14.8) | 21<br>(3.3) |
|                                 |           | 이혼/<br>별거    | 12<br>(100)  | 1.92            | 4<br>(33.3)   | 5<br>(41.7)   | 3<br>(25.0)   | 0<br>(0.0)   | 0<br>(0.0)  |
|                                 |           | 사별           | 46<br>(100)  | 2.70            | 5<br>(10.9)   | 16<br>(34.8)  | 15<br>(32.6)  | 8<br>(17.4)  | 2<br>(4.3)  |
|                                 |           | 사실<br>혼      | 12<br>(100)  | 2.42            | 4<br>(33.3)   | 4<br>(33.3)   | 0<br>(0.0)    | 3<br>(25.0)  | 1<br>(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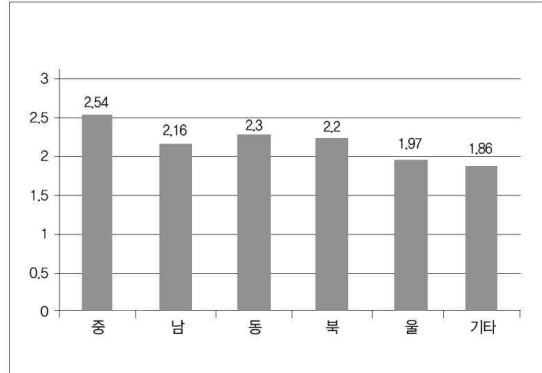


-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2.55점, 여성 2.2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22.6%(그렇다15.5%+매우 그렇다7.1%), ‘그렇지 않다’ 55.5% (그렇지 않다36.5%+전혀 그렇지 않다1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12.9%(그렇다10.5%+매우 그렇다2.4%), ‘그렇지 않다’ 66.2%(그렇지 않다41.7%+전혀 그렇지 않다24.5%)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중구 2.54점, 동구 2.30점, 북구 2.20점, 남구 2.16점, 울주군 1.97점, 기타 1.86점으로 중구 2.54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1.86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중구의 경우 ‘그렇다’ 20%(그렇다15.6%+매우 그렇다4.4%), ‘그렇지 않다’ 51.3% (그렇지 않다32%+전혀 그렇지 않다19.3%)의 비율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그렇다’ 6.8%, ‘그렇지 않다’ 84.1%(그렇지 않다47.7%+전혀 그렇지 않다36.4%)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60대 이상 2.54점, 50대 2.44점, 40대 2.21점, 30대 2.17점, 20대 1.74점으로 60대 이상 2.54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1.74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60대 이상의 경우 ‘그렇다’ 21%(그렇다18.2%+매우 그렇다2.8%), ‘그렇지 않다’ 56% (그렇지 않다42%+전혀 그렇지 않다14%)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6.1%(그렇다2.6%+매우 그렇다3.5%), ‘그렇지 않다’ 82.6%(그렇지 않다29.6%+전혀 그렇지 않다53%)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별 2.70점, 기혼 2.46점, 사실혼 2.42점, 이혼/별거 1.92점, 미혼 1.83점으로 사별 2.70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1.83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별의 경우 ‘그렇다’ 21.7%(그렇다17.4%+매우 그렇다4.3%), ‘그렇지 않다’ 45.7% (그렇지 않다34.8%+전혀 그렇지 않다10.9%)의 비율로 나타남. 미혼의 경우 ‘그렇다’ 7.3%(그렇다3.9%+매우 그렇다3.4%), ‘그렇지 않다’ 78.8%(그렇지 않다29.6%+전혀 그렇지 않다49.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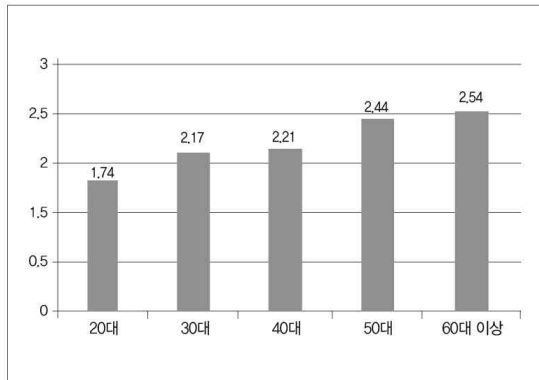
〈그림 II-58〉 성별에 따른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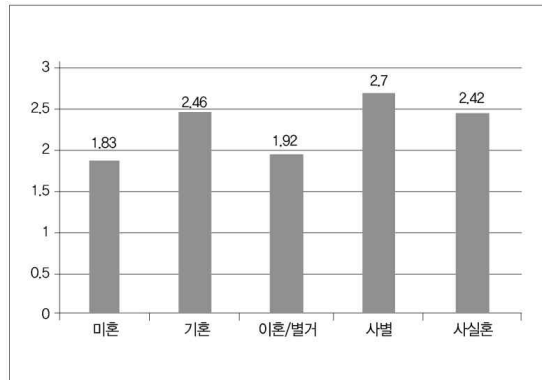
〈그림 II-59〉 지역에 따른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그림 II-60〉 연령에 따른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그림 II-61〉 결혼유무에 따른 남성전업주부에 관한 평가



⑤ 여성 돌봄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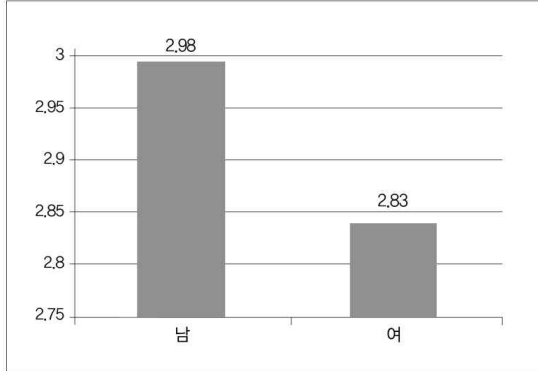
〈표II-23〉 여성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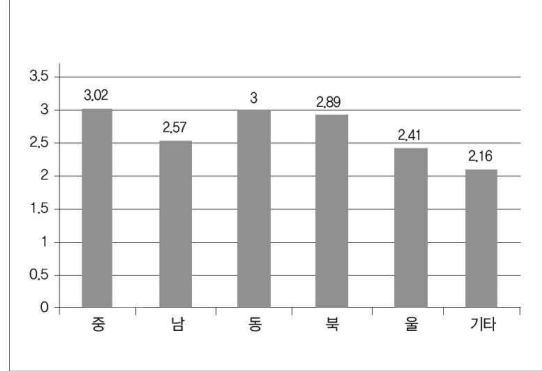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평가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 시해야 한다. | 성별     | 남            | 253<br>(100) | 2.98         | 26<br>(10.4) | 63<br>(25.1)  | 72<br>(28.7)  | 69<br>(27.5)  | 21<br>(8.4) |
|   |        | 여            | 674<br>(100) | 2.83         | 87<br>(13.0) | 200<br>(29.8) | 157<br>(23.4) | 198<br>(28.8) | 34<br>(5.1) |
|   | 지역별    | 중            | 387<br>(100) | 3.02         | 40<br>(10.3) | 100<br>(25.8) | 94<br>(24.3)  | 120<br>(31.0) | 33<br>(8.5) |
|   |        | 남            | 109<br>(100) | 2.57         | 22<br>(20.2) | 33<br>(30.3)  | 27<br>(24.8)  | 24<br>(22.0)  | 3<br>(2.8)  |
|   |        | 동            | 255<br>(100) | 3.00         | 24<br>(9.4)  | 65<br>(25.5)  | 69<br>(27.1)  | 82<br>(32.2)  | 15<br>(5.9) |
|   |        | 북            | 114<br>(100) | 2.89         | 10<br>(8.8)  | 34<br>(29.8)  | 32<br>(28.1)  | 34<br>(29.8)  | 4<br>(3.5)  |
|   |        | 울            | 32<br>(100)  | 2.41         | 6<br>(18.8)  | 14<br>(43.8)  | 6<br>(18.8)   | 5<br>(15.6)   | 1<br>(3.1)  |
|   |        | 기타           | 44<br>(100)  | 2.16         | 13<br>(29.5) | 17<br>(38.6)  | 10<br>(22.7)  | 2<br>(4.5)    | 2<br>(4.5)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2.04         | 45<br>(38.8)  | 36<br>(31.0)  | 24<br>(20.7)  | 7<br>(6.0)  |
|   | 30대    | 66<br>(100)  | 2.71         | 11<br>(16.7) | 20<br>(30.3) | 18<br>(27.3)  | 11<br>(16.7)  | 6<br>(9.1)    |             |
|   | 40대    | 68<br>(100)  | 2.66         | 8<br>(11.8)  | 27<br>(39.7) | 17<br>(25.0)  | 12<br>(17.6)  | 4<br>(5.9)    |             |
|   | 50대    | 270<br>(100) | 3.11         | 14<br>(5.2)  | 75<br>(27.8) | 66<br>(24.4)  | 98<br>(36.3)  | 17<br>(6.3)   |             |
|   | 60대 이상 | 395<br>(100) | 3.10         | 25<br>(6.3)  | 99<br>(25.1) | 110<br>(27.8) | 135<br>(34.2) | 26<br>(6.6)   |             |
|   | 결혼 여부  | 미혼           | 180<br>(100) | 2.12         | 63<br>(35.0) | 58<br>(32.2)  | 40<br>(22.2)  | 12<br>(6.7)   | 7<br>(3.9)  |
|   |        | 기혼           | 635<br>(100) | 3.06         | 39<br>(6.1)  | 181<br>(28.5) | 159<br>(25.0) | 217<br>(34.2) | 39<br>(6.1) |
|   |        | 이혼/별거        | 13<br>(100)  | 3.08         | 1<br>(7.7)   | 3<br>(23.1)   | 4<br>(30.8)   | 4<br>(30.8)   | 1<br>(7.7)  |
|   |        | 사별           | 44<br>(100)  | 3.45         | 2<br>(4.5)   | 3<br>(6.8)    | 17<br>(38.6)  | 17<br>(38.6)  | 5<br>(11.4) |
|   |        | 사실혼          | 12<br>(100)  | 3.58         | 1<br>(8.3)   | 0<br>(0.0)    | 3<br>(25.0)   | 7<br>(58.3)   | 1<br>(8.3)  |

- 여성에게 돌봄 책임자 역할을 우선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항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 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한다.’에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2.98점, 여성 2.83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5.9%(그렇다27.5%+매우 그렇다8.4%), ‘그렇지 않다’ 35.5% (그렇지 않다25.1%+전혀 그렇지 않다10.4%)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33.9%(그렇다28.8%+매우 그렇다5.1%), ‘그렇지 않다’ 42.8%(그렇지 않다29.8%+전혀 그렇지 않다13%)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중구 3.02점, 동구 3.00점, 북구 2.89점, 남구 2.57점, 울주군 2.41점, 기타 2.16점으로 중구 3.0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2.16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중구의 경우 ‘그렇다’ 39.5%(그렇다31%+매우 그렇다8.5%), ‘그렇지 않다’ 36.1% (그렇지 않다25.8%+전혀 그렇지 않다10.3%)의 비율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그렇다’ 9%(그렇다4.5%+매우 그렇다4.5%), ‘그렇지 않다’ 68.1%(그렇지 않다38.6%+전혀 그렇지 않다29.5%)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50대 3.11점, 60대 이상 3.10점, 30대 2.71점, 40대 2.66점, 20대 2.04점으로 50대 3.11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2.04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50대의 경우 ‘그렇다’ 42.6%(그렇다36.3%+매우 그렇다6.3%), ‘그렇지 않다’ 33% (그렇지 않다27.8%+전혀 그렇지 않다5.2%)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9.4%(그렇다6%+매우 그렇다3.4%), ‘그렇지 않다’ 69.8%(그렇지 않다31%+전혀 그렇지 않다38.8%)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58점, 사별 3.45점, 이혼/별거 3.08점, 기혼 3.06점, 미혼 2.12점이 사실혼 3.58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2.12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66.3%(그렇다58.3%+매우 그렇다8.3%), ‘그렇지 않다’ 8.3%의 비율로 나타남. 미혼의 경우 ‘그렇다’ 10.6%(그렇다6.7%+매우 그렇다3.9%), ‘그렇지 않다’ 67.2%(그렇지 않다32.2%+전혀 그렇지 않다3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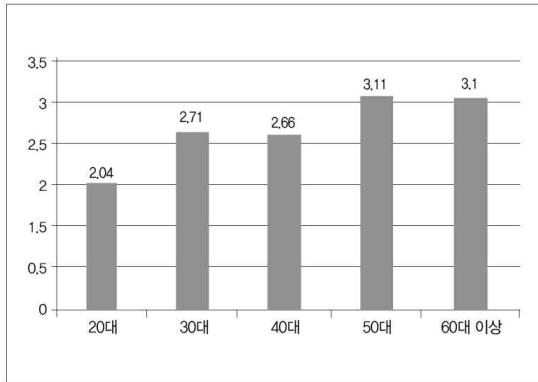
〈그림II-62〉 성별에 따른 여성의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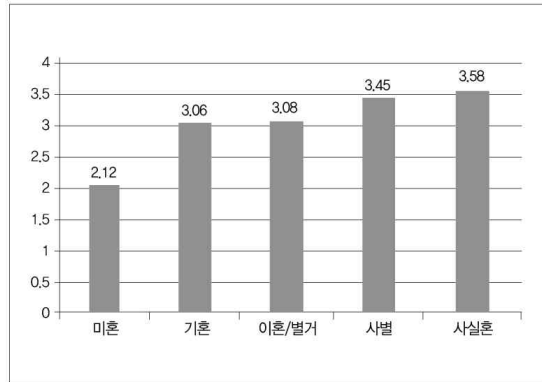
〈그림II-63〉 지역에 따른 여성의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그림II-64〉 연령에 따른 여성의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그림II-65〉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의 돌봄책임자에 관한 평가



(2) 일에서의 성 역할 분리태도

〈표 II-24〉 일에서의 성 역할 분리태도

(단위 : 명, %)

| 문항                 |  | 계<br>(전체) | 평점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여초<br>직종에<br>남성 진출 |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br>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br>진출해야한다             | 969       | 3.16 | 57              | 205             | 355      | 285        | 67        |
|                    |  | 100       |      | 5.9             | 21.2            | 36.6     | 29.4       | 6.9       |
| 남초<br>직종에<br>여성 진출 |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br>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br>한다            | 970       | 3.10 | 67              | 208             | 377      | 250        | 68        |
|                    |  | 100       |      | 6.9             | 21.4            | 38.9     | 25.8       | 7.0       |
| 생계부양자<br>에서 남성우선   |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br>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br>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973       | 2.44 | 230             | 343             | 211      | 159        | 30        |
|                    |  | 100       |      | 23.6            | 35.3            | 21.7     | 16.3       | 3.1       |

- 먼저, ‘일에서의 성 역할 분리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은 총 3문항으로 공-사 이분법과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이 공적영역에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적합한 일과 남성에게 적합 일이 구분된다고 보는 태도를 가진다고 봄(여성가족부, 2017). 예를 들면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주로 사적 영역(가정)에서 해오던 가사와 양육 및 돌봄과 관련된 특징이고,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일의 영역보다 사회적 지위, 임금 등이 낮은 직업들인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태도가 일에서 성별 직종 분리 태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에서의 성 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즉 성별 직종분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총 3문항으로 질문하였음.
- ‘여초 직종에 남성 진출’을 나타내는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와 ‘남초 직종에 여성 진출’을 나타내는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생계부양자에서 남성우선’을 나타내는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구성되어 있음.
- 그 결과 일에서의 성역할 분리태도에서 여성영역과 남성영역 간의 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고,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임.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3.16점으로, ‘그렇다’ 36.3%(대체로 그렇다29.4%+매우 그렇다6.9%), ‘그렇지 않다’ 27.1%(별로 그렇지 않다21.2%+전혀 그렇지 않다5.9%)로 나타나 여초 직종에 남성의 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한다.’는 3.10점으로, ‘그렇다’ 32.8%(대체로 그렇다25.8%+매우 그렇다7%), ‘그렇지 않다’ 28.3%(별로 그렇지 않다21.4%+전혀 그렇지 않다6.9%)의 비율로 나타나 남초 직종에 여성의 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44점으로, ‘그렇다’ 19.4%(대체로 그렇다16.3%+매우 그렇다3.1%), ‘그렇지 않다’ 58.9%(별로 그렇지 않다35.3%+전혀 그렇지 않다23.6%)의 비율로 나타나, 대체로 감원 시 여성 우선 해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일에서의 성역할 분리태도에 대해 여성영역과 남성영역 간의 진입에 대해 긍정적이고, 생계부양부담자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음.

①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

〈표 II -25〉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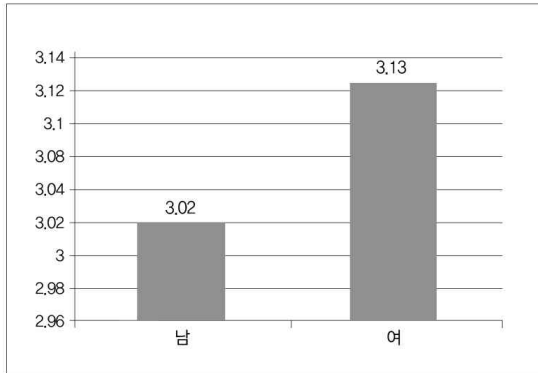
(단위 : 점, 명, %)

| 문항                                 | 구분     |              | 평점           | 전혀           | 그렇지          | 보통            | 그렇다           | 매우            |              |
|------------------------------------|--------|--------------|--------------|--------------|--------------|---------------|---------------|---------------|--------------|
|                                    |        |              |              | 그렇지 않다       | 않다           | 이다            | 그렇다           | 그렇다           |              |
|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한다 | 성별     | 남            | 253<br>(100) | 3.02         | 15<br>(5.9)  | 64<br>(25.2)  | 91<br>(35.8)  | 70<br>(27.6)  | 14<br>(5.5)  |
|                                    |        | 여            | 674<br>(100) | 3.13         | 39<br>(5.8)  | 134<br>(19.9) | 251<br>(37.2) | 201<br>(29.8) | 49<br>(7.3)  |
|                                    | 지역별    | 중            | 390<br>(100) | 3.14         | 21<br>(5.4)  | 71<br>(18.2)  | 157<br>(40.3) | 113<br>(29.0) | 28<br>(7.2)  |
|                                    |        | 남            | 108<br>(100) | 3.23         | 3<br>(2.8)   | 21<br>(19.4)  | 40<br>(37.0)  | 36<br>(33.3)  | 8<br>(7.4)   |
|                                    |        | 동            | 257<br>(100) | 3.08         | 17<br>(6.6)  | 61<br>(23.7)  | 83<br>(32.3)  | 77<br>(30.0)  | 19<br>(7.4)  |
|                                    |        | 북            | 115<br>(100) | 3.03         | 3<br>(2.6)   | 28<br>(24.3)  | 49<br>(42.6)  | 32<br>(27.8)  | 3<br>(2.6)   |
|                                    |        | 울            | 32<br>(100)  | 3.09         | 4<br>(12.5)  | 6<br>(18.8)   | 7<br>(21.9)   | 13<br>(40.6)  | 2<br>(6.3)   |
|                                    |        | 기타           | 43<br>(100)  | 3.00         | 5<br>(11.6)  | 11<br>(25.6)  | 12<br>(27.9)  | 9<br>(20.9)   | 6<br>(14.0)  |
|                                    |        | 연령별          | 20대          | 115<br>(100) | 2.95         | 13<br>(11.3)  | 24<br>(20.9)  | 48<br>(41.7)  | 16<br>(13.9) |
|                                    | 30대    | 66<br>(100)  | 3.23         | 5<br>(7.6)   | 13<br>(19.7) | 18<br>(27.3)  | 22<br>(33.3)  | 8<br>(12.1)   |              |
|                                    | 40대    | 68<br>(100)  | 3.16         | 4<br>(5.9)   | 12<br>(17.6) | 26<br>(38.2)  | 21<br>(30.9)  | 5<br>(7.4)    |              |
|                                    | 50대    | 271<br>(100) | 3.14         | 4<br>(1.5)   | 58<br>(21.4) | 117<br>(43.2) | 79<br>(29.2)  | 13<br>(4.8)   |              |
|                                    | 60대 이상 | 398<br>(100) | 3.12         | 24<br>(6.0)  | 89<br>(22.4) | 126<br>(31.7) | 135<br>(33.9) | 24<br>(6.0)   |              |
|                                    | 결혼 여부  | 미혼           | 179<br>(100) | 3.04         | 19<br>(10.6) | 34<br>(19.0)  | 67<br>(37.4)  | 39<br>(21.8)  | 20<br>(11.2) |
|                                    |        | 기혼           | 637<br>(100) | 3.12         | 24<br>(3.8)  | 145<br>(22.8) | 235<br>(36.9) | 197<br>(30.9) | 36<br>(5.7)  |
|                                    |        | 이혼/별거        | 13<br>(100)  | 3.23         | 0<br>(0.0)   | 2<br>(15.4)   | 6<br>(46.2)   | 5<br>(38.5)   | 0<br>(0.0)   |
|                                    |        | 사별           | 46<br>(100)  | 3.33         | 2<br>(4.3)   | 6<br>(13.0)   | 17<br>(37.0)  | 17<br>(37.0)  | 4<br>(8.7)   |
|                                    |        | 사실혼          | 12<br>(100)  | 3.67         | 1<br>(8.3)   | 1<br>(8.3)    | 1<br>(8.3)    | 7<br>(58.3)   | 2<br>(1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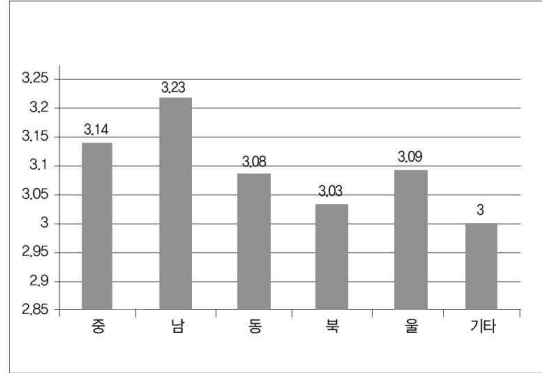


-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을 나타내는 문항인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점은 남성 3.02점, 여성 3.13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3.1%(그렇다27.6%+매우 그렇다5.5%), ‘그렇지 않다’ 31.1%(그렇지 않다25.2%+전혀 그렇지 않다5.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37.1%(그렇다29.8%+매우 그렇다7.3%), ‘그렇지 않다’ 25.7%(그렇지 않다19.9%+전혀 그렇지 않다5.8%)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구 3.23점, 중구 3.14점, 울주군 3.09점, 동구 3.08점, 북구 3.03점, 기타 3.00점으로 남구 3.23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3.00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남구의 경우 ‘그렇다’ 40.7%(그렇다33.3%+매우 그렇다7.4%), ‘그렇지 않다’ 22.2%(그렇지 않다19.4%+전혀 그렇지 않다2.8%)의 비율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그렇다’ 34.9%(그렇다20.9%+매우 그렇다14%), ‘그렇지 않다’ 37.2%(그렇지 않다25.6%+전혀 그렇지 않다11.6%)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30대 3.23점, 40대 3.16점, 50대 3.14점, 60대 이상 3.12점, 20대 2.95점으로 30대 3.23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2.9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30대의 경우 ‘그렇다’ 45.4%(그렇다33.3%+매우 그렇다 12.1%), ‘그렇지 않다’ 27.3%(그렇지 않다19.7%+전혀 그렇지 않다7.6%)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26.1%(그렇다13.9%+매우 그렇다12.2%), ‘그렇지 않다’ 32.2%(그렇지 않다20.9%+전혀 그렇지 않다11.3%)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67점, 사별 3.33점, 이혼/별거 3.23점, 기혼 3.12점, 미혼 3.04점으로 사실혼 3.67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3.04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75%(그렇다58.3%+매우 그렇다16.7%), ‘그렇지 않다’ 16.6%(그렇지 않다8.3%+전혀 그렇지 않다8.3%)의 비율로 나타남. 미혼의 경우 ‘그렇다’ 33%(그렇다21.8%+매우 그렇다11.2%), ‘그렇지 않다’ 29.6%(그렇지 않다19%+전혀 그렇지 않다10.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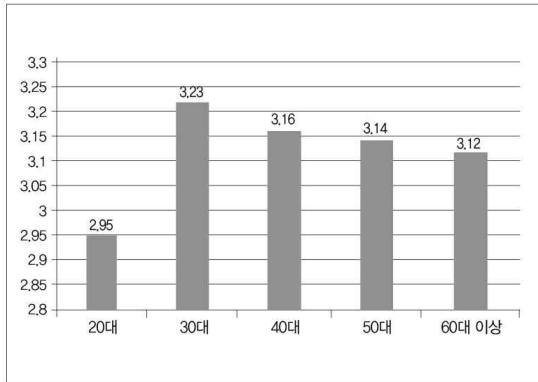
〈그림II-66〉 성별에 따른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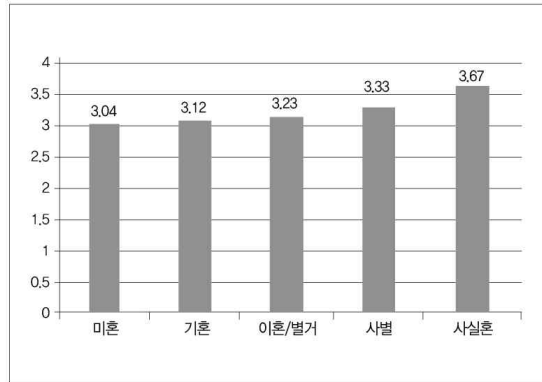
〈그림II-67〉 지역에 따른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그림II-68〉 연령에 따른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그림II-69〉 결혼여부에 따른 여초직종에 남성 진출에 관한 평가



②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

〈표 II-26〉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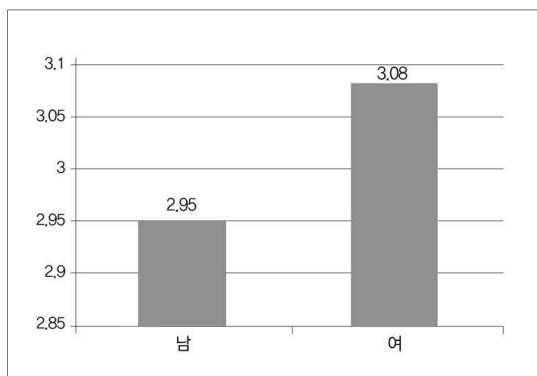
(단위 : 점, 명, %)

| 문항                                  | 구분     |       | 평점           | 평가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 성별     | 남     | 253<br>(100) | 2.95         | 21<br>(8.2)  | 69<br>(27.0)  | 84<br>(32.8)  | 67<br>(26.2)  | 15<br>(5.9)  |
|                                     |        | 여     | 674<br>(100) | 3.08         | 43<br>(6.4)  | 130<br>(19.3) | 279<br>(41.5) | 170<br>(25.3) | 51<br>(7.6)  |
|                                     | 지역별    | 중     | 389<br>(100) | 3.00         | 29<br>(7.5)  | 79<br>(20.3)  | 168<br>(43.2) | 88<br>(22.6)  | 25<br>(6.4)  |
|                                     |        | 남     | 108<br>(100) | 3.16         | 4<br>(3.7)   | 26<br>(24.1)  | 38<br>(35.2)  | 29<br>(26.9)  | 11<br>(10.2) |
|                                     |        | 동     | 259<br>(100) | 3.06         | 15<br>(5.8)  | 63<br>(24.3)  | 91<br>(35.1)  | 72<br>(27.8)  | 18<br>(6.9)  |
|                                     |        | 북     | 115<br>(100) | 3.06         | 5<br>(4.3)   | 21<br>(18.3)  | 53<br>(46.1)  | 34<br>(29.6)  | 2<br>(1.7)   |
|                                     |        | 남     | 31<br>(100)  | 2.87         | 6<br>(19.4)  | 6<br>(19.4)   | 6<br>(19.4)   | 12<br>(38.7)  | 1<br>(3.2)   |
|                                     |        | 기타    | 43<br>(100)  | 3.12         | 5<br>(11.6)  | 7<br>(16.3)   | 16<br>(37.2)  | 8<br>(18.6)   | 7<br>(16.3)  |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2.93         | 15<br>(12.9)  | 22<br>(19.0)  | 48<br>(41.4)  | 18<br>(15.5) |
|                                     | 30대    |       | 66<br>(100)  | 3.20         | 6<br>(9.1)   | 11<br>(16.7)  | 22<br>(33.3)  | 18<br>(27.3)  | 9<br>(13.6)  |
|                                     | 40대    |       | 68<br>(100)  | 3.37         | 3<br>(4.4)   | 6<br>(8.8)    | 29<br>(42.6)  | 23<br>(33.8)  | 7<br>(10.3)  |
|                                     | 50대    |       | 272<br>(100) | 3.12         | 7<br>(2.6)   | 57<br>(21.2)  | 115<br>(42.8) | 77<br>(28.6)  | 13<br>(4.8)  |
|                                     | 60대 이상 |       | 392<br>(100) | 2.96         | 27<br>(6.8)  | 104<br>(26.1) | 146<br>(36.6) | 102<br>(25.6) | 20<br>(5.0)  |
|                                     | 결혼 여부  | 미혼    | 180<br>(100) | 3.01         | 23<br>(12.8) | 30<br>(16.7)  | 70<br>(38.9)  | 37<br>(20.6)  | 20<br>(11.1) |
|                                     |        | 기혼    | 635<br>(100) | 3.07         | 27<br>(4.3)  | 149<br>(23.5) | 244<br>(38.4) | 180<br>(28.3) | 35<br>(5.5)  |
|                                     |        | 이혼/별거 | 13<br>(100)  | 3.08         | 0<br>(0.0)   | 3<br>(23.1)   | 6<br>(46.2)   | 4<br>(30.8)   | 0<br>(0.0)   |
|                                     |        | 사별    | 46<br>(100)  | 3.02         | 5<br>(10.9)  | 7<br>(15.2)   | 21<br>(45.7)  | 8<br>(17.4)   | 5<br>(10.9)  |
|                                     |        | 사실혼   | 12<br>(100)  | 3.17         | 0<br>(0.0)   | 5<br>(41.7)   | 1<br>(8.3)    | 5<br>(41.7)   | 1<br>(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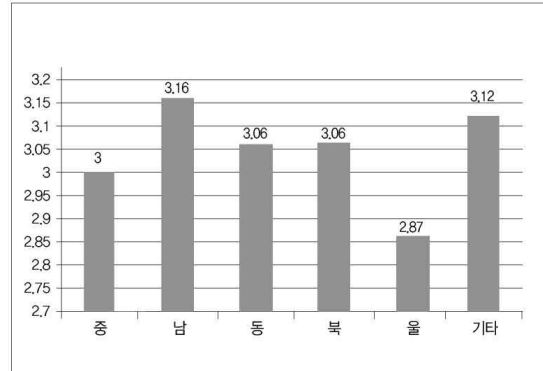
○ 남초직종에 여성진출을 나타내는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에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2.95점, 여성 3.08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32.1%(그렇다26.2%+매우 그렇다5.9%), ‘그렇지 않다’ 35.2%(그렇지 않다27%+전혀 그렇지 않다8.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32.9%(그렇다25.3%+매우 그렇다7.6%), ‘그렇지 않다’ 25.7%(그렇지 않다19.3%+전혀 그렇지 않다6.4%)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구 3.16점, 기타 3.12점, 동구, 북구 3.06점, 중구 3.00점, 울주군 2.87점으로 남구 3.16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울주군 2.87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남구의 경우, ‘그렇다’ 37.1%(그렇다26.9%+매우 그렇다10.2%), ‘그렇지 않다’ 27.8%(그렇지 않다24.1%+전혀 그렇지 않다3.7%)의 비율로 나타남. 울주군의 경우 ‘그렇다’ 41.9%(그렇다38.7%+매우 그렇다3.2%), ‘그렇지 않다’ 38.8%(그렇지 않다19.4%+전혀 그렇지 않다19.4%)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40대 3.37점, 30대 3.20점, 50대 3.12점, 60대 이상 2.96점, 20대 2.93점으로 40대 3.37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2.93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40대의 경우, ‘그렇다’ 44.1%(그렇다33.8%+매우 그렇다10.3%), ‘그렇지 않다’ 13.2%(그렇지 않다8.8%+전혀 그렇지 않다4.4%)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26.7%(그렇다15.5%+매우 그렇다11.2%), ‘그렇지 않다’ 31.9%(그렇지 않다19%+전혀 그렇지 않다12.9%)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실혼 3.17점, 이혼/별거 3.08점, 기혼 3.07점, 사별 3.02점, 미혼 3.01점으로 사실혼 3.17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 3.01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실혼의 경우, ‘그렇다’ 50%(그렇다41.7%+매우 그렇다8.3%), ‘그렇지 않다’ 41.7%의 비율로 나타남. 미혼의 경우 ‘그렇다’ 31.7%(그렇다20.6%+매우 그렇다11.1%), ‘그렇지 않다’ 29.5%(그렇지 않다16.7%+전혀 그렇지 않다12.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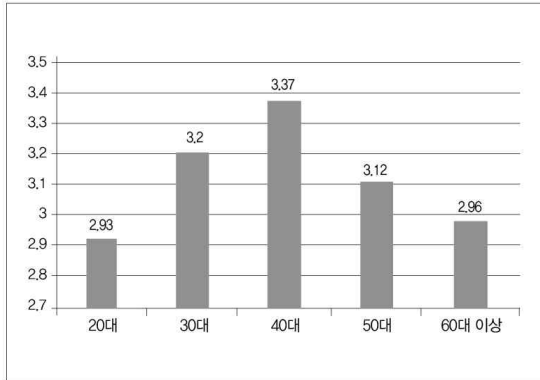
〈그림II-70〉 성별에 따른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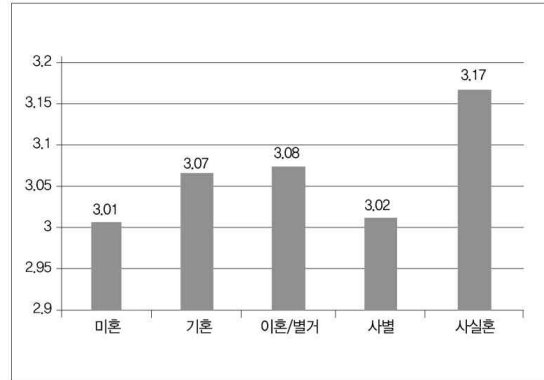
〈그림II-71〉 지역에 따른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그림II-72〉 연령에 따른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그림II-73〉 결혼여부에 따른 남초직종에 여성 진출에 관한 평가



③ 생계부양자에서 남성우선

〈표II-27〉 남성 생계부양자에 관한 평가

(단위 : 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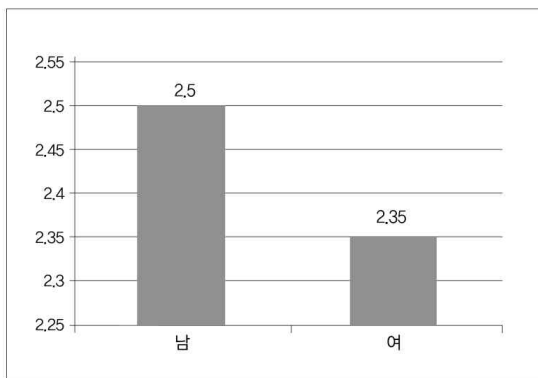
| 문항   | 구분  |     | 평점           | 평가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성별  | 남   | 253<br>(100) | 2.50      | 49<br>(19.1)  | 92<br>(35.9)  | 63<br>(24.6)  | 41<br>(16.0)  | 11<br>(4.3) |
|  |     | 여   | 674<br>(100) | 2.35      | 175<br>(25.9) | 234<br>(34.6) | 140<br>(20.7) | 112<br>(16.6) | 15<br>(2.2) |
|  | 지역별 | 중   | 390<br>(100) | 2.55      | 77<br>(19.7)  | 131<br>(33.6) | 88<br>(22.6)  | 80<br>(20.5)  | 14<br>(3.6) |
|  |     | 남   | 108<br>(100) | 2.15      | 37<br>(34.3)  | 36<br>(33.3)  | 21<br>(19.4)  | 10<br>(9.3)   | 4<br>(3.7)  |
|  |     | 동   | 259<br>(100) | 2.40      | 55<br>(21.2)  | 99<br>(38.2)  | 57<br>(22.0)  | 43<br>(16.6)  | 5<br>(1.9)  |
|  |     | 북   | 115<br>(100) | 2.37      | 26<br>(22.6)  | 42<br>(36.5)  | 28<br>(24.3)  | 16<br>(13.9)  | 3<br>(2.6)  |
|  |     | 울   | 32<br>(100)  | 2.13      | 11<br>(34.4)  | 13<br>(40.6)  | 3<br>(9.4)    | 3<br>(9.4)    | 2<br>(6.3)  |
|  |     | 기타  | 44<br>(100)  | 1.95      | 17<br>(38.6)  | 17<br>(38.6)  | 6<br>(13.6)   | 3<br>(6.8)    | 1<br>(2.3)  |
|  | 연령별 | 20대 | 116<br>(100) | 2.02      | 50<br>(43.1)  | 28<br>(24.1)  | 27<br>(23.3)  | 8<br>(6.9)    | 3<br>(2.6)  |
|  |     | 30대 | 66<br>(100)  | 2.09      | 25<br>(37.9)  | 18<br>(27.3)  | 16<br>(24.2)  | 6<br>(9.1)    | 1<br>(1.5)  |
|  |     | 40대 | 68<br>(100)  | 2.09      | 25<br>(36.8)  | 21<br>(30.9)  | 16<br>(23.5)  | 3<br>(4.4)    | 3<br>(4.4)  |
|  |     | 50대 | 270          | 2.53      | 45            | 107           | 55            | 56            | 7           |

|  |       |        |              |      |               |               |               |               |             |
|--|-------|--------|--------------|------|---------------|---------------|---------------|---------------|-------------|
|  |       |        | (100)        |      | (16.7)        | (39.6)        | (20.4)        | (20.7)        | (2.6)       |
|  |       | 60대 이상 | 401<br>(100) | 2.57 | 64<br>(16.0)  | 156<br>(38.9) | 85<br>(21.2)  | 81<br>(20.2)  | 15<br>(3.7) |
|  | 결혼 여부 | 미혼     | 180<br>(100) | 2.01 | 75<br>(41.7)  | 49<br>(27.2)  | 40<br>(22.2)  | 12<br>(6.7)   | 4<br>(2.2)  |
|  |       | 기혼     | 637<br>(100) | 2.47 | 119<br>(18.7) | 251<br>(39.4) | 130<br>(20.4) | 120<br>(18.8) | 17<br>(2.7) |
|  |       | 이혼/별거  | 13<br>(100)  | 1.92 | 4<br>(30.8)   | 7<br>(53.8)   | 1<br>(7.7)    | 1<br>(7.7)    | 0<br>(0.0)  |
|  |       | 사별     | 46<br>(100)  | 2.59 | 12<br>(26.1)  | 9<br>(19.6)   | 15<br>(32.6)  | 6<br>(13.0)   | 4<br>(8.7)  |
|  |       | 사실혼    | 12<br>(100)  | 2.58 | 1<br>(8.3)    | 6<br>(50.0)   | 2<br>(16.7)   | 3<br>(25.0)   | 0<br>(0.0)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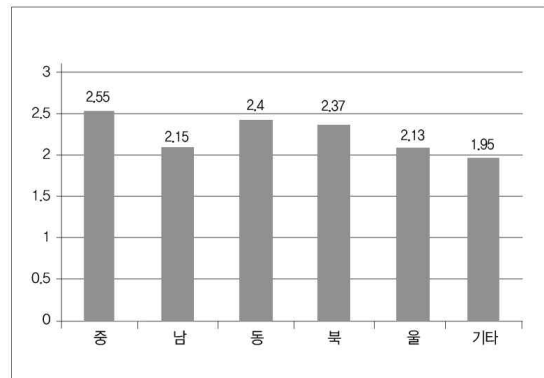
- 생계부양자에서 남성우선을 나타내는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에 대해 성별, 지역,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2.50점, 여성 2.3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그렇다’ 20.3%(그렇다16%+매우 그렇다4.3%), ‘그렇지 않다’ 55%(그렇지 않다35.9%+전혀 그렇지 않다19.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렇다’ 18.8%(그렇다16.6%+매우 그렇다2.2%), ‘그렇지 않다’ 60.5%(그렇지 않다34.6%+전혀 그렇지 않다25.9%)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중구 2.55점, 동구 2.40점, 북구 2.37점, 남구 2.15점, 울주군 2.13점, 기타 1.95점으로 중구 2.5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기타 1.9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중구의 경우 ‘그렇다’ 24.1%(그렇다20.5%+매우 그렇다3.6%), ‘그렇지 않다’ 53.3%(그렇지 않다33.6%+전혀 그렇지 않다19.7%)의 비율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그렇다’ 9.1%(그렇다6.8%+매우 그렇다2.3%), ‘그렇지 않다’ 77.2%(그렇지 않다38.6%+전혀 그렇지 않다38.6%)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60대 이상 2.57점, 50대 2.53점, 30대, 40대 2.09점, 20대 2.02점으로 60대 이상 2.57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20대 2.02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60대 이상의 경우, ‘그렇다’ 23.9%(그렇다20.2%+매우 그렇다3.7%), ‘그렇지 않다’ 54.9%(그렇지 않다38.9%+전혀 그렇지 않다16%)의 비율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그렇다’ 9.5%(그렇다6.9%+매우 그렇다2.6%), ‘그렇지 않다’ 67.2%(그렇지 않다24.1%+전혀 그렇지 않다43.1%)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사별 2.59점, 사실혼 2.58점, 기혼 2.47점, 미혼

2.01점, 이혼/별거 1.92점으로 사별 2.59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이혼/별거 1.92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사별의 경우 ‘그렇다’ 21.7%(그렇다13%+매우 그렇다8.7%), ‘그렇지 않다’ 45.7%(그렇지 않다19.6%+전혀 그렇지 않다26.1%)의 비율로 나타남. 이혼/별거의 경우 ‘그렇다’ 7.7%, ‘그렇지 않다’ 84.6%(그렇지 않다53.8%+전혀 그렇지 않다30.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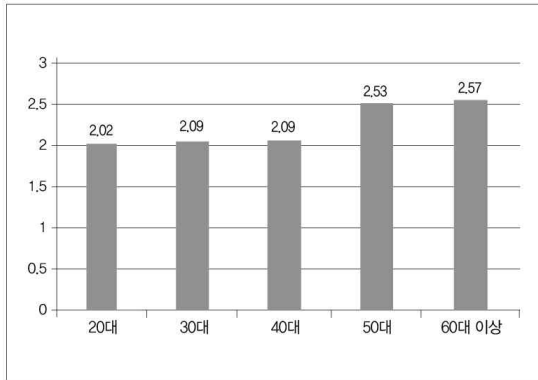
〈그림II-74〉 성별에 따른 생계부양지에서 남성우선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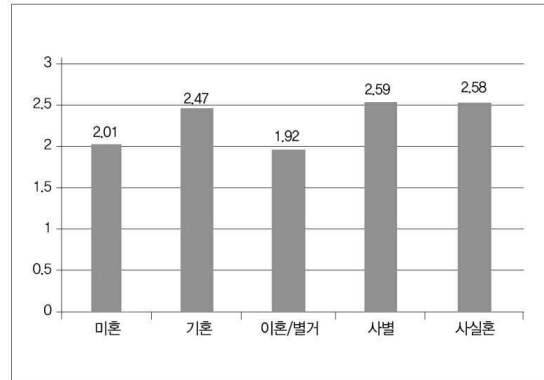
〈그림II-75〉 지역에 따른 생계부양지에서 남성우선에 관한 평가



〈그림II-76〉 연령에 따른 생계부양지에서 남성우선에 관한 평가



〈그림II-77〉 결혼유무에 따른 생계부양지에서 남성우선에 관한 평가



### 5) 성평등을 위해 긴급 추진되어야 할 정책

〈표 II-28〉 성평등을 위해 긴급 추진되어야 할 정책

(단위 : 명, %)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2+3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전체   | 958 | 100  | 956 | 100  | 948 | 100  | 2,862   | 100  |
| <b>양성평등문화 확산</b>   |     |      |     |      |     |      |         |      |
|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의 문제                               | 215 | 22.4 | 98  | 10.3 | 184 | 19.4 | 497     | 17.4 |
| <b>일과 가정 양립확산정책</b>  |     |      |     |      |     |      |         |      |
| -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   | 187 | 19.5 | 198 | 20.7 | 120 | 12.7 | 505     | 17.6 |
| <b>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분야 참여</b>  |     |      |     |      |     |      |         |      |
| - 국회의원, 시·구·군의원, 공공기관 및 기업 임원 등에서 여성들의 숫자가 적은 문제                             | 73  | 7.6  | 108 | 11.3 | 109 | 11.5 | 290     | 10.1 |
| <b>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b>   |     |      |     |      |     |      |         |      |
| -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보수가 남성 근로자의 보수에 비해 적은 문제<br>-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은 문제 | 195 | 20.4 | 180 | 18.8 | 107 | 11.3 | 482     | 16.8 |
| <b>복지증진</b>  |     |      |     |      |     |      |         |      |
| - 빈곤집단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율이 높은 문제  | 111 | 11.6 | 155 | 16.2 | 116 | 12.2 | 382     | 13.3 |
| <b>안전한 도시환경</b>  |     |      |     |      |     |      |         |      |
| -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정, 성, 데이트 폭력 등)  | 95  | 9.9  | 116 | 12.1 | 134 | 14.1 | 345     | 12.1 |
| <b>건강과 보건</b>  |     |      |     |      |     |      |         |      |
| -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건강위험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특화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                           | 81  | 8.5  | 98  | 10.3 | 175 | 18.5 | 354     | 12.4 |
| <b>기타</b>  | 1   | 0.1  | 3   | 0.3  | 3   | 0.3  | 7       | 0.2  |

- 성평등을 위해 긴급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 ‘일과 가정 양립확산 정책’,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 분야 참여’,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해소’, ‘복지증진’, ‘안전한 도시환경’, ‘건강과 보건’ 및 ‘기타’에 대해 질문하였음.
- 조사 결과 1순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215명(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 195명(20.4%), ‘일과 가정 양립확산정책’ 187(19.5%), ‘안전한 도시환경’ 95명(9.9%), ‘건강과 보건’ 81명(8.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분야 참여’ 73명(7.6%), ‘기타’ 1명(0.1%)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는 ‘일과 가정 양립확산정책’이 198명(2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 180명(18.8%), ‘복지증진’ 155명(16.2%), ‘안전한



- 도시환경' 116명(12.1%),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분야 참여' 108명(11.3%), '건강과 보건의', '양성평등문화 확산' 98명(10.3%), '기타' 3명(0.3%) 순으로 나타남.
- 3순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184명(1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과 보건의' 175명(18.5%), '안전한 도시환경' 134명(14.1%), '일과 가정 양립확산정책' 120명(12.7%), '복지증진' 116명(12.2%),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분야 참여' 109명(11.5%),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 107명(11.3%), '기타' 3명(0.3%)순으로 나타남.
  - 1+2+3순위를 종합해보면, '일과 가정 양립 확산 정책'이 505명(1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497명(17.4%),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가 482명(16.8%), '복지증진'이 382명(13.3%), '건강과 보건의'이(12.4%), '안전한 도시환경'이 345명(12.1%),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 분야 참여'가 290명(10.1%), 기타 7명(0.2명)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해보면, 성평등을 위해 긴급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1순위로 '양성평등 문화확산'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순위로는 '일과 가정 양립 확산 정책'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1) 양성평등문화 확산

〈표II-29〉 양성평등문화 확산

(단위 : 명, %)

| 구분  |        | 1순위   |      |      |
|---|--------|-------|------|------|
|   |        | 빈도    | 비율   |      |
| 양성평등문화 확산<br>-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의 문제 | 성별     | 남     | 65   | 31.6 |
|   |        | 여     | 141  | 68.4 |
|   | 지역별    | 중     | 79   | 37.3 |
|   |        | 남     | 25   | 11.8 |
|   |        | 동     | 61   | 28.8 |
|   |        | 북     | 32   | 15.1 |
|   |        | 울     | 7    | 3.3  |
|   |        | 기타    | 8    | 3.8  |
|   |        | 연령별   | 20대  | 37   |
|   | 30대    | 12    | 6.0  |      |
|   | 40대    | 11    | 5.5  |      |
|   | 50대    | 54    | 26.9 |      |
|   | 60대 이상 | 87    | 43.3 |      |
|   | 결혼 여부  | 미혼    | 49   | 24.5 |
|   |        | 기혼    | 138  | 69.0 |
|   |        | 이혼/별거 | 5    | 2.5  |
|   |        | 사별    | 5    | 2.5  |
|   |        | 사실혼   | 2    | 1.0  |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1순위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성별, 거주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이 141명(68.4%), 남성이 65명(31.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구가 79명(37.3%)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동구 61명(28.8%), 북구 32명(15.1%), 남구 25명(11.8%), 기타 8명(3.8%), 울주군 7명(3.3%)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이 87명(43.3%)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50대 54명(26.9%), 20대 37명(18.4%), 30대 12명(6.0%), 40대 11명(5.5%) 순으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기혼이 138명(69.0%)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미혼 49명(24.5%), 이혼/별거 5명(2.5%), 사별 5명(2.5%), 사실혼 2명(1.0%) 순으로 나타남.

(2) 일과 가정 양립확산정책

〈표Ⅱ-30〉 일과 가정 양립확산정책

(단위 : 명, %)

| 구분   |        | 1순위   |     |      |
|--|--------|-------|-----|------|
|  |        | 빈도    | 비율  |      |
| 일과 가정 양립확산정책<br>-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 | 성별     | 남     | 44  | 24.4 |
|  |        | 여     | 136 | 75.6 |
|  | 지역별    | 중     | 64  | 35.0 |
|  |        | 남     | 20  | 10.9 |
|  |        | 동     | 58  | 31.7 |
|  |        | 북     | 25  | 13.7 |
|  |        | 울     | 3   | 1.6  |
|  |        | 기타    | 13  | 7.1  |
|  |        | 연령별   | 20대 | 25   |
|  | 30대    |       | 20  | 11.4 |
|  | 40대    |       | 23  | 13.1 |
|  | 50대    |       | 50  | 28.4 |
|  | 60대 이상 |       | 58  | 33.0 |
|  | 결혼 여부  | 미혼    | 43  | 25.0 |
|  |        | 기혼    | 119 | 69.2 |
|  |        | 이혼/별거 | 0   | 0    |
|  |        | 사별    | 5   | 2.9  |
|  |        | 사실혼   | 3   | 1.7  |

- ‘일과 가정 양립 확산 정책’의 1순위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성별, 거주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이 136명(75.6%), 남성이 44명(2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구가 64명(35.0%)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동구 58명(31.7%), 북구 25명(13.7%), 남구 20명(10.9%), 기타 13명(7.1%), 울주군 3명(1.6%)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이 58명(33.0%)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50대 50명(28.4%), 20대 25명(14.2%), 40대 23명(13.1%), 30대 20명(11.4%) 순으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기혼이 119명(69.2%)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미혼 43명(25.0%), 사별 5명(2.9%), 사실혼 3명(1.7%) 순으로 나타남.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분야 참여

〈표II-31〉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분야 참여

(단위 : 명, %)

| 구분   |      | 1순위    |     |      |
|--|------|--------|-----|------|
|  |      | 빈도     | 비율  |      |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분야 참여<br>- 국회의원, 시·구·군의원, 공공기관 및 기업 임원 등에서 여성들의 숫자가 적은 문제 | 성별   | 남      | 21  | 32.3 |
|  |      | 여      | 44  | 67.7 |
|  | 지역별  | 중      | 36  | 51.4 |
|  |      | 남      | 4   | 5.7  |
|  |      | 동      | 18  | 25.7 |
|  |      | 북      | 7   | 10.0 |
|  |      | 울      | 3   | 4.3  |
|  | 연령별  | 기타     | 2   | 2.9  |
|  |      | 20대    | 3   | 4.2  |
|  |      | 30대    | 5   | 7.0  |
|  |      | 40대    | 4   | 5.6  |
|  |      | 50대    | 17  | 23.9 |
|  | 결혼여부 | 60대 이상 | 42  | 59.2 |
|  |      | 미혼     | 4   | 6.5  |
|  |      | 기혼     | 52  | 83.9 |
|  |      | 이혼/별거  | 1   | 1.6  |
|  |      | 사별     | 2   | 3.2  |
|  | 사실혼  | 2      | 3.2 |      |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분야 참여’의 1순위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성별, 거주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이 44명(67.7%), 남성이 21명(32.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구가 36명(51.4%)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동구 18명(25.7%), 북구 7명(10.0%), 남구 4명(5.7%), 울주군 3명(4.3%), 기타 2명(2.9%)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이 42명(59.2%)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50대 17명(23.9%), 30대 5명(7.0%), 40대 4명(5.6%), 20대 3명(4.2%) 순으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기혼이 52명(83.9%)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미혼 4명(6.5%), 사별 2명(3.2%), 사실혼 2명(3.2%), 이혼/별거 1명(1.6%) 순으로 나타남.

(4)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

〈표 II-32〉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

(단위 : 명, %)

| 구분  |       | 1순위    |     |      |
|---|-------|--------|-----|------|
|   |       | 빈도     | 비율  |      |
|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br>-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보수가 남성 근로자의 보수에 비해 적은 문제<br>-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은 문제 | 성별    | 남      | 39  | 20.6 |
|   |       | 여      | 150 | 79.4 |
|   | 지역별   | 중      | 86  | 45.5 |
|   |       | 남      | 23  | 12.2 |
|   |       | 동      | 48  | 25.4 |
|   |       | 북      | 15  | 7.9  |
|   |       | 울      | 6   | 3.2  |
|   |       | 기타     | 11  | 5.8  |
|   | 연령별   | 20대    | 23  | 12.4 |
|   |       | 30대    | 12  | 6.5  |
|   |       | 40대    | 14  | 7.5  |
|   |       | 50대    | 66  | 35.5 |
|   |       | 60대 이상 | 70  | 37.6 |
|   | 결혼 여부 | 미혼     | 40  | 22.1 |
|   |       | 기혼     | 132 | 72.9 |
|   |       | 이혼/별거  | 2   | 1.1  |
|   |       | 사별     | 7   | 3.9  |
|   |       | 사실혼    | 0   | 0    |

-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의 1순위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성별, 거주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이 150명(79.4%), 남성이 39명(20.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구가 86명(45.5%)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동구 48명(25.4%), 남구 23명(12.2%), 북구 15명(7.9%), 기타 11명(5.8%), 울주군 6명(3.2%)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이 70명(37.6%)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50대 66명(35.5%), 20대 23명(12.4%), 40대 14명(7.5%), 30대 12명(6.5%) 순으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기혼이 132명(72.9%)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미혼 40명(22.1%), 사별 7명(3.9%), 이혼/별거 2명(1.1%) 순으로 나타남.

(5) 복지증진

〈표 II-33〉 복지증진

(단위 : 명, %)

| 구분                                  |       | 1순위    |    |      |
|-------------------------------------|-------|--------|----|------|
|                                     |       | 빈도     | 비율 |      |
| 복지증진<br>- 빈곤집단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율이 높은 문제 | 성별    | 남      | 31 | 29.2 |
|                                     |       | 여      | 75 | 70.8 |
|                                     | 지역별   | 중      | 37 | 34.6 |
|                                     |       | 남      | 17 | 15.9 |
|                                     |       | 동      | 29 | 27.1 |
|                                     |       | 북      | 16 | 15.0 |
|                                     |       | 울      | 5  | 4.7  |
|                                     |       | 기타     | 3  | 2.8  |
|                                     | 연령별   | 20대    | 9  | 8.3  |
|                                     |       | 30대    | 6  | 5.6  |
|                                     |       | 40대    | 8  | 7.4  |
|                                     |       | 50대    | 32 | 29.6 |
|                                     |       | 60대 이상 | 53 | 49.1 |
|                                     | 결혼 여부 | 미혼     | 14 | 13.3 |
|                                     |       | 기혼     | 80 | 76.2 |
|                                     |       | 이혼/별거  | 2  | 1.9  |
|                                     |       | 사별     | 8  | 7.6  |
|                                     |       | 사실혼    | 1  | 1.0  |

- ‘복지증진’의 1순위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성별, 거주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이 75명(70.8%), 남성이 31명(29.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구가 37명(34.6%)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동구 29명(27.1%), 남구 17명(15.9%), 북구 16명(15.0%), 울주군 5명(4.7%), 기타 3명(2.8%)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이 53명(49.1%)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50대 32명(29.6%), 20대 9명(8.3%), 40대 8명(7.4%), 30대 5명(5.6%) 순으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기혼이 80명(76.2%)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미혼 14명(13.3%), 사별 8명(7.6%), 이혼/별거 2명(1.9%), 사실혼 1명(1.0%) 순으로 나타남.

(6) 안전한 도시환경

〈표 II-34〉 안전한 도시환경

(단위 : 명, %)

| 구분  |       | 1순위    |    |      |
|---|-------|--------|----|------|
|   |       | 빈도     | 비율 |      |
| 안전한 도시환경<br>-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정, 성, 데이트 폭력 등) | 성별    | 남      | 24 | 25.8 |
|   |       | 여      | 69 | 74.2 |
|   | 지역별   | 중      | 43 | 45.3 |
|   |       | 남      | 10 | 10.5 |
|   |       | 동      | 21 | 22.1 |
|   |       | 북      | 13 | 13.7 |
|   |       | 울      | 3  | 3.2  |
|   |       | 기타     | 5  | 5.3  |
|   | 연령별   | 20대    | 15 | 16.7 |
|   |       | 30대    | 8  | 8.9  |
|   |       | 40대    | 5  | 5.6  |
|   |       | 50대    | 22 | 24.4 |
|   |       | 60대 이상 | 40 | 44.4 |
|   | 결혼 여부 | 미혼     | 23 | 25.6 |
|   |       | 기혼     | 56 | 62.2 |
|   |       | 이혼/별거  | 1  | 1.1  |
|   |       | 사별     | 8  | 8.9  |
|   |       | 사실혼    | 1  | 1.1  |

- ‘안전한 도시환경’의 1순위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성별, 거주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이 69명(74.2%), 남성이 24명(25.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구가 43명(45.3%)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동구 21명(22.1%), 북구 13명(13.7%), 남구 10명(10.5%), 기타 5명(5.3%), 울주군 3명(3.2%)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이 40명(44.4%)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50대 22명(24.4%), 20대 15명(16.7%), 30대 8명(8.9%), 40대 5명(5.6%)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기혼이 56명(62.2%)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미혼 23명(25.6%), 사별 8명(8.9%), 이혼/별거 1명(1.1%), 사실혼 1명(1.1%) 순으로 나타남.

(7) 건강과 보전

〈표II-35〉 건강과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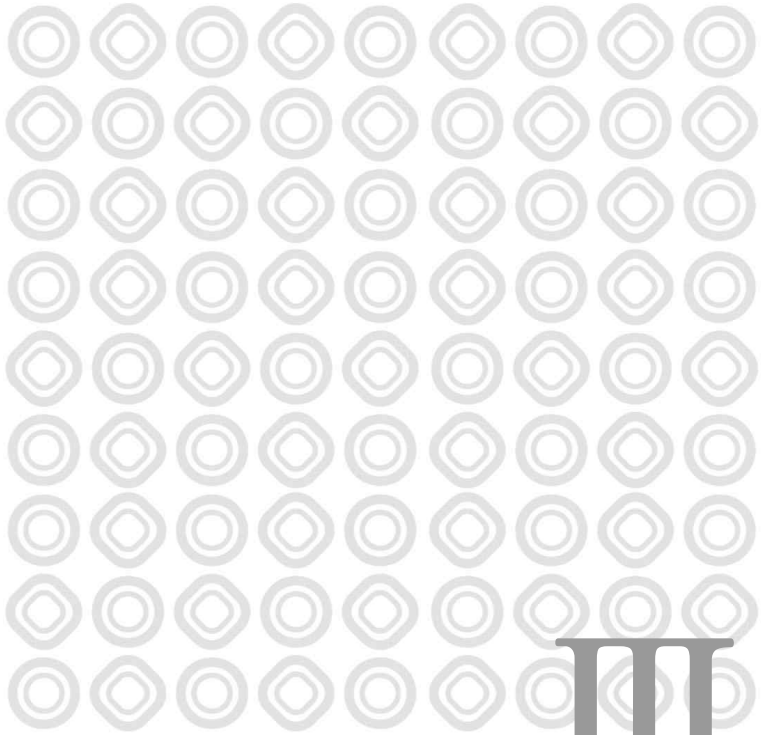
(단위 : 명, %)

| 구분   |       | 1순위    |    |      |
|--|-------|--------|----|------|
|  |       | 빈도     | 비율 |      |
| 건강과 보전<br>-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건강위험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특화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 | 성별    | 남      | 22 | 29.3 |
|  |       | 여      | 53 | 70.7 |
|  | 지역별   | 중      | 40 | 52.6 |
|  |       | 남      | 9  | 11.8 |
|  |       | 동      | 20 | 26.3 |
|  |       | 북      | 2  | 2.6  |
|  |       | 울      | 4  | 5.3  |
|  |       | 기타     | 1  | 1.3  |
|  | 연령별   | 20대    | 3  | 4.0  |
|  |       | 30대    | 3  | 4.0  |
|  |       | 40대    | 3  | 4.0  |
|  |       | 50대    | 24 | 32.0 |
|  |       | 60대 이상 | 42 | 56.0 |
|  | 결혼 여부 | 미혼     | 7  | 9.9  |
|  |       | 기혼     | 48 | 67.6 |
|  |       | 이혼/별거  | 2  | 2.8  |
|  |       | 사별     | 11 | 15.5 |
|  |       | 사실혼    | 2  | 2.8  |

- ‘건강과 보전’의 1순위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성별, 거주지역,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이 53명(70.7%), 남성이 22명(29.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구가 40명(52.6%)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동구 20명(26.3%), 남구 9명(11.8%), 울주군 4명(5.3%), 북구 2명(2.6%), 기타 1명(1.3%), 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이 42명(56%)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50대 24명(32.0%), 20대, 30대, 40대 각각 3명(4.0%)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기혼이 48명(67.6%)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사별 11명(15.5%), 미혼 7명(9.9%), 이혼/별거 2명(2.8%), 사실혼 2명(2.8%) 순으로 나타남.





# III

---

##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성평등 울산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



## III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 1)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생각

- 울산 시민의 울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성평등한 울산에 대한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6문항의 평점은 3.15점으로 대체로 성평등한 울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모든 문항에서 남성이 성평등한 울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간 성평등 도시에 대한 인식과 경험, 평가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울산(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24점)가 가장 높았으며, ‘울산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보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3.18점), ‘울산은 여성과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 한다’(3.16점), ‘울산은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도시라 생각 한다’(3.12점), ‘울산은 일과 생활(가정, 여가 등)을 균형 있게 병행할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3.11점), ‘울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 한다’(3.07점)의 순으로 나타남.
  - ‘울산은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도시라 생각한다.’에 대해 남성(3.23점)이 여성 (3.05점)에 비해 높게, 거주지역 중 울주군(3.38점)이 가장 높고, 중구(3.02점)가 가장 낮으며, 연령별로 20대(3.31점)가 높고 40대(3.01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 따라서 사실혼(3.25점)이 높고, 이혼(2.85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에 대해 남성( 3.33점)이 여성(3.1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기타 지역(3.23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3.16점)에서 가장 낮았음. 연령에 따라서는 20대(3.38점)가 높고, 40대(3.04점)가 가장 낮으며, 결혼여부에 따라서 사실혼(3.42점)이 가장 높고 기혼(3.13점)이 가장 낮음.
  - ‘울산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보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에 대해 남성(3.27점)이 여성(3.0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 울주군(3.34점)이 가장 높고 남구

(3.10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에 따라 20대(3.45점)가 가장 높고 50대(3.01점)가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미혼(3.33점)이 가장 높고 이혼(3.00점)이 가장 낮음.

- ‘울산은 일과 생활(가정, 여가 등)을 균형 있게 병행할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에 대해 남성(3.20점)이 여성(3.0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기타 지역(3.20점)이 가장 높고 중구와 남구가 각 3.01점으로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 20대(3.37점)가 가장 높고 30대(2.98점)가 가장 낮음.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혼(3.25점)이 가장 높고 기혼(2.99점)이 가장 낮음.
- ‘울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에 대해 남성(3.22점)이 여성(2.97점)보다 높게 나타남. 거주 지역에 따라 남구(3.17점)가 가장 높고 울주군(2.97점)이 가장 낮았음. 연령에 따라 20대(3.22점)가 가장 높고 40대(2.82점)가 가장 평균이 낮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혼(3.4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혼(3.00점)이 가장 낮음.
- ‘울산은 여성과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에 대해 남성(3.22점)이 여성(3.1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북구(3.22점)가 가장 높고 울주군과 기타지역이 각 3.09점으로 낮게 나타남. 연령에 따라 20대(3.22점)가 가장 높고 40대(2.85점)가 가장 낮음. 결혼 여부에 따라 사실혼(3.33점)이 가장 높고 이혼(2.85점)이 가장 낮음.

## 2) 성역할 및 성별위계에 대한 태도

- 여성가족부(2017)에서는 ‘성 역할 및 성별위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양성평등 정책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준거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규정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과 위계는 과거 전통적으로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남성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그 밖의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들 수 있음(여성가족부, 2017).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라 성역할 및 위계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2017)에서 사용한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책임 있는 역할(업무, 데이트, 남성성)’과 ‘일과 돌봄에서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그 결과, 울산시민 대부분은 ‘책임 있는 역할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별 위계’와 ‘일과 돌봄에서의 성역할 위계’ 대해 대체로 성평등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1)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성별위계

- 먼저,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성별 위계’를 업무(공적), 친밀(사적)한 관계, 전통적 남성성에 관한 인식인 강한 남성성까지 총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음.
- 살펴본 결과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성별위계’를 구성하고 있는 3문항의 평균은 2.66점으로 책임 있는 역할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 남성역할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즉,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거나, 여성보다 높은 직위에서 일해야 한다거나 이성관계에서 꼭 주도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모든 문항에 대해 성별로는 남성이, 거주지역 중에서는 중구에서,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별위계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20대, 미혼에서 책임 있는 역할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별위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강한 남성성’을 나타내는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2.87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03점)이 여성(2.62점)에 비해 높고, 거주 지역에 따라 중구(2.92점)가 가장 높고 기타지역(2.25점)이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서는 60대 이상(3.08점)이 가장 높고, 20대(2.00점)가 가장 낮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혼(3.64점)이 가장 높고 미혼(2.03점)이 가장 낮음.
  - ‘업무의 주도성’을 나타내는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2.5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남성(2.73점)이 여성(2.4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중구(2.70점)가 가장 높고, 기타지역(2.00점)이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 60대 이상(2.71점)이 가장 높고 20대(1.93점)가 가장 낮음.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혼(3.00점)이 가장 높고 미혼( 2.05점)이 가장 낮음.
  -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도성’을 나타내는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에 대해 2.54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2.69점)이 여성(2.41점)보다 높게, 거주 지역에 따라 중구(2.62점)가 가장 높고 기타지역(2.20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연령에 따라 60대 이상(2.71점)이 가장 높고 20대(1.83점)가 가장 평균이 낮음.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사별(3.07점)이 가장 높고 미혼(1.97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2) 성역할 위계에 관한 평가

- 먼저, ‘성역할 위계에 관한 평가’에 대해 기존 생계부양자 역할은 남성, 자녀돌봄역할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공사영역의 이분과 위계로 작용함(여성가족부, 2017). 노

동시장은 공적영역으로 남성영역, 가정생활은 사적영역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되며, 그 두 영역 간 경계와 역할 분담을 준수하는 것이 고정관념에 부합되는 활동으로 두 영역을 넘나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태도와 관련됨(여성가족부, 2017). 이에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과 남성이 자녀돌봄역할에 자립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총 2문항으로 살펴보았음.

-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돌봄 자립’에 대해 전체 평점은 3.4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울산시민은 대체로 전통적 성역할 위계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돌봄 자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모든 문항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역별로는 남구,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이혼/별거 가족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돌봄 자립에 대해 높게 동의함.
  -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3.38점으로, 울산시민은 대체로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여성(3.36점)이 남성(3.13점)보다 높게 나타남. 거주 지역에 따라 남구(3.56점)가 가장 높고, 울주군(2.94점)이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서는 40대(3.58점)가 가장 높고 20대(3.11점)가 가장 낮음.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이혼/별거(3.85점)가 가장 높고 사실혼(3.00점)이 가장 낮음.
  - 남성의 돌봄자립에 대해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가 3.53점으로 울산 시민은 대체로 남성이 돌봄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균은 남성 3.26점, 여성 3.51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구 3.6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울주군 3.09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30대 3.55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60대 이상 3.34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이혼/별거 3.62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사별 3.35점이 가장 평균이 낮음.

### 3)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 전통적으로 가정과 일의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분리해 왔으며, 남성을 소득이 있는 일을 하는 주 책임자인 생계부양자(공)로, 여성은 가정 내 돌봄 책임자(사)로 성역할을 분리해 왔음(여성가족부, 2017).
-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공-사 이분법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성 역할 고정관념은 사회적 자원 배분의 성별화를 정당화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7).
- 이에 가정-일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와 ‘일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앞에서 살펴본 남성우위와 성별위계에 따른 공사이분에 관해 대체로 성평등한 인식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정 내 성역할과 일에서의 성역할 분업의 경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여전히 성별위계에 따른 남성우위가 나타나, 남성들이 여성 영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수준이 높으나, 여성들이 남성영역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수준이 낮음.

#### (1)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 먼저,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은 총 5문항은 대체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모성(돌봄수행자)역할과 같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체계에 따라 분리된 부부역할과 관련된 문항들이며, 전체 문항에 대한 평점은 2.78점으로 나타나 울산시민은 대체로 가정 내 전통적 성역할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문항별로는 살펴보면,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남성소득우위, 남성생계부양책임) 및 남성 의사결정자 역할, 여성의 가정 내 돌봄 역할 우선과 관련된 문항들 즉, 기존에 전통적으로 규정된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대체로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해서는 전통적 태도가 있음.
- 하지만 기존에 규정된 전통적 성역할에서 변화하여 남성의 가정생활 참여, 남성전업주부역할과 같이 남성들이 가정생활을 주로 전담하거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 성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남성들이 가정생활에서 주어지는 역할 증가에 대해서는 성평등한 태도를 가지나 여성이 생계부양자로서 경제활동영역에 진출하는 것과 주소득원으로 생계부양자가 되는

것,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중구, 결혼여부에는 사별가족이 대체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전통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여성, 20대, 미혼은 대체로 전통적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가 낮게 나타나 가정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가 성별, 연령, 지역별, 결혼여부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전체 문항 중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 시 해야 한다.’는 2.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높을수록 여성이 자녀 돌봄 역할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임. 남성(2.81점)이 여성(2.52점)보다 높고 거주 지역에 따라 중구(2.70점)가 가장 높고 기타지역(2.16점)이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서는 60대 이상(2.79점)가 가장 높고 20대(2.05점)가 가장 낮음. 결혼여부에 따라서 사별(3.02점)이 가장 높고 미혼(2.09점)이 가장 낮음.
  -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는 2.95점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계부양자로 남성을 지지하는 것임. 남성(3.01점)이 여성(2.8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중구(2.98점)가 가장 높고 기타 지역(2.43점)이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 50대(3.10점)가 가장 높고 20대(2.32점)가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사별(3.16점)이 가장 높고 미혼(2.49점)이 가장 낮음.
  -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2.82점으로 울산시민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계부양자 역할을 남성이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임. 남성(3.00점)이 여성(2.63점)보다 높고 거주 지역에 따라 북구(2.84점)가 가장 높고, 기타 지역이(2.27점)가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 50대(3.02점)가 가장 높고 20대(2.07점)가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혼(3.45점)이 가장 높고 미혼(2.17점)이 가장 낮음.
  -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는 2.69점으로 울산시민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부장체제에 따라 강력한 남성생계부양자에 대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임. 남성(2.81점)이 여성(2.52점)보다 높게 나타남. 거주 지역에 따라 중구(2.70점)가 가장 높고 기타(2.16점)가 가장 낮으며, 연령에 따라 60대 이상 (2.79점)이 가장 높고 20대(2.05점)가 가장 낮음. 결혼여부에 따라 사별(3.02점)이 가장 높고 미혼(2.09점)이 가장 낮음.
  -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는 2.47점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체로 남성이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의 전업주부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임. 남성(2.55점)이 여성(2.2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중구(2.54점)가 가장 높고 기타 지역(1.86점)이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 60대 이상(2.54점)가 가장 높고 20대(1.74점)가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서 사별(2.70점)이 가장 평균이 높고 미혼(1.83점)이 가장 낮음.

## (2) 일에서의 성역할 분리태도

- ‘일에서의 성 역할 분리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총3문항은 공-사 이분법과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이 공적영역에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적합한 일과 남성에게 적합 일이 구분된다고 보는 태도를 의미함(여성가족부, 2017). 예를 들면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주로 사적 영역(가정)에서 해오던 가사와 양육 및 돌봄과 관련된 특징이 있고,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일의 영역보다 사회적 지위, 임금 등이 낮은 직업들인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태도 등이 일에서의 성별 직종 분리 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울산시민의 일에서의 성 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즉 성별 직종분리에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질문하였음.
- 그 결과, 일에서의 성역할 분리태도에서 여성영역과 남성영역 간의 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고,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임.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3.16점으로 울산 시민은 대체로 여초 직종에 남성의 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음. 여성(3.13점)이 남성(3.0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남구(3.23점)가 가장 높고 기타 지역(3.00점)이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 30대(3.23점)가 가장 높고 20대(2.95점)가 가장 낮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혼(3.67점)이 가장 높고 미혼(3.04점)이 가장 낮음.
  -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한다.’는 3.10점으로 남초 직종에 여성의 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성별에 따라 여성(3.08점)이 남성(2.9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높게 나타남. 거주 지역에 따라 남구(3.16점)가 가장 높고 울주군(2.87점)이 가장 낮으며. 연령에 따라 40대(3.37점)가 가장 높고 20대(2.93점)가 가장 낮음.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혼(3.17점)이 가장 높고 미혼(3.01점)이 가장 낮음.
  -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2.44점으로 대체로 감원 시 여성 우선 해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성(2.50점)이 여성(2.3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중구(2.55점)가 가장 높고 기타지역(1.95점)에서 가장 낮음. 연령에 따라 60대 이상(2.57점)이 가장 높고 20대(2.02점)가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사별(2.59점)이 가장 높고 이혼/별거(1.92점)가 가장 낮음.

#### 4) 성평등을 위해 긴급 추진되어야 할 정책

- 성평등을 위해 긴급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 ‘일과 가정 양립확산 정책’,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 분야 참여’,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해소’, ‘복지증진’, ‘안전한 도시환경’, ‘건강과 보건’ 및 ‘기타’에 대해 질문하였음.
- 조사 결과 1순위로 추진해야할 정책영역 중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 추진할 정책 영역 중 ‘일과 가정 양립확산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로 추진할 정책 영역 중에서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가장 높았음. 1+2+3순위를 종합해보면, ‘일과 가정 양립 확산 정책’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나타나, 대체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과 가정 양립확산’ 정책을 요구함.

## 2. 성평등 울산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 설문조사내용을 토대로 향후 울산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성평등 울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에서 성인지 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 13조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에 따라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시적이고 행사성에 그치는 사업들이 대부분임.
- 본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 세대 등에 따라 양성평등 인식이 상이하였으며, 정책요구 또한 달랐음. 또한 성별, 세대, 지역, 연령 등 다양한 울산시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별 경험 및 양성평등 인식정도, 불평등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방식이 상이함. 이에 상이한 양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해야 함.
- 현재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 등 교육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 외에 성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대상(예를 들면, 기업, 시, 구·군 의회, 전통시장, 농·어 업계, 주민자치영역, 사회복지종사자, 모니터링요원 및 봉사자 등과 같은 시민참여단, 방송영역 등)을 발굴하고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일상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추진하기 위해 4대 폭력 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과 함께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또한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 추진을 위해서 교육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양성이 필요함. 현재 타 지역 및 관련된 연구기관에서는 지역사회 특성 및 대상자별 양성평등 표준 교육안 개발을 하고 있으며, 교육안을 바탕으로 한 교육추진을 위한 전문 강사 배출교육도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양성평등 인식이라는 것은 교육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인식수준이나 이해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반감이나 편견이 생길 수 있음.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음. 이에 교육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다룰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강사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2)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양성평등 문화는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의 인식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에 따라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확산되어 사회전반을 인식하는 프레임의 준거로 작용되는 만큼 인식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외에도 다양하고 광범위한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성평등 인식의 전환이 가능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함.
- 양성평등이 특별하고 누군가의 특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다양한 양성평등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공공장소 등에 관련된 홍보물 비치 및 송출, 관련된 캠페인, 공모전 실시, 양성평등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시민상 수여, 양성평등 관련 이슈에 대한 홈페이지 홍보, 슬로건 개발, 기업의 양성평등 실천전략 비전선포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종사자들,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이 양성평등 관점을 통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 업무 가이드 개발(예, 서울시)등과 같이 지역사회 정책전반에서도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울산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양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외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통해 울산시의 모든 정책이 양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은 성평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참여한 주체들의 양성평등 인식이 함양되며, 정책 홍보를 통해 양성평등 가치가 확산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양성평등한 인식을 가져야하고 성인지적 정책 분석 역량이 되어야 함. 또한 양적으로도 성별 균형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성인지적 의제 발굴이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현재 울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이라 함은 매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 단위의 사업을 나열한 수준임. 이에 울산의 특성이 반영된 양성평등 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정책영역별 양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목표설정이 미비하며, 그 동안 추진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부재한 한계가 있음 (유아랑, 2017).

- 이에 울산시에 적합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울산시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함. 또한 시민들의 정책수요 파악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추진체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전략 도출 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할 각 주체들의 역량을 키우고 양성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임.

#### 4) 지역사회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운영

-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내 양성평등 관련 이슈 발굴,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및 문화 확산도 중요하지만 모든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도 중요함. 더불어 정책 추진 전반에 양성평등의제가 주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다양한 지역사회 시민주체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역차원의 젠더거버넌스 구축 또한 중요함.
- 정책 현장은 대부분 공무원, 의원,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양한 지역 현황에 맞는 이슈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언론, 학생 및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제들을 제시하고 또 평가하여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함.
- 현 울산에서도 이러한 젠더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2019년 초부터 여성정책네트워크 발족 등 조금씩 움직임이 있으나, 이러한 역량을 가진 지역 활동가를 찾고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지역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 이에 관련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역량을 키워내고 정책개발에 양성평등의제를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웹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중앙·지방자치단체 계획 및 보고서〉

-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유아량(2017) 울산광역시 성평등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이재경 외(2012) 여성주의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 여성학 제28권3호
- 이수연 외(2016)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형옥(2016)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수요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부록 1. 설문지

### 2019 울산시민 양성평등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울산광역시 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울산시민의 양성평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작성일자 |       |             |        |       |          |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
| 거주지역 | ① 중구  | ② 남구        | ③ 동구   | ④ 북구  | ⑤ 울주군    | ⑥ 기타( )  |          |      |
| 연령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          |          |      |
| 결혼여부 | ①미혼   | ②기혼(배우자 있음) | ③이혼/별거 | ④사별   | ⑤동거(사실혼) | ⑥기타(친인척) | ⑦기타(동거인) | ⑧비혼  |

1. 귀하가 평소 울산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 해 주십시오.

| 구 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울산은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도시라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울산(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울산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보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울산은 일과 생활(가정, 여가 등)을 균형 있게 병행할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울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울산은 여성과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평소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 해 주십시오.

| 구 분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여성들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의 보기는 남성과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들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를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별 3가지 작성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① 양성평등 문화확산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의 문제                             |
| ② 일과 가정 양립 확산 정책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 |  |
| ③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의사결정 분야 참여                 | 국회의원, 시·구·군의원, 공공기관 및 기업 임원 등에서 여성들의 숫자가 적은 문제                           |
| ④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 해소                         |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보수가 남성 근로자의 보수에 비해 적은 문제<br>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은 문제 |
| ⑤ 복지증진                                    | 빈곤집단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율이 높은 문제  |
| ⑥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정, 성, 데이트 폭력 등)  |
| ⑦ 건강과 보건                                  |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건강위험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특화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                         |
| ⑧ 기타                                      | 기타( _____ )  |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UWFDI 연구보고서 2019-08

---

## 2019년 울산시민 양성평등 인식조사

A survey of Ulsan citizen's awareness  
on gender equality in 2019

---

발행인 : 이미영

발행일 :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주소 \_ (44717)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20번길 24

전화 \_ (052) 276-8553 팩스 \_ (052) 276-8556

ISBN 979-11-969107-5-4

---